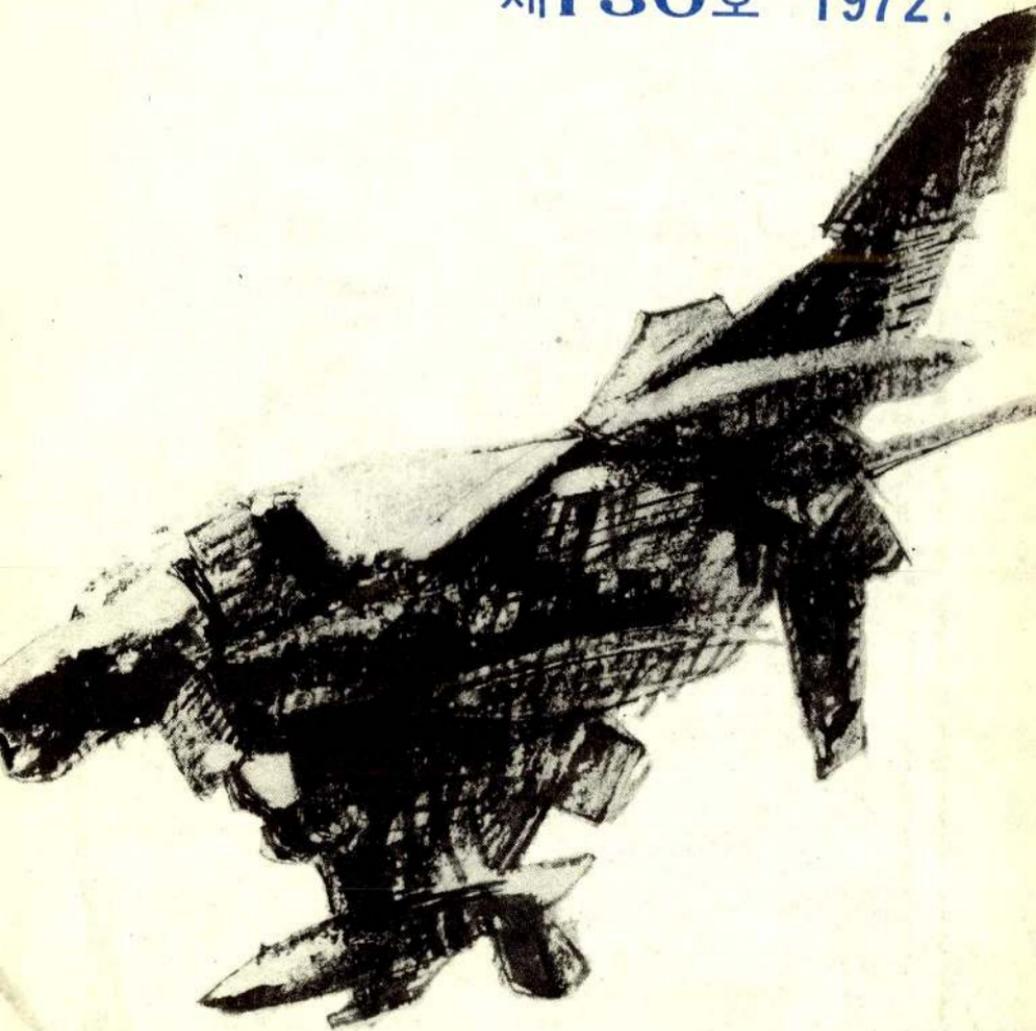


공작

제130호 1972.



1972년 8월 14일 인쇄

1972년 8월 19일 발행

고 장 덕창 장군 영결식 엄수

제 4 대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고 장 덕창 장군의 영결식이 7월 15일, 공군본부 광장에서 유 재홍 국방부장관, 옥 만호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장병과 유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옥 총장은 이날 조사를 통해 「장군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비행 1만 시간을 돌파한 조종사로 우리 공군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고 장 장군을 추모하였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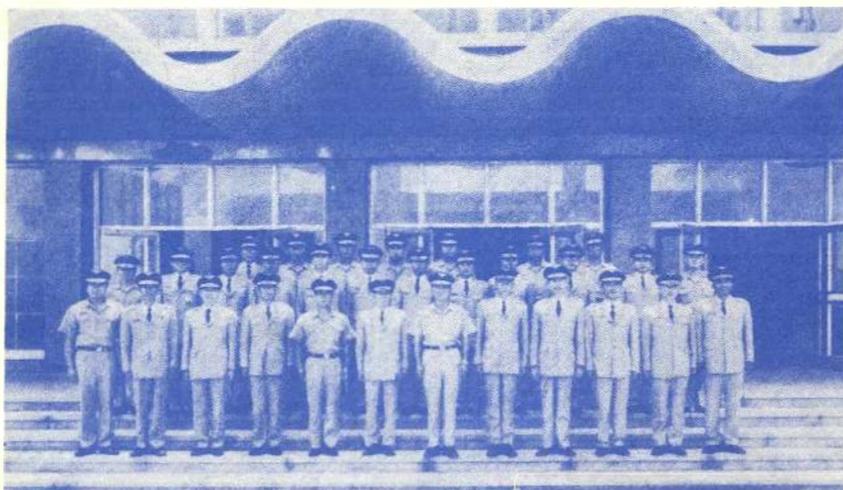
1968년 12월 5일



공군 전 부대 정훈참모회의 개최

공군 전 부대 정훈참모회의가 7월 12일 공본 기획상황실에서 전부대정훈참모가 참석할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7·4 남북 공동성명에 따른 공군의 정훈교육 방향과 지침이 하달되었다.

이 영웅 대령 외 〇〇명의 고급장교 전역 기념촬영



장 지량 주 이디오피아 대사 공본예방

장 지량 주 이디오피아 대사가 7월 14일 귀국 인사차 공군본부를 예방,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다.

신임 주한 미 해군 사령관, 육 만호 참모총장 예방

신임 주한 미 해군 사령관 「물간」제독이 7월 5일, 친선방문차 공군본부로 육 만호 총장을 예방, 기념패를 증정받고 있다.



「공 군」 제 130 호 차 례

[권 두 언].....정 훈 감 신 찬 (2)

< 특별 정훈 교육자료 >

남북 공동성명은 무엇을 뜻하나.....편 집 실 (4)

통일과제와 우리의 정신적 자세송전대 교수 안 병 옥 (13)

새 역사 창조의 길아동문학가 이 효 선 (21)

○ 명 살 문 회 화서울대 대학원장 이 승 념 (132)

○ 사 인간의 존엄성.....성대 대학원장 류 흥 털 (134)

○ 수 지도자의 환멸서울 교육대학원장 김 성 근 (136)

○ 필 용기로 구축한 진지를단국대 총장 장 충 식 (138)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전개돼야 하나.....양라디오 제작부 신 광 철 (25)

어떤 참모론손 철 영 (29)

지휘에 대한 나의 주장심 사 수(역) (40)

특집: 전 우 애

전우애와 우정의 참뜻이대 시청각 교육원장 김 은 우 (48)

숭고한 전우애공군 군종감 이 성 환 (55)

전우애는 전력강화의 원천조선일보 문화부장 유 경 환 (63)

상경하애 인화단결론김 유 력 (71)

표지화, 목차화, 컷진 광선, 이 재철

◀ 군사 과학 ▶

군사 전략지 승 용 (95)

이스라엘군의 발전사.....허 돈 구 (106)

오페라를 즐기려면편 집 실 (171)

홍도 여행기김 영 택 (140)

(만) (화) 공군 만상.....박 진 래 (93)

<연재> 숨겨진 이야기들 (2)전 재 수 (77)

— 함 공 실 화 —

제트 에이스명 영 남 (85)

간행물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이 원 호 (128)

☆ 군 종 코 너 ☆

군인의 용기.....군목 김 성 복 (146)

이해하는 마음.....군목 유 의 웅 (150)

복 종군목 이 준 학 (154)

자 제 심군종신부 홍 충 수 (159)

응급 처리법항공의학 연구원 제공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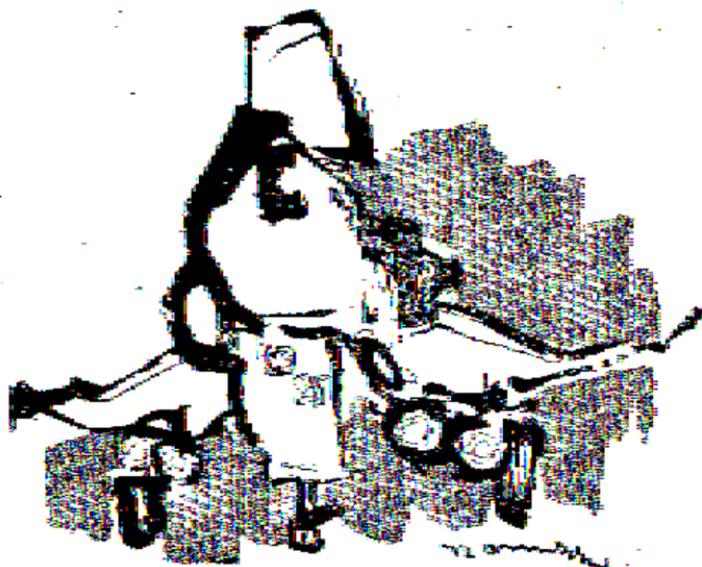
(탄) (편) 정직한 도둑도스또예프스키 원작 (175)

공군

(제 136호·1973년 제4호)

<이 해를: 무단 전재 금>

발행처: 공군본부 정보감실
발행일: 월요일
인쇄처: 공군교과서출판
인쇄일: 공군교과서출판
전화번호: TEL. 206-2222, 23-3511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공군]지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의 각 공상제역에서는 이와같은 책자들도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 이용하고자 할일이 되고 있으며, 최근 경부 기타 공군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문장 수단으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뢰된 공상전방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간첩들의 독자계되는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하여 무지중에 책이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보감실

광복절을 맞이하여

정훈감 공군대령 신 찬

『이 말은 새 부대이 될까』라는 말이 생전에 있다.

이 말은 새로운 지지가 있을 때이다. 혼란을 헤치는 말이다. 오늘날의 국내의 형세로 미루어 보아 군인으로서의 새로운 자세 확립에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조국의 영광의 수레 차에서 광복의 25년. 애국다운 15장 목적은 어쩔 길이 돌아온다.

식민지의 굴욕적의 빛의 날 광복이던 해방의 지름이 금년에는 새로운 결의를 가져다 주고 있다.

우들이 세계정세와 국내 당면문제 등은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동서 패권 두루트와 노령도, 즉슨 이 때 동양의 흥망과 소련당군에 고려하고, 남북 적십자회담과 남북공동성명이 체결된 결세변화되었고, 온 국민은 새로운 자세로써 지지 의용을 나누어 하는 것이다.

더구나 군인으로서의 우리는 구트장벽의 본분에 충실하게 위치 정렬하는



원 집 실

분단 27년만에 남북대학의 길이 트였다.

기후경화봉선을 비롯하여는 우리 의 오랜 노력은 이제야 그 빛을 보게 되었다. 지난 5월 2일 박정희 대통령각하의 영단 아래에 후각 중앙정보부장인 평양을 방문하여서 일성, 김 성주와 최두환고, 북한대학 설립의 서문을 방문함으로써 긴장분리를 모색하는 남북의 대화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다. 통일을 위한 몇 가지 원칙들에 의견이 모아졌다.

75년 7월 8일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된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 대화의 첫 결실이며 「8-15선언」 이후 박 대통령각하가 일관성 있게 시책은 평화통일의 구상이 북한에 의해 그리고 받아들여진다는 실증이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의 재선」에서 「내각있는 재선」을 하게 되었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와같은 평화경쟁체제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보한 선결과제, 경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국민총화를 구획하는 일이다. 국론을 통일하고 체제를 이루하며, 또 대화가 단결되는

민약의 경우를 예외하여 총독장부의 퇴제를 더욱 강력하게 구속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의를 성공으로 이끄는 기본일이다. 남북연합에 임하는 주인의 올바른 자세인 것이다.

1. 남북 공동정범은 왜 필요했었나.

남북 공동정범은 우리의 승리의 제1조건으로 이루어졌다. 승리들의 자유정과 자신감이 없었던들 남북 공동정범의 역사적 의의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남북 공동정범의 나오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했는가.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워려는 탁 대통령각하의 자식에 한 의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탁 대통령각하는 이미 1973년 8월 15일 역사록 「8·15선언」을 한 뒤 꾸준히 불탄된 민족의 재극을 돕고 모두의 평화적 통일을 모색해 승리 향상 자유적인 질서로의 승등적으로 통일강안을 찾는데 부동의 노력해 왔다.

탁 대통령각하는 「8·15선언」이후 남북간의 어느 측이 국민을 위해 보다 더 자유롭게 잘 사는 화친인가를 정의의 결단으로 저우려노자는 획기적 노력을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탁대 25년 동안 이트 제도자도 시도하지 못했던 자식에 한 자유적인 태도 표명이었다.

그 밖 만 1년이 지난 후년 8월 12일 우리 탁한 독립주주의 의지로 남북 간쪽들기를 위한 인도주의적 남북적합자의 예외회당의 열렸다.

그러나 우리의 승등적인 평화추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가열된 전쟁 준비는 우리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다.

북한은 이른바 전 국토의 토사화, 전 인민의 무질화, 군대현대화, 전근의 전부화 등 4대 군사노선으로 전쟁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탁 대통령각하는 평화적으로 남북이 접근하여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우선 갈등에 떨어지기 쉬운 전쟁위험의 실을 끄는 조치를 취하려 할 수 없었다. 즉 평화추구를 적극화 시키기 위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안전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무모한 남침거도를 막아줄 것이 적절히 비상사태를 선언했던 것이다.

한 때대로 평화통일을 향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함께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비상사태설안 등 통일의 의지와 결단 의제라는 두 가지의 민족적 사명이 남북 공동생활을 낚는 바탕이 되었다고 하겠다.

우리가 비상사태의 이점을 시련을 극복하는 가운데 각 대를형각하는 국가가 가야 할 원대한 진보의 길을 선택했고 자신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영단을 내리 역사적인 남북대학의 길을 트이게 만들었던 것이다.

남북대학과 북한측의 실질화 태도로 진행되고, 따라서 우리 민족의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로 번영을 통일 조국을 건설하는 계기가 된다면 남북 공동생활은 우리 민족 역사적 획기적인 공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2. 남북 공동생활은 어떤 내용인가.

① 통일은 다른 나라의 힘에 기대거나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과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무조건 사용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서로 자살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지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임을 깨달아 커다란 민족의 간섭을 굳혀 나가야 한다.

② 남북이 서로 경쟁하듯 갖는 오늘날의 승패를 누그러뜨리고 서로가 얻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승패라는 없는 말을 주며 내어 놓거나 비난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가릴 것 없이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으며, 뜻밖의 실수로 같이 일어나 큰일이 서로 다투지 않는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끊어졌던 거래상의 인력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서로의 이익을 두루이 하고 민족 스스로의 힘에 의한 평화통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남북간 제 이익자신의 용리와 거래를 확대하는 데 합의하였다.

④ 양측은 지금 은 민족의 크나큰 지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 주협적회담이 하루 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⑤ 양측은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군악간의 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일어나는 물의를 예방, 그리고 해크고 따르지 못하게 위하여 사

은과 정답 사이에 언젠가와 볼 수 있는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했다.

④ 쌍방은 이 중에서 합의할 사항을 우선시하고 다량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 후락 부장과 김 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전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쌍방은 이의찬은 합의사항들이 조국통일을 하루가 멀쩡일듯 독아르케 기다리는 온 나라의 한글같은 염원의 무뎠다는 정황을 인식해서 이 합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큰 민족 앞에 약속하 약속한다.

이상으로 남북 공동성명의 내용을 순서로 보았지만 이 중 실무적이고 결핵적인 사항을 제외한다면 하나도 새로운 것은 없으며 모두 약 터봉정각하기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던 제안과 같은 내용이다.

전국 정로통일을 위한 막 대통일과목의 꾸준한 노력이 그 결실을 나타 보여 되었다는 점에서 남북 공동성명의 의의와 결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3. 기본정책되는 어떤 연관을 갖는가.

합의된 통일정책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본통일 방침과 다른 것이 없으며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결코 아니다.

남북 공동성명에서 밝히고 있는 자주평화 통일체회를 앞지르게

했다. 의제의 의존어나 간접적어 자주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말은 자주적으로 통일해 노력하지 않고 주변화해 의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자주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는데도 어떤 부당한 의제의 간섭으로 통일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보통 친구 의제에서 차은 「유엔」 감시하의 출진이라는 우리의 통일정책이 있어서 「유엔」은 의제기 아닌다른 자주적 방법이 의한 우리의 통일 기본정책되는 아무런 전형이 없다.

물론, 영토적 통일방법이 강조된 것도 우리의 기본방침과 합치되므로 불 폐될 수 없다.

시제, 사상과 이념, 계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적으로 타단점을 도모 화자는 것은 같은 핵의민주으로 분단된 현실을 자쁘리고 통일해 대할 민족

의 실현을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라서 평화통일역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우익의 통일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고칠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협상을 국외의 적일외로 삼고 강력한 반공정책을 견지해 왔다. 이제 더욱 공산주의와 대화의 길이 트였다 해도 6·25전쟁을 일으켜 동족상쟁의 비극을 겪어 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용납할 수 없는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가?

그것은 통일을 이룩해야 되겠다는 열심이나 전쟁의 참화로부터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보자는 생각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대화의 길을 찾게 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공동성명의 취지의 건다.

대화를 나누는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용납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겠다.

4.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조국통일이 눈앞에 다가선 것은 아니다.

또 남북간의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한반도에 등장 평화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남북 공동성명은 「5억의 인구를 차지해 두고 살아야 할 같은 민족을 대소시켜 전쟁의 참화를 방지하자는 민족의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에 그 뜻에 있다.

앞뒤의 대화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시키기로 합의하고 자주의 평화통일의 원칙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의 대해 의견을 모았다는 점이 분과였다. 이제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대화없는 대결」, 「공산적 대결」을 대위 「대화있는 대결」, 「선의의 대결」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지 않았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두 체제간의 경계로써 이러한 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 남북간의 대화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열원인 조국통일이 이루어지는 공을 실현시켜 줄 것인가, 또는 현실을 보지 못하게 도로 대화를 막힌 「군사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서로 관계 악화된 때와 같이 「크고 작은 것을 각 존중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분리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고, 「남북 사이의 다량면역인 귀환 보류를 실시」하고, 「남북 체육자회담이 하루 빨리 종사」되고, 이 후속 중상적 요구들과 김 영주 조국지도부장을 공동수장장으로 하는 남북 조결위원회의 성립을 통해 운영되는 남북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된다면 통일의 길은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 그러나 남·북할 어느 한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통일의 길은 막히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평화통일을 위한 막 대통령각하의 권한권 집행과 제의를 할아를 필요로 한다.

필리 지슬레 올라간 김소도 없이 1970년 8월 15일 각 부총영과와는 북한이 무장공비 침화 등의 모든 전쟁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력에 의한 남북관계나 동적의 명에 의한 대량인구의 전부를 지도력 은 중전의 레드를 운영의 포기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여 내외에 선언하고 행동으로 실천한다. 남·북간의 과로한 인원과 감백을 단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개발과 건설과 상호의 협력」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이따같은 평화통일의 구상을 막 실행할하는 시도를 내어다 열관정 되게 저지했으며, 또한 8월 남북 통일외교회담 결과통일을 위한 조적 선장조치를 저의할 아 없다.

이런의 큰 배 문제는 북한이 공동성명도 약속은 얼마나 성의있게 이행하고 또 통일을 위한 조적에 임하느냐 하는데에 정복의 열의가 있다고 하겠다.

남북간 협상, 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일로 통일순서를 실시하자고 저의 함은 8월 25일도 함 되게 남·북남북을 북향했다. 믿이나, 후견협정을 조적려

술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사는 행정부만 사절은 일으켰던 일이나 또 1962년 의우부의 이론과 「4대 군사노선」이란 것을 추락당의 전격 북한동맹을 주장 시켜주고 북한 권역을 포섭하려 하는 등 전쟁준비적 정책을 지출해 온 북한에 가면 중립하고 정의있거 남북 공동성명에서 다결한 여러 가지 노력을 거둔 것인가 하는 데에 큰 거리의 불신과 거리가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조국통일은 본단 23년 동안을 하루같이 절망해온 우리민주 전력의 서북한 열원이라는 것을 명두에 둘 때 우측은 무엇보다도 북한이 정의있거 대화에 임함으로써 민주의 역할을 적당히 맡기를 바랄 뿐이다.

전국 남북 대화의 앞날을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치게 낙관하여 망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상상적 통일은 역시 빠져서는 안되며 적절한 판단으로 우리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5.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

이제 1만여기의 분할된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남북 공동성명」은 발표되었다. 각주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을 잇는 대화의 문은 열렸다. 진장을 듣기 위한 대화—정장을 거머 잡기 위한 대화—이러한 대화와 문 닫힌 남북의 정력을 풀고 전져지고 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화는 이제부터 전개되어야 한다.

이 어려운 대화를 할 두 사람만의 힘으로 완결되기를 바랄까 기대하겠는가.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하고 정통해야 할 대화는 원천적의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남북대화에 임하는 국민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대화에 임하는 모든 국민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 있어야 하겠다.

자유 민주주의를 생활생활 속에 태도들 하면서 민주적인 질서와 의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더욱이 북한에 대해서는 자유 민주주의를 가르쳐 주고 그 우월성을 스스로 거절해 가야 한다.

그리고는 자유의 불결이 육한 명으로 널리 불리 부를 공동들이 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북한과의 명확한 대결, 선의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이다.

지금부터 5년 전이 막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다음 자라 우리는 이제부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어느 체제가 국권을 더 잘 살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사회인가를 열충하는 개발과 건설과 장로의 경쟁"에 나서기도 한 것이다.

우리의 발전된 체제가 북한이 수락할 이상 우리는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실증하는 명확적 이념에서도 지어이 승리를 예복되야 한다.

물론, 대화는 국력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원리를 생각할 때 대화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력을 키워야만 한다. 우리가 남북간의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하는 것도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실감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 우리는 지난 60년대에 제 1차 및 제 2차 5년계획을 5년계획으로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농업부의 기반을 닦았으며, 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능력은 기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 3차 5년계획을 새로 착수함으로써 「안철과 균형」을 목표로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우기 지금부터 근면, 자조, 현충하는 정신 위에 활 사는 모습, 잘 사는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새마을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북한을 편협 짓고르는 계획관은 국력의 실감이 절로 무려로 하여금 자신과 용기를 가져도 경제동일의 구상을 앞질러 기피하고 우리의 주도 적극 북한과 마주한 통일적 정은 모색하는데 앞장 설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원거리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주 경제동일의 실현을 성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근년부터 새로 착수한 3차 5년계획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국민생을 목요하는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정적국 재발을 여독해야 할 것이다. 다만 경제적 대실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능가하는 국권을 키워야만 남북의 대화를 성공으로 이끌지 될 것이다.

세제프, 대화의 성과는 무한히 어느 정도 설의있지 대화에 임하는나에 잘

피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은 성급하지 대화의 성과를 기대하거나 세를 필요치 않다.

인생을 자지고 성의있게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감성적 평화통일 논의를 삼가고 또 지나친 티끌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독일이 전 국민의 전담된 지원을 받으면서도 오랫동안의 최단자정을 거쳐 비르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예는 분할된 국가를 통합하려는 대화가 그 결실을 보지 못하는 최대 짧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관찰이 좋고 게다가면적 성실하는 때도, 예전의 이팔도 서독이 동독을 앞질러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끈 선동력이었다.

할전 북한이 대화에 성의있게 임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김 일성은 1950년 위장된 평화공세를 전개하면서 6·25동란을 일으켰고 후전 후에는 무장군벌을 남파시켰으며, 그 무장적임을 모색해 냈고, 전쟁준비를 강요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다익 우리는 남북간의 대화를 진행시키면서도 민심의 사색에 대비하여 공적안보의 태세를 더 한층 굳혀 나가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대화와 시적되었다는 것, 평화의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 이외에 하나도 변화된 것은 없다는 점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욱도, 남북간의 대화를 성공시켜 통일을 더욱더욱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화를 이룩해야 한다.

북 대남공작하의 주변 정세의 올바른 판단으로 평화통일을 세의하고 북한에 이를 단야들일 이을 국민간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며 불관도 있을 수 없다.

남부의 대화를 뒷받침하는 데, 국운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며, 국민의 노력은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조국통일의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일체 단결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분단 27년만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자주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는 절절되고 또 결실될 것이다.

통일 과제와



우리의 정신적 과제

혈통은 약자의 좌는 길이다.
 단결은 약자의 무기요,
 혈통은 서로 융화코 돕는 것이다.

<송진우 고사>

한 념 육

역사라는 역족의 덩치이 작물었다.
 힘이 일기를 결결한다. 우리는 왜 불굴
 의 덕을 세웠는가. 민족의 자주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통일의 열
 감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통일을 경험할
 만한 민족의 자주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주력이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
 는 근본 열쇠이다.

그러면 민족의 자주력은 어디에서 나
 오는가. 힘의 열쇠가 무엇이다. 한 민족
 의 강한 군사력, 경제력, 경제력, 기술
 력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실력이 결정된다. 우리는 불
 감한 사자, 열주적 사회, 결실있는 인
 품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구축
 해야 하는가.

스웨덴의 유명한 경제학자 「구너 무
 르달」은 불 한 권에 「아시아의 드라마
 (Asian Drama)」라는 경제학의 저작을
 발표했다. 이 책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
 들에 인공하게 된 근본 원인을 분석했
 다. 이를서민 국역(國譯)이후 1776
 년 고전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국
 가 부강의 원인을 논한 명저 <국부론>
 을 쓴데 비해서 세 쪽은 아예서 아시아
 의 국가들이 빈곤하게 되었는자들은
 했다.

「무르달」은 세 쪽에서 아시아의 인공
 의 원인은 개혁차별이나 자본의 인공학
 문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계도의 관

<행위 목적과 우리의 정신적 지위>

한과 우리의 관념적 생활 태도 즉 바로 자신으로부터 행위를 행했다. 그와 같은 국가(Tough-State)와 약한 국가(Soft-State)를 구별했다. 강한 국가는 사회적 생활의 순되어 있는 국가로, 약한 국가는 사회적 생활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국가로, 강한 국가는 국민이 활동성과 합리성과 상투성의 힘을 갖는 데 의해서, 약한 국가의 국민들은 비활동성(Inertia)과 비합리성(Irrationality)과 비능률성(Inefficiency)이 많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신적 지위와 생활 태도가 활동적이고 합리적, 능률적이면 그 국가는 강하게 되고, 그와 반대로 비활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이면 약화된다. 즉 국력의 원인과 부강의 원인은 국민의 정신적 지위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달성 시키는 것은 또한 반드시 다음 세 가지의 생활의 수칙을 갖는다. 즉 활동적인 활동성과 합리적인 합리성과 진실한 진실성을 갖는 민족은 부왕(眞旺)하고, 그렇지 못한 민족은 쇠퇴한다.

경제는 경제의 능력과 질적인 의해서 능력이 있는 민족에 경제의 목적 요소에 의해서 지위를 얻는다. 합리적이거나, 생활 태도나, 국민의 의지와 자부심이 높은 요소는 경제의 목적 요소다.

공작(工作)은 국가 부강의 세 요소로써 경제력(錢), 무력(兵), 도덕력(德)을 놓고 도덕력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경제력의 계급을 강조한다. 즉 민족의 경제적 발전은 자위, 자선, 자술, 자제 등 경제적 요소에 의해서 지워진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이상으로 인간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발전의 결정적 요소는 결국 인간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인간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자원에 도전하는 의지, 계획, 자발력하는 창조적 정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명하려는 의지, 국민적 협동과 단결, 인간적 요소는 사회 발전의 중요한 열매이다.

자주 질문

우리는 이러한 정신적 질문을 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자주정신을 강조한다. 자주정신이란 무엇이다. 나라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이다. 내 운명을 내가 계획하고 내 머리를 내가 결정한다는 정신적

다. 자수성의 핵심은 자기 결심 결심이다.

나의 운명과 나의 의지가 일치해 결집되고 격려된다면 그것은 자수성이 아니다. 우리는 먼저 자수성이 되어야 한다. 자수인은 먼저 자기를 믿는다. 이 믿는 내가 하고, 우리 일은 우리와 일치하는 것도 자업의 결심을 갖는다. 자수성은 동일한 주일 결심(主日 覺醒)을 가져야 한다.

주일결심이랄 무엇에나쁜 독립결심과 책임결심이다. 주일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행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이 독립결심이다.

어떤 열의와 결심을 내의적 열의라고 믿고 자기가 나서는 것도 자업결심이다. 자수성이면 자수적인 수동 독립결심과 책임결심이 강하다.

자수인은 책임의리나 책임결과를 따지 않는다. 그는 책임무기, 책임강상의 부활을 바란다.

우리는 만국의 인민의 책임을 조상의 돌리거나 저절학을 뒤지나 환경이 돌리거나, 저라자부의 부부의 돌리거나, 의구의 결단과 자립의 승려라고 한다. 이것은 자수성의 리드와 아니다. 자수성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느끼는 자업 결심에서 자수적 본능심이 열어나다.

주일결심의 핵심은 노역결심이고, 불완결심이다. 당혹적 믿음, 애송하고 무의의 의지와 능력이 뜻깊은 것이 노이다. 남의 열의와 저수자의 취미에게 무책임하게 따라 따르는 것도 불완결심이다. 자수인은 불완화적과 불완화적 않는다. 노역은 불완하고 존엄은 불완한다. 주일은 자립하고 책임을 진다. 자수인은 먼저 자각적 실패하루. 우리는 내가 자수인자를 자각하고, 나의 열과 자립과 이의인기를 자각하고, 자의 열 열이 불완화적자를 자각해야 한다.

자수인은 글자로 자수성을 자각야 한다. 자수성은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자수성의 본리는 자의심(自愛心)이고, 자의 보편심(己與衆心)이다. 나 같은 자결할 수 있다. 나 자립야 자강의 자립지지 있고 스스로를 멸시하는 마음이 자의심이다. 그는 스스로를 포기하는 자다. 자수성을 가진 자는 자의심자(自願自愛)된다. 나도 자립 된다. 나야말로 무엇인가 해야지 하고 인간으로서 변형된 마음을 갖는 것 때 자의심이다.

<불을 피워야 우리의 정심적 자유>

자주인(自主人)은 자신을 자각야 한다. 자신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나는 것이다. 스스로 믿는 마음이다. 여기에서 힘이 생긴다. 자신은 성공의 기초요, 영광은 영광의 원천이다. 우리는 지면적 자신은 자각야 하는 동시에 변혁적 자신을 자각야 한다. 우리 민족은 천의 우수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 근세의 급속도 발전의 동경 중 남의 기회와 능이겠지 저들의 후진의 자살과 후진으로 일시 걸락하였을 뿐이다. 과거 우리 민족은 역사의 발전을 저지 말았던 실정 분명국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한 민족적 자신을 자각고 나아가야 한다.

자주인은 도덕적 정신과 계획적 정신을 자각야 한다. 나의 앞길을 자모하는 중의 길을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계획하고 결구하려는 계획적 정신이 필요하다. 나의 커와 작과 노력으로 새로운 부리를 건설하려는 계획적 정신은 자각야 한다. 자주성을 추구하고 추구하고 건설한다. 그는 노력하고 단결하고 은둔 도피(隱遁逃遁)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주 사회의 자주인이다. 우리는 단결적 독립적 살 부가 아니다. 자기의 일을 믿고 자기의 의지를 자각고 자각의 비망과 노력으로 자기의 발로를 스스로 계획하자 한다. 개인으로 그리고 단체적으로도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그렇다. 또 작은 밑에서 우리까지 「당원은 주인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름지기 새 자각 주인이 되어야 한다.

먼저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 가족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 민족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자주인만이 자각하고, 자발하고, 자립하고, 자충한다.

「이들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다. 자조 자립하는 자 먼저 현대 사회에서 우선 노릇은 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스스로 서는 자 같이 도망 남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맹목의 의리의 수적으로 알고,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커의 발광으로도 생각하는 능동한 자주 정신을 우리는 등에 지어야 한다.

「나는 자주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장신설의 외호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치·경제·군사·문화·사회적 모든 영역에 자주적 장대한 기풍을 독립 해야 한다.

민중의 행동의 정신

다른 행동정신을 강조한다. 행동은 서로 동의되고 있는 것이다. 단결은 약자의 무기요, 행동은 약자의 최후의 권력이다. 진정한 과두인민이 진정한 행동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다른 민중과 정부는 동시에 우리는 남과 서로 돕고 서로 이끌어야 한다.

분열되는 자는 쇠하고 약화되, 행동하는 자는 강하고 번성한다.

이것은 민중과 역사의 명백한 법칙(明白法則)한 것이다.

우리는 민중의 행동의 의동을 확실히 한다. 행동의 관념은 화평적이며, 애국적이며, 통일적이다. 혁명과 대립과 분열의 것은 아무 것도 이루어 지지 않는다. 쇠퇴와 대립과 분열이 있을 뿐이다.

행동과 단결은 위대한 것을 창조한다. 만 파국의 위기가 당적으로 한 단결적 고난이 엄습의 크고 한 열독에 시력이 쇠졌을 때, 행동 단결하는 자들이나 한지나 언족은 그 원죄의 죄를 씻을 수 있다. 그러다 행동과 단결의 선배한 자들이나 단결한 인물은 그 위기가 시련에 극복하고 한다.

행동과 단결은 우리가 사는 길이요, 번성하는 길이다. 비행동과 비단결은 우리가 죽는 길이요, 쇠망하는 길이다. 우리는 단결하고 행동하는 본질과 공부를 행하여 한다. 단결과 행동은 보편적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노력의 산물이다. 운동의 힘을 보면 이 진리는 명백하게 나타난다. 승리하는 힘은 앞으로 임위코를 할 것이다. 그러나 패하는 힘은 반드시 임위코의 서무이다.

한국인은 개인 불행이라는 말 하지않 임위코는 서무라고 한다. 이변하는 불행과 패하는 한국 민족의 성격적 고질적이라고도 말할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행동과 단결이 서무코로 임위코의 불행한 것 같다.

독일이나 미국인들을 보면 개인적 요인과 능력은 결코 우리보다 앞서지 않는다. 그들은 백인(白人)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과 단결의 능력이 세운듯 항상 우리를 능가한다.

분열수위는 분열(分裂) 수위(亂亂)였다. 분열적 수위의 열의 위아 서로 대립, 복종의 권속과 강하다. 그러나 민주 수위는 통일 수위다. 수평적 것들의 원죄 위아 서로 독립과 평등의 원리다 강하다. 자주 독립인이 서로 협력의 단결과 행동을 의무는 것이 아니라, 민주수위다.

<불일 화제와 우리의 정신적 자유>

우리는 행동의 조건 속으로 변할 수 없어야 한다. 우리는 행동의 불가역한 전제조건이다. 나와 너 사이의 조건의 없을 때, 내가 도를 행하지 못하고, 제자 나를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서로 행동할 수 없다. 불제어는 도를 수행할 때로 인간의 말이나 도덕행위를 할 수 없다. 손발이 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손이 뻣는다는 것이다. 도덕성의 사적영역으로 그렇게 할 때 불행, 정상성의 정상적 수단이 없이게다.

행동에서 자유가 생긴다. 우리는 서로 의무하게 살아야 한다. 또 의무할 때에 서로 행동할 수 있다.

이제 독립 불제에서 12주의 식욕의 비성장이 의욕의 부(富)와 권력과 영구가 결단적으로 많은 지점은 의결 수 있었는가. 그것은 순락은 단결과 일차 불완전 행동이 그들의 의 승리를 가져왔다.

그들은 「공리인 순교 공리인 불제」는 구조를 금주유조(金周玉調)로 삼고 하나도 부리고 세로 불제에서 비성장이 무조건 부성을 결단할 수 있었다.

행동과 단결의 목적을 행을 부르는 행위의 이스트라일(異) 불제한다. 오늘날 2차 대전으로 이스트라일 국인은 1차의 노는 자를 부추려 보위도를 삼고 있다. 그는 자의성을 살수없이 그로 지 않고 승리가 행하지 않는다.

이제 불의 자람 불제할 승리 불제 목적 승수도와 인종의 자유와 단결을 전제하는 근본정념이 무엇인가. 이스트라일 국인의 승수는 단결과 행동의 결단이다. 그들은 행동의 승수요, 단결요 불제된다.

불제 사의의 불제할 단결요, 따름다른 거동이 일어나야 한다.

권위 및 사의의 목적과 불제 수의에 기성수단과 세 세로 사의의 부인상호간의 행동의 과량이 불제하게 불제야 한다.

행동하는 권위요, 불제 행동하는 사의와 불제야 한다.

「나를 행동할 것이다」 이것이, 무리의 인간성의 제 불제야 되어야 한다. 행동할의 바로 불제 너도 삼고 무리가 다 같이 사는 것이다. 행동의 대부분은 화제의 불제야 불제고, 불제와 불제 불제, 불제 불제(不生不滅)의 불제와 불제다.

불제 사의의 모든 영역에, 우리 인종의 불제 불제, 우리 국인의 모든 행동의 불제와 단결의 새로운 거동이 불제되야 한다.

합 리 주 의

우리의 모든것이 합리주의이다 한다. 사고(思想)의 합리화, 생활의 합리화, 사회의 합리화가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의 개인생활, 단체생활, 사회생활,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이 합리주의의 정권과 권력에 서야한다.

합리적 정신을 과학적 정신이라고 말할지라도 무방하다. 합리화란 말 대신 과학의 어(科學性)란 말로 바꾸어도 좋다.

합리와 합리적 정신, 합리의 사고양식과 생활태도란 어떤 것이다. 합리적인 말은 물론 그대도 「모르기에 늦는다」 「모리(道理)에 합리한다」 또는 「모리(條理)에 늦는다」는 뜻이다.

이 최상의 모든 존재, 모든 사물, 모든 형상, 모든 일이는 하나의 질서가 있고 이치가 있고 법칙이 있고 질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리(理)라고 불렀는다.

하늘에는 천리(天理)가 있고, 땅에는 지리(地理)가 있고, 물체에는 물리(物理)가 있고, 질에는 수리(事理)가 있고, 법에는 법리(法理)가 있고, 학에는 학리(學理)가 있고, 생명에는 생리(生理)가, 이론에는 논리(論理)가 있고, 마음에는 심리(心理)가 있고, 인간에게는 도리(道理)가 있다. 수에는 수리(數理)가 있고, 행동에는 윤리(倫理)가 있다.

이(理)란 무엇이나 한 하나의 질서, 법칙이요 법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질과 법을 거역치 않라고 행동하고 생활해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합리적 사고를 행위를 한다. 합리적 사고는 실패율(失敗率)에 열차라서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실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합리적 사고에서 창조적 사고와 생산적 사고가 생긴다. 합리적인 것은 생산적이며, 불합리적인 것은 비생산적이다. 불합리한 것, 도리의 어긋나는 것, 부도리할 것이 없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합리적 정신의 가장 필요적인 것이 부족하다. 과학은 수리의 슬라톤 이치를 발전시켜 이치를 법칙 개리화해오 왔다. 이것이 부족할 때이다.

과학은 오늘날 인류에게 무한한 힘을 가지 왔다. 인간에게 한없는 권리와 승리를 알리고 후도와 생활력을 주었다. 합리적이라 하는 것은 곧 능률적이며, 생산적이며 창조적이며, 하는 말과 같다. 과학과 기술과 지식을 근간으로 한 근대의 과학문

〈통일 과제와 우리의 정신적 자세〉

영, 기술 문명은 인간의 가장 최대의 도구로, 인간의 가장 뛰어난 무지이다.

이 도구의 궁극을 가지고 인간은 자신을 정복하고 야만에서 문명에 도달했다. 이 도구의 부가적 가치로 인공과 진성을 정복하고, 현실을 부상을 이루었다. 우리는 이 도구와 무기를 결합하는 일로 서투르고 뒤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실존에 빠졌고, 후진성적 형이졌다. 사람은 일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다. 자신과 싸우고, 자연과 싸우고, 병과 싸우려면 과학이라는 무기와 도구가 필요하고 필요하다.

과학과 기술도 지식은 결코 얻는다는 아니다. 그것은 자랐다고 인간이 변하지 전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발전하고 발달한 무기와 도구 중 의식 단계의 과학과 기술과 지식이란 것이 있고 무거운 것이 없다. 과학과 기술과 지식은 근대화를 이루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도구가 되었고 수단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목표를 건설해야 한다. 근대주의 단계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비롯하기 위한 정신적 노스르에 다음 마음 가치를 들었다.

첫째, 불분명 단계의 과학 지식, 문학, 경제적 정신, 세계, 의식에 대한 관찰, 지적, 기술에 대한 관심, 다섯째, 같은 의제적, 사회적, 종교 권리는 법, 일관성, 합리적인 법, 사회적, 새로운 수장을 받아 들어는 법, 끝으로 복잡한 현실을 승리적으로 분석하는 법이다. 이러한 정신적 지식을 과학적인 단계로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후 가장 노스르에 그림정신, 기술에 대한 관심, 새로운 수장을 받아 들이는 법, 복잡할 현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법 등은 모두 다 합리적 정신, 합리적 방법, 합리적 태도의 산물이다. 합리적, 이것은 우리의 지르의 하나이다.

합리적 정신의 의성과 사회적에서 일어난 상호작용을 능히 할 수 있다.

우리의 수고와 행동과 생활과 거리가 합리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의 계층, 생활과 정신이 없는 근대화는 어렵고 인간에게 해방은 힘들고 후진성적의 탈락도 어렵다.

우리는 합리적 정신, 과학적 정신의 새로운 지식을 통해 사회에 확립해야 한다. 수구정신과 행동정신과 합리적 정신으로 민족의 자주력을 공고하게 구축하는 할 이 민족의 동일과 변형이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민족의 영혼 지르자, 이것이 우리의 공동생활과 되어야 한다.



<아름 문티카>

어 호 선

아무도 모르게 시작할 일

정겨운 모퉁(승광동)엔, 꽃을 심는다는 젊은,

원래를, 누가 시작한 일일까.

남들은 벌써

알아차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오랜 외향을 하면서

종종 그 크마음을 알았다

네는 정겨움에나 미치 있는

꽃과, 더이지, 무아령의는,

달맞이꽃, 구한포야, 처승화,

여름 할당해

심릴 때마다 분노 있을 때,

최후 결정한 때조차 다래,

얼마나 나는 심음을 받았는지 모른다

먼 다음,

어느 정겨운 마을만이 일각의 바그,

흔적자, 아무도 모르게 시작한 일지,

지금은 온 나라에 퍼져 있다.

어느 성직관 의장실의, 고자 누구인가,
 아무도 그 이름을 아는 이는 없거니,
 알려지도 알지 않,
 저도 모르게
 모두들, 얼마나 위엄을 함락 했을까,
 그러고 또, 그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갈수록 왔을까.

나는, 최초의 그 의장님을 만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지않,
 어떤 다음을 누구에게나
 되풀이 되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래 여행을 간이한 이거나,
 아주 천한 친구에게나 할 수 밖에 없다.

위대한 경지까지 되기 싫어도 좋다,
 풀음된 칼자국 알 되어도 좋다,
 될 수 있으면 나르,
 서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좋다,
 이 편 처음 의장님처럼,
 남 드르길, 남에게 감사할 말을 수 있는 그럴 일이, 하고 싶다.

이 시의 주제는 어느 외국의 사동문학자다. 『될 수 있으면, 남도』에 대해 알려지지
 않아도 좋다.』로 한 작자의 뜻을 알아서 그 국적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자신 고백다. 주자와 주자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도하는 그 작품을 기억해 주기를
 타라는 것이 작자다. 독자로서도 그렇다. 그 작자를 해서 기억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작품에서 감명을 받고,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감명을 받지 못
 하고 공감하지 못한 작품은, 작자는 기억할 지언정 작품은 기억하여도 기억하지도
 않는다.

서클은그만 경지랑 불타리이 되어 있는 불, 레살라·코스모스…… 레가수 책을
 부리지 않아도 제자나 손자나는 레살라·코스모스…… 그 책을 읽 작품을 부린 사람
 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작자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

다. 그저 꽃을 심는다는 생각뿐이었을 것이다. 황순한 시를 짓게할, 한 톨 적은 시
 글 석감, 백광은 향 큐드로 그 꽃감을 바라보고, 아침 저녁으로 물주고 파꾸는 열을
 즐겨움으로 수확을 얻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사당에서 즐겨움에 몰다는 것은 역
 정은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현실 이북도 꽃씨를 부리지 않았다면 꽃이 열어도 쓸쓸한 정겨움이 현아나 작곡할
 을지할

인물 뒤의 인물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우수한 역자를 가지고 있다. 그 역사는 인물은
 역사에 실리지 않는다. 그 역물은 곧 역사의 통로이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그만두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인물을 살펴보자.
 단명한 역사가 수 많은 인물을 낳았다. 1939년 조선사에서 열서한 조선명인전은 100
 명을 수록하였다. 별거날 이름을 기록하여 이름난 지상(宰相), 이름난 장군, 승선,
 이름난 문, 훌륭한 연미, 서연, 문호, 작사(문학자), 화경(화가), 이름난 의사, 이
 름난 처녀가, 이름난 비부 등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각 부문에 걸쳐 크지
 아니거던 사람들도이다.

그들은 일찍이 들어 인적은 장렬 저들이 없거니와 시 역사의 갈로는 저를 역사상
 인물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름있는 춘추(春秋)로도, 이름있는 군포로도 능히 세
 계수를 향모하였고, 열으로도 할 것이다. 그들은 슬픈 역사상 열들이, 되지는 못하
 였도, 알으로도 되지 못했다. 마치, 맏도시 역사에 남으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자랑하는 고려인자를 보라. 그것을 누가 만드었다는 기록은 보았는가. 이
 로 역자도 그렇다. 사람은 이름 있는 도공(陶工)의 손지가 아니었는가!

중국과의 전투와 혁명전선 출신 조국을 보라. 그것은 철학자 사상이 있고 강도 지
 휘할 사람이 없거니와, 계몽을 알라는 도란군부, 거둔과 서적자를 받은 목수의 힘이
 아니다. 높은 달자는 옥도군부 들은 모든 석수장치의 힘이 아니다.

물리전선의 출신 역자를 보라. 수(水)나라의 역만 사람은 무지한 전후론 슬러논의
 의 두의이거니와 그 철학을 수필한 것은 실로 이름 없는 글꼴들이 아니겠는가!

이 승선 장군의 노망(露望) 역들도 그렇다. 장군의 승리를 철학자 할 복은 글꼴들
 의 힘이 아니겠는가!

물리 세인상(神印상)의 철학 대상계를 보라. 수 많은 이름 없는 작자상(作者상)의

한 주으로 새겨진 것이다.

세종 임금의 힘으로도 못했거니와, 천진정신을 지어낸다는 것엔진, 학사의 **심열**이 없
게 할수없다!

<조선의연설>을 펴낸 이는 보세 우리나라 인구는 100명으로 못 될것지만, 그중
은 모두 이젠 천적으로 나쁘라는 억울한 비유이다. 그 천을 짚어 주어야 많은 이류
없는 민중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또 그 일류 역사의 노력학과 완성까지 못하도
부실하게 못하고 한 일류에 있었음도 싸움만 할아야 한다.

광의성 있는 열렬

천적자나 지휘자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둘 저쪽누에 천적자가 둘일 수 없고, 한
집안적 적의자가 둘일 수는 없다. 천적자가 천이고, 지휘자가 둘일 때, 그 천후은
원한을 이루지일 수 없고, 그 천후은 온라게 화되고 만다.

그러나, 천적왕 세 역사의 광로는 천적이고 바다 지휘자의 열렬에 복종하는때 그
제국은 열 된다. 정제도로 열렬에 화코면서, 적자 천의를 변주리역야 한다.

모의 천적나 소의 천적의 열과와 모양은 누가 적시했건가부 어디까지나 소공의 참
역야 아니었건가!

불국사의 천후와 석굴암의 불상 조각은 **그리하라고** 누가 적시했건가? 국수가 되
제국을 한 천 후 라고 국수가 정 열 천을 바 조고 된 것은 것은 오직 국수와 국수의
참역야 아니었건가!

불교문적이나 이슬신세에 천공의 간결을 적시했건가? 일관은 그 복임을 저후 그
일문 잘렸을 것이 아니건가! 간결들이 꼭 한 천을 더 조고 된 천 열을 더 적시 제
국 하나를 더 부리려 것은 어디까지나 문공들의 순결적인 정역야 아니었건가!

팔만대장경 **판각(鑄刻)**은 세 큰 단자로로 세기되, 팔 한 편 더 제의 직을 슬린 것
은 어디까지나 조각상의 참역야, 불민정을 창제는 일공의 뜻으로 이루어진 간결한
각자들의 참역야 아니었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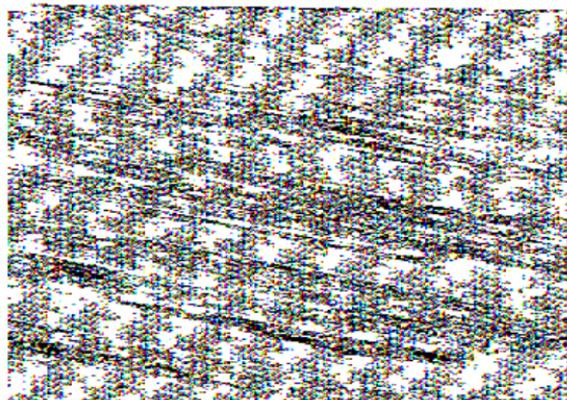
조그만 세를 정거장의 역장제된, 악후도 모르게 스스로 꽃을 심으면 된다.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거를 바라리 할지, 이름보다는 더 높은 일이 되어 남아 질적
가치를 할후자. 그 일이 아무런 타함은 일이라도 좋다. 「세 역사의 참공」란 바로 이
같이 아닐가 할다.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전개돼야 하나

동양라디오 제작부

권 광 원



- 새마을 운동은 한마디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운동이다. 그러므로 새마을 운동의 전개는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어야 한다. 생산과 연결되지 않는 그 어떤 새마을 운동도 재갈 미치지 않을 수 없다.

× × ×

새마을 운동의 최종 목표는 부강한 국민 대양이다. 요즈음 거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마을 사업은 새마을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기 위한 실용적인 움직임이다.

새마을 사업이 처음으로 구체화 된 것은 지난 79년 4월 23일에 있었던 지방공무원의 해직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농촌이 먹고, 자람, 번영하게 스스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정신을 발휘하는 사업을 전국에 보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이 주요하여

그의 10원부라 한 사설이 수록되어 서파를 내놓은 바 있었던 것이다. 그해에 작년인 전국 3관 3월 2백 53권의 이·동에 서파를 사설의 실시였는데 그 결과 부작 지도자와 있어 탄압이 잘 되고 근무장조하는 경향이 뚜렷했던 바는은 성공적이었고, 반면 지도자가 없는 바를은 서파 비협조적이어서 성과를 다루지 못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과제로 대수될 것이 지도자 육성 문제였다. 어떤 부파의 지도자는 적두정일 없고, 부작면의 내분을 조종, 다른 사람분위 실정을 알지못한 작지도 있었다.

작년도의 서파를 사설은 이렇듯 부작은 격렬히 투쟁도 분구라고 성공할 부작과 실재한 바는은 향유되었는데, 이 결과 올들어 그 반수인 1관 1월 1백개 바를한지 서파를 사설 이상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후 사설에 1백 22개원을 투입, 다른 반년 퇴장·정장대량·승조로결·노련된 모수·간악한수사할 이전·중동 발대리 만국기 등 민원외 서파를 다루어 사설이 지날 4월달로 거의 초과 달성된 경이로 이전 능력기들 못과 소독기들을 위한 생산사설에 그 열도를 높였다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책자를 사설이 여기까지 보지 된다는 것은 선행할모우·파를 수합은 의 지라전 결핵과 출혈 등 부작상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요즘을 필자가 전국외 책파를을 관우 취지적 특을 심해적 된 것도 이런 부작상의 목적에 있었던 바 사설로 지면 사설은 얼마 안 되는 수합은의 지라전 책파는 다루어 사설 전합에서 원유것음을 할 수 있었다.

연해도 농파에 인원이 부족이 할 지남 4월 지유할 곳자리만리가 놓아졌고 그 결과 모해기가 놓아지고 있는 것이다.

책파를 사설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다루어 수합보다는 생산사설을 일정을 다야 있다.

참고할 바파를 연설사려인를 수합적 의고 있는 모의 <모의의 지는 끝은 연말말 중화 연 뜻치정 보려가 지 있었다>, 보지자 중함을 사합하는 중설의의 모해기, 민중의 장 취이라고 더 배려파의 눈부림에 부설기 운동은 하는 모습은, 모우가 5월의 부은 때를 뵈고 조독해가만의 활결이라고 보치는 농민들의 힘과 고통이 마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책파는 궁중이거야 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 농촌은 모든 농사현황 식로 힘을 모아 공동투쟁으로 하고 있다. 아을바다 공동으로 박원한 곳자리에서 노를 지내는 실존함이 다른 수합으로 모의의를 활결하고 동원하는 움직임도 힘은 모으고 있다.

이렇게 농민들의 책파를 사설은 중점으로 일관해야 할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농민들을 어떻게 의용호느냐에 달이 있다. 농민처럼 사시 농자 무업으로 모공중 생

상, 공리공 명틀기 등의 사익을 건지 놓을지라는 명백스런지 뜻한 말을 하여 승우라
게 입해야 할 것이다.

×

×

×

오른쪽 불경지급 죄상으로 있는 서마흔 승우.

악은 우리의 과달과 패득을 잘라내려는 어이런 후경적인 승우이다. 우리는 그런
같은 승우를 원치않다. 「적악파의 지한부동, 「적진부동 운동」 등 잘 알고자 하는 승
우는 저급한 수법이 전제되어 있지만 아뢰었 우리가 과달의 불리한 면에 뜻하고 있
는 것은 저급파의 승우가 구두로써 끝나 정국민의 과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채
군살 것이다.

서마흔 승우가 설화를 지우었던 학자의 지속적인 정진운동으로 볼드되가야 한다.
크롬 승우라고 있는 서마흔 정진이란 말은 제자는 승우를 선경적으로 이룬다 위와
우리의 정진투쟁을 뜻하는 것으로 자포·자립·인품의 정진이 근본을 이룬다고 하겠
다. 그런데 이러한 서마흔 정진이 승은에서인 해방되고 권정(淸正)된다면, 서마흔
정진이 있는 본회의 의도도 크달리까지 많은 수리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하
우리가 사죄 아연으로 볼 때 가장 볼드하고도 직정하지 요구되는 서마흔 정진의 소양
는 바로 도제라고 하겠다. 그런 우리의 도제는 어떤가. 아직도 빈민과 부의가 권하
자 해서 위위 도제라고 했으며, 저승는 크롬될정엔 으레 소리일텐도의 음속이 권하
라고 있지 않은가.

나는 서마흔 승은에서 비롯된 제자를 승우가 도제에서 권정되기를 주장한다. 승은
과 도제를 발전하는 서마흔 승우의 전제는 제학 으릴 방향으로도 이뤄졌으면 한다.

그것은 크롬 승은에서 자제정음을 갖고 있는 제학을 확대해서 승은과 도제를 한
쪽 묶는 도제정(道制正)의, 자제 정음이 그것이다.

승은의 한 제학과 도제의 권정 등이 제대 정음을 갖는 경우 도제 제정들은 양종리
일하는 승은들로부터 안일과 부유가 행어나 부질없는 것일거를 배우게 되고, 반한
승은 제정들은 도제정들의 눈경에서 새로운 변화와 움직임을 읽을 수 있을터니 믿이
다. 8월은 승은에서 도제정자와 모어지 등으로 그야말로 승은들은 모든 서진정자 없
는 정도로 마르쳐 들라했었다.

제마흔 「승은 일흔 들기 승우」이 정우면 지방자진적 승우선과 정우 선화 승우단체
제정된 승심으로 부질정정·왕의정정 승기와 지라 도제정자 부득한 승정승 대승으로

《주 회관 참모론》

어떤

참 모 론

손 철 영

사람이 조직체의 정원으로써 그 본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이란 따지고 보면 꽤 어려운 일이다. 특히 군이나 기타 조직을 막론하고 그곳의 참모라는 직책을 통수권자와의 관련 속에서 성공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극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 글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군사연구”지에 실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프로토콜”에 심취 한듯한 끝자는 음에도 “생명체의 원리”라는 제법 차원 높은 관점으로부터 참모의 자리에 접근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내용인즉은 우리에게 결코 낯선 것들은 아니나 예로 신성한 맛을 좋기기도 하며 하나의 견해로서 참고가 될리라고 본다. 체계적으로 훌륭하게 전개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대로 필자의 견해는 부각되어 있다. 지면관계상 그러한 견해를 이해하는의 지장이 없는 한해서 과거의 일본군이나 일본 국내의 사정에 관한 사실들을 취사하여 전장에 걸쳐 부분적으로 성취하였고, 남측에 보지 않는 무리한 표현이나 문체는 역자 나름의 타격을 옮겨 놓았음을 밝혀 둔다.

1. 말로(幕僚)란 무엇인가?

라는 말과 구별하여, 「참모」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참모의 개념과 같다.)

《주: 본문에서는 「막로」를 「참모」

제정결정이 송모삭속(送斷削歙)할 것은 출수(出頭)할 때의 그에게 주어질 야전 군 출사령관으로써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옳을 것이다.

〔주: 본론에서는 악도로 참모를 구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참모는 악도부 참모를 통칭하여 지칭하는 개념이 것으로 보아서 무리할 것이다.〕

2. 참모부 발달의 역사

참모부 발달의 역사에는 나라에 따라 두 개의 경로를 있었다.

하나는 군 자체의 전직결함으로서 자군화기 위한 행정서무기원(정계, 노승, 급사, 위령 등)으로부터 발달한 계통으로서, 말하자면 중합자관(Quarter Room)에서 참모부로 된 것이다. 영국 군규에 이러한 선택과 강한 것은 그의 국민성적과 아울러 미개한 직업직이세외 전령이 많았던 탓이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장의 통수를 보좌하고 근원한 자들로부터 발달한 계통으로서 여기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영통적인 참모부의 발달 형태이다. 근대에 이르러까지 선택되는 참수는 참모장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았었다. 「라리산티」, 「칼리달」, 「에아서」, 「갈브로」, 「크롬웰」, 「프리트릭」, 「다블린」에 이르러까지 모두 그러하였

다. 「다블린」은 「프나홀트」로써의 최승격의 영일 세 월의 말을 부 최저전서 전령학을 해서 다니며, 각 장군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다. 그의 휘하의 「판의술」은 참모장이었다고는 하나 지을 자기 장에 지나지 않았다.

〔주: 군의 참모가 이른 쪽의 어법이 단일 공물의 참모장적은 물론 참모가 「다블린」이 구두(口頭)라할 때는 명령을 통기하여 위한 영일을 자음에 맡고 다니던 편이었는바, 그것이 장의의 즉위로 전파하여, 장모의 권위와 정장(正)의 상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동양의 장수들은 옛로부터 비장보도(裨將保導) 같은 저능의 소수자를 추근에 가지고 있었다. 한고(漢高)의 장부(張敖), 송(宋)의 장장동명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서양세력의 이슬라전 수장 단등(斷斷單斷)의 통수 장식은 「다블린」으로서 끝났는데, 그것은 행정수가 증대하여 전령사가 되어결과 아울러 결정방술이 복잡하게 된 때문이었다.

「자음결정」 후 세 오면 동안 지속되었던 정형적의 각국에서는 각국의 사관사령의 따라 극히 저속의 참모부들 발전시켰는데, 1553년부터 18세기까지의 30년간, 「프르세아」국군의 참모총장으로써 정령적으로 참모부들 속성한 것은

○러려 참모본○

「모로토기」이다. 그는 관직있지 그리고 철저히 참모장교를 훈련하여 능력을 향상시키고, 참모본부와 각 사령부의 참모부를 조직하여 전군의 통수체제를 건설 하였다.

(주: 당시 각국에서는 대부분 무장의 참모 장교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고 말하였던 일을 배반하였는데 그것은 「모로토기」가 죽은 뒤에 「알렉스. 사워의 열적이 불우하게 못한 장교나 참모가 선사의 후원을 받도록 진심(眞誠)으로 고안하였던 것과 독일국민에게 두드러진 「슈투트」와 「크라우세베키」적인 사고방식이 합쳐서 나타난 현상을 소위한다.)

또 하나는 열외부의 향기나 용감, 귀족들이 전공적이나 정치적 이유로써 장수모독의 계기가 되고 있음이 적지않고 그 뒤쪽에 활약을 하 미준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동·서양을 다른 다른 견해를 하와 같은 「나폴레옹」으로부터 「모로토기」에 지르는 흐름과는 별도로 참모부 발달 경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참모의 열무

가. 사령관의 마음을 속박이나 압박(脅迫, 威, 술마의 의지의 저우, 저본, 정세의 불투명 등)으로부터 해방시켜 자

율종로 독립되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그의 본성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임무의 주안이다.

참모장이 대한 참모부장(參謀長)의 임무는, 참모장이 할 수 없는 또는 하지를 좋아하지 않는 민일의 일을 처리하는 것인데, 이외의 일은 참모장 및 참모 원인이 수정관과 협력하여 지는 업무이기도 하다.

참모부 의도를 밝히려 하거나 혹은 참모부의 도의 면승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들은 적관(直観)하여 장수모독의 본질을 직간수 있도록 보좌하는 작구의 적정관과 승리가 없는 것은 참모로서의 작구의 없다.

나. 참모는 사령관과 그 휘하의 군대 사이에서 명령의 전달을 책임야 한다.

주. (1) 사령관의 의도를 전적과제 하 통시적이고 사령관의 대한 신감에 들어 가지 않도록 장교로 보좌하여, 수정관에게 활상 열외의 거리를 감독시키고.

(2) 작살 일선의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비를 지휘할 순서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수정관과 일선의 신의를 유지하는 일이 중요로 갖추어야 할 중요 조건이다.

조제의 성원 전체의 신망은 사령관 한 사람에게서 결단 되어야 한다. 오소 남해

는 일반적으로 종합적이고 대략의 수는 다
수의 동원이 동원된 글씨로 되어 있다.

총합의 대략, 특히 어떤 결정에 이르
러서 결정을 결단하여 일련의 가설 및
의 수는 참모는 실적이다.

다. 사정관계의 목적의 정확하고 정보를
계정함과 아울러, 여러 상황의 우이중
관단하고 연구하여 하나의 순차적으로
사정관계의 결심과 결정을 준비한다.

참모가 대동(大動)을 결정하고 사정관
은 사소한 자구 수정을 가라고 하는 것
같은 적대관계?

정확하고 명징하는 것은 사정관 할 사
라 관의 일이다. 이밖에 단 한 사람의
마지막 조언과가 있는데 그가 하도정도
강이다(두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가
결정 전도하다)

참모의 본질은 「어두움의 백색(白)」
이다. 그들의 사람으로서, 그가 소속한
부대에 속하여서는 물론, 대차 부대를 계
획할 권한은 없다. 만약 제한된 자원을
시킬 경우에는 사정관은 정확히 참모이
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

일선에 참모를 파견할 경우에는

(1) 실정을 확인시켜지 위한 경우

(2) 필수업무를 출제 무관 경우

(3) 상황의 여러 면부의 지휘권을
부일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정관과
참모장은 과연 참모에게 일부의 권한을

명확히 해 주고, 현실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참모는 명령을 집행에 옮기는 조
치를 신속 정확하게 하고 그의 일련적
의 결단상황을 확인한다.

바. 참모는 작과의 문경업무에 집중하
여야 한다. 즉:

(1) 계획 명령의 지원

(2) 그의 보고

(3) 정보, 통신전파, 보급, 급급,
위생 등 자량이 많지 않은 생활을 정확 선
속하게 처리하고 이로서 중의 결정을 완
성시켜 거동력을 불경첩히 발휘할 수 없
도록 하여야 한다.

4. 참모의 자세

가. 참모부는 스스로의 정령제의 원리
(중앙, 조화, 통일)를 구현함에 있어 국
(조직적)의 모범이어야 한다. 군대를 가
지고 임할정부를 단리하는 참모들을 과
합적의 음기적인 결격과 되도록 할 책임
은 참모장에게 있으나, 각 참모의 중대
한 책임이기도 하다.

물론 사정관에게도 책임이 있다. 사정
관과 참모장은 스스로 지역(地域)을 전
이하여 중앙(中央)은 국외서키드루 할과
아울러, 참모를 강화하고 일방 막으로
흔드하여 고도할 필요가 있다. 국인하게
자기구의 합리적 무논지 맞추는 일과,

○어떤 참모론○

복주부위를 비롯한 참모 통솔은 궁극적 목적이다 한다. 그러하도 인부단결된 중국적 참모부의 능력을 활용 시켜야 한다.

사절된 때부터 참모의 견설자상과 활동 열성이 열적되어야 한다.

외전으로서의 역할은 참모에게 최대의 숙직과, 항상 본분이라는 견지를 무결 시켜야 한다. 특정한 상황이나 사구의 조건에 따른 절충적으로 인의 임무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주도행성이 솔직하고 단단한 견해가 열적되인 성격을 가진 참모와 주동이 같하고 본모를 재가할 필요가 있다.

참모일부의 능률적 복귀를 위하여 높은 견지를 가지는 계급에 있는 자들은 가장 중요한 행성하여야 한다. 정보나 우방의 담당자가 혹은 본위로 일각하여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각각의 정정인 임장자적의 요건은 단단하고 견결하여야 한다. 명사도 있어야 하지만 열성을 광학하는 자가 참모로서는 두루하여 다른 사절이 그의 의견을 아르게 하는 것같이 이르러서는 참모의 타락이라고 하였다.

나. 참모로서의 역할

일부일 특히 통수들의 참모로서의 역할의 의사(意事)와는 무결할 다르다. 첫째로, 참모로서의서는 사절이 조출

적 부하 열적하는 상황적 용역이 조직적 과 수를 능치지 않고 행동하기 위한 참모의 견설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결한 기간에 절한 의 열적할 무방하거나 후회의 어수속할 것이 아니다.

둘째로, 참모로서의서는 다수결의 결자와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는 정승과 장으로 한 조부를 타면이지만, 정승은 의지에 의하는 결의이고 재단일 것으로 군 조직적의 의수를 결정하고 재보하는 것은 사절할 한 수를 뿐이다.

삼은 경우로서 의수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다. 때 경우 지령지 말할 수 있는 설(讓)에서 특정한 결정에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열적하는데 능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장로의 견설권이 있거나 다 우우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그것은 재전적(當然的)인 것에 불과하고 이의적은 수적들이 의한 다수결의 의자 역사상 적지 않은이 통수는 장수다수다 라는 다수의 장방이 결의 있는 것이므로 재결적의 의결하게하는 너무나 열 열할 것이다.

행동한단의 가지는 계급, 연령, 경력 적인 순서 관계가 있다. 의결은 사절에 대한 적률적일 친구 토의의 장(場)으로서 장수(長官)의 사언이라함과 계급적인 결의를 행수할 수 있는 장소가 아

니다.

인문자의 의전은 결정을 하여야 했지만, 이들은 항상 결정을 자제하고 별다른 일이 주의를 요한다(사람은 자제 자제의 자제를 가지고, 특별한 환경의 일을 결정한게 되는데, 자제의 자제에만 결속 하지 보편성을 말하는 사고양식에 따라 그가 영수다). 정립의 전가는, 제법으로부터 결구하여 몸이 지니게 될 올바른 양본이 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던 정립이 많은 쪽이 우수하다고 하겠으나, 이것도 『실학사』의 황희 말(馬)은 10년전을 대항과 같이 결정리를 뛰어 넘더라도 책을 써다지 끝내 갈 이상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림에게도 이와 근사할 수가 있다.

어느 지역이나 지구의 어떤나 어떤 학위와 정립되어 작업안이 실현되려는 이는 과학의 대한 도덕이며, 정립을 온갖 단위에 보아도 실상은 가장 열등한 문(家)에 되는 것이다.

의미의 모든 정립은 목적(정무) 또는 지능적인 요인과 전체의 상황의 부하에 일치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과학의 전체 도덕이다.

결정방법은 계몽방법으로서, 이것을 일체서린 주제 그로부터 각각 다양하게 궁리된 양상이 도출되어야 한다.

르가 3의 양(案)에 가지는 결정을 지

적하고 그를 주장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의 뜻이 옳고 뛰어난 것이라는 증거를 지니 않는다(201 제1의 양은 논과 다지).

참고점은 의의를 유지하고 명상을 바꾸려하는 사림군의 결심자도로서 지공한다. 의식에 부합함과 참고를 사이에는 물론 도덕이 있을 수 있다.

사림군이 결구하려는 참모양 여하 결정은 자제 자제의 주제를 지나쳐 사림군이 결정한 양본이 자제 사고를 조절하여야 한다.

이런 양본이 먼저 정립 구별하려는 뜻이다. 그러는 과정 하선의 실안일지라도 결원이 먼저 정립하면 물론본안 반적으로 결선의 양상을 통하여 얻는 결과보다 더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참모양 자는 결구된 양본의 이해 측면을 분별 과학하여 그의 단점으로 말미암아 성립 수 있는 수역의 대립한 방법을 미리 순서하여 부위와 한다.

5. 계도와 실간의 문제

문자가 말하려는 것은 한 측면으로는 사실이 목감되 있다는 것이므로 한 것으로 조목이나 조목의 분류라는 사실은 문학과 말권함에 따르는 편력의 소일이다. 그러하여 전체의 그를 구상하는 각 부분에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개발하게 되면 「크라우트릿츠」(兵學)의 저술(技業)을 배워왔다고 해서 별 도움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사실으로 「공소의니」에게 「사학」의 책을 보일 「라플라」부장의 근본적인 결단 조차도 용인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보다도 「적외자 실험」이라는 작은 실험(試驗)을 일부 우장의 많은 학자나 병관들의 호기심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육군부 일부의 중심은 참모부에도 이 참모부 일부의 중심이 작금 부처리는 것은 불연의 사실이었 다. 참모부 밖 의의 부결부 작부(행정적 부준), 작전부 세 회의 정보, 우장 등의 부직은 작과 동일할 것은 작과와 작능이, 잃는 사실 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실험의 발달이 어두웠던 사실이다. 이와 같이 일본 육군은 과학을 미증할 정도로 우의 발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보리건 예식도 전일 통치력은 인텔리라는 특종 주문 결과의 정권은 참모로 도입하는 부 위의 무복한 작사들 작정하였다. 그래서 참모의 권식(肩勳)과 참모의 목적은 더 러한 미술과 종합적 두뇌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작사들 권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군인의 필요는 별로 해리간 말이 아니었는데, 군인이 필요 하였던 사상 소설상의 과오는 「국가의 일 부분으로서의 군의 작위」를 작과 같이 일

이 불수를 모르고 모방하였던 것에 있다.

그러나 일부(戰術)에 그 불수로써 작과의 목적과 작과의 본질을 위함으로 정(正義)이라고 믿는 이를 담당하게 되 전(對戰)하지 않는 것도 중대한 오류이다. 「모모트레」는 군복(軍)에서의 「학급 격화관 두일성의 원칙」을 강조하시. 하 급지휘관으로 그의 소신을 해진할 권 령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구미(歐美)의 군주주의 원칙과 정령도, 원칙의 부응한 승차관 사상으로 직는 비결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실정 국의 현상이 실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언뜻, 국악으로부터 근래 국악 문명의 본질에 근원적인 정모를 가타의 국악 내지 독일, 관계와 국악에 관한 것을 생각하여야 할 시기의 권위라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모의 작사들 권위하는 결술하였거 지와 다시 되풀이하고 넘어가자 할 줄 일 후, 군인의 군사학적 참수가 필자는 지어 참모 군부를 격리되, 되는데, 참 모 군부에는 참수로서의 작권을 인정하 는 요소도 있으나, 그러한 작권을 작과 격리는 요소로 때 많이 작과도 있는 관 경이라는 것으로, 이 점은 작사(戰術)와 실증하는 작과. 이 점의 참모가 작사의 작과 작법과 참모의 보직에 관하여 주 의하여야 할 일문의 있다.

7. 『프로토제』의 인간상(象)

『프로토제』에서는 고승의 유일한 참모 들과는 다른 두 가지의 불리한 조건이 있었다.

첫째로, 그는 본지 「프로제아」 부인이 아니고 보병소위 예자, 「델마크」군에서 「프로제아」군에 들어 왔다고 한다. 그런 식도 「프로제아」와 그의 불행의 재앙의 유래없는 충성을 다 하였다.

둘째로, 소위 영웅 극의 장은 거간을 피하는 강연이 풀을 피는 선(先) 근대 신화를 참모로써 보았다는 것인데 그의 영웅도 작기의 수완 관료주의나 신념을 피하는 격리가 될 일일지였다. 이전처럼 그의 인간상 짓는다는 소이가 있는데, 그의 충고함, 우선행, 진취, 관용, 충실성, 의무감 등의 열렬은 실로 근면한 참모성과 일성을 통하여 잔혹한 역사의 격자에 있었던 것이다.

같은 참모장교 시절의 그는 『손익술』과 『라이프』의 책을 지내고 다녔다. 만년에 자신의 열성적, 자공 열성을 미칠 때므로 그는 『헤르트』, 『정서(聖書)』, 『동해』 『모자』의 『열리엇트』를 중심으로 『크라우』 『리트』의 『결정론』 같은 것은 전문적이 아니라 학자 다음으로 비극적이 되고 있다. 90년 경에는 『외역』과 『정통부두』, 『외역 소피어』를 주로 영웅하고 다음으로 철학

적격을 지녔다.

그가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은 기독교의 교의보다는 그의 정열한 헌신을 설명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종교의 본질은 창조적은 것에 대한 순종과 제자와 제일(第一)이라는 종교적 신 경조(情調)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종과 영웅의술을 가차이 하였다는 것이 그의 순종하고 유언한 부성과 결탁하고 처그리는 마도의 감수, 헌신의 더욱 감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또 『프로토제』의 부처는 유일하고 거침이 없으며, 강연이 강연 극의 종합적 일 것이 없는데, 이것은 그의 강연 생활의 특질로서 나온 귀결이었다.

그는 종합의 원리에 솔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급적의관 독립의 원리를 강조하여 궁극을 종합한 원리있는 수기적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며, 즉 같은 원리로써 그는 군사의 원리에 대한 지위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발언을 할 수 하였다. 그러나 같은 지휘관으로서 본 학제는 『리소말코』의 간섭을 배격하고 만호하게 봉수의 독립을 확보하였다.

그가 「전술이론 제 1책(1876)」의 글 스트(圖1876)라고 한 것은 그 전술사상의 종합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전술은 장졸을 구제하는 술(術)」이라고 한 것은 손자(孫子)의 병법장수(兵形續家)의 종합

속한 수위로 수포성을 다분히 감지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시종와 불교의 노획이다. 「모르토크」의 필화목적은 그도 불교의 교양에도 불구하고 「갈라투사칙」처럼 「결경=부결경」사상을 잊었다. 그럴 뿐만아니 그는 부결경의 불교에서 보자 부결경(附結經) 속에 「계남」의 「다도복승」 교리를 전수시키고 「부리」를 전파시키기도 「산행전」에 의한 개인 리절을 제의하는데 그와같이야만 결코 부결경중의 갈라투사칙의 수신 불교를 전할 일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부결을 수필하고 불교의 수필을 「모르토크」는 「부결경」의 수필적관을 조망하고 있었으므로 「결경은 신의 결경」라고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모르토크」의 목적을 관측할 수 없는 것이다. 영국도, 미국도, 불란스나 그리스라도 「부결경」의 결경적, 또 「결경」의 부결경적 목적의 주요 목적들이 되고자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불교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글 대동령 부인불교

○ 신분이 있는 곳에 이해가 있고, 의지가 있는 곳에 힘이 있다. 우리 함으로써 잘 살아 보겠다는 것은 신념과 우리 보장을 부울하고 불기들은 단절으로 결속화하는 목적은 피마른 황드불, 불금의 욕도로 바꾸고, 힘 있는 신자를 지음할 수월으로 만들어 지립자존하는 민족중간의 길을 빌드하 열의 불교에 할 것이다.

○ 지금 우리에게는 활동하는 동촌계도자 함다을 불교의 아들이고 무엇보다도 아들이 것이다. 선행했고 용기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한 성직의 동촌의 귀족과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할 것이다.

○ 한글의 뜻은 평남은 동행과 아네고 동촌의 삶이나 불이여 할 한다.

지휘에 대한 나의 주장

— 나의 지휘관론 —

『버나드·로·몽고메리』

솔 사 수 <역>

★ 이 글은 몽고메리장군의 저서 "The Memoirs ★
★ of Field Marshal Montgomery"의 제6장을 ★
★ 옮긴 것이다. ★

사건(野戰)에서 내부적인 계획할 능력
(주: 몽고메리의 경험을 위해 1942년 9월 그는 영국 제8군사령관의 임명장이 특약(特約)으로 임명되었다.)을 갖고 가는 임지로 향했다. 다년간에 걸친 근대생활의 경험을 이제 순전장에서 서휘관 보려고 전심하였다. 여기서 기술하는 나의 주장은 내가 육군대학에서 주임교관으로 근무했던 1934년과, 독정에서 교관할 지휘관이, 지휘와 통솔에 대한 이 전자는 독자 성공을 위한 가장 큰 요소였다.

지휘에 관한 나의 견해를 요약하면 통솔(Leadership)에 집중된다. 『프루덴』에서는 그의 회고록에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끔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로 기술하고 있다.

중국어 낱말 나의 정의를 말하면 『중국어 목적은 양의 형식은 결정시키는 능력과 의지력이다, 또한 부하에게 신성을 고무하는 지력이다.』라고 하였다.

말은 더 고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계획받은 그 능력을 나타내 행하여야만 한다.

또한 그 통솔이, 모험과 아찔한 야망을 두어, 목적에는 전념이 있고 자질은 적지력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결론하는 전설이 요구되며, 지휘관은 부하에게 전념을 말려야 한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부하는 그것은 금전적

그 글자를 다듬었우. 전부의 일체 제법
 관은 의외의 작은 격조랄 것같아도
 부족한다. 전부 속스런 일체 경의 근과
 된 중흥(중흥)가 되는 중요한 작품을 작부
 (宗通)를 지우고, 전부의는 밑도 천황이
 없는 일의 용도. 부모들의 지관자 관복
 고한 대장(大藏)을 믿어 버리게 있다. 세
 부의 일은 한모의 의무이다. 여덟 지필
 편식하고, 언장할 언장할함이 꽃겨 조용
 한 사색의 색감을 갖지 못하면 우수한
 직전제법의 수필을 할 수 없으며, 가끔
 도작권을 승복적으로 수필할 수도 없다.

지휘관은 그가 당원한 전부의 대체적
 기본적도를 작성해야 하며, 통솔안으로
 이 두 가지의 결부를 성취하고 계획할 필
 요가 있다. 하나는 전두와의 위한 것이며
 또 하나는 다음의 것. 즉 전 전부의 성공
 은 갖지 전부의 도와이과 도도록 하는 일
 이다. 그래서 나의 명동제 작은 목의 반
 몸을 해동하고, 나의 계획수행에 지장을
 쓰지할 지목 제일은 방과라기 될로 변수
 다 대응수필을 갖추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제와 일치에 부수되는 많은 요소
 가운데서 중요한 사항을 우선(優先)하는
 능력을 가질수 응시적 정석한 관직력을
 가려야 한다. 이걸 일을 할 수 없기 쉬워
 서 계획관은 결정을 정확히, 되도록 불
 영, 과도한 응수, 한일 응수 업적로 미
 려야 한다.

직전제법은 항상 지휘관 자신의 작별
 적자 지필, 불모라 그 목의 편향의다 목
 서 의외의 강요를지키는 안 된다. 자
 관학의 방식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전술
 적 가능성과 별차원 도구와의 사색의 연
 관성을 검토해야 한다. 계획의 조장이
 작성되면 작전을 전체적으로 앞서 다는
 부족함이 되어져야 하며, 이것은 한모의
 한 일이다. 이 말에이해 지휘관은 매우
 세 육서 숙고한 직관을 자백야 한다. 많
 은 사스한 일의 참모들의 무의와 줄로,
 지본제법의 근원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
 도록 확인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할 수
 못기 위해서는 좋은 참모장의 필요하다.
 같은 일부수행서 적합하도우 근원있는
 편성여 의의 있어야 한다. 전부와 직자
 도가 결의 좋은 결성적 부위를 만드는
 지당, 선택하는 전술적 상황에 적응하며
 계획성을 능동적 하는 지출은, 통수의
 적, 부를 인정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지
 휘관은 자언계획을 작성하는 일변 응수
 에 숙달되어야 하며, 일단 그것은 작성
 한 다음에는 직전제수행기 위해, 엄격하
 고 실행할 지를 계획을 우선해서 성공을
 향의 중행해야 한다.

간사정관은 전부의 운영자 결에 마
 때로 여러급 지휘관과져 결합시켜, 중요
 사항, 자기의 의도, 그 계획과 결관
 적인 실서요법 등은 결정적 주이적, 통



- 피의 상통의 생명체를 유지하는 것처럼 숭고함--□
- 전우애는 군대사회의 기본적 윤리를 형성하고 있--□
- 는 요소가 된다. 전우의 기쁨이나 슬픔을 자신의--□
- 것으로 소화할 수 있고, 전우가 다하지 못한 일--□
- 무를 자진해서 완수하는 정신지체는 연립나 숭고--□
- 한 전우애에 기초를 두고 생성하는 고결한 사생--□
- 관의 발로이다. -----□

- 전우애와 우정의 참뜻
- 숭고한 전우애
- 전우애는 군 전력 강화의 원천
- 상경하에 인화단결론

는 열성일대의 무일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우정은 곧 권정리 역시 그리고 같은 관념에서 한 사람의 팔을 같이 하는 불변지 아니라 인간의 생과 사(生)를 같이 같이 걸어놓은 전우적간의 최상에서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견고하고 투여의 극치라 하겠읍니다.

생과 사(生과 死)를 같이 걸어놓은 같은 은명의 다물물지 같은 끈끈과 같은 서광속에서 「너」와 「나」의 구별을 할 수 없으리만큼 신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결속되어 있을 때 비록 투여(投與) 미나 조건이 따르더라도 그리고 불분명으로 가질 것이 없다 순리더라도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이 큰 희생물 같은 사별이나 무름없이 행복스러운 결별은 갖 볼 수 있고, 투여의 슬프고 어두운 일을 당해도 되겠지 아내 학대 없었음에도 용서롭게 나오게 마련이라는 것을 직격히 알 수 있습니다.

전우적일 때로는 여가 자신보다도 더 앞세울 수 있는 격구적 도상할 인공성을 발휘하게도 합니다.

꼭대기 저가 못되더라도 전우를 제트기 쫓겨 귀해서 전우를 먼저 적이 되고 여가 조금 더 따르더라도 전우를 덜 아껴 살리던 일종의 죄악적의 드리게 되는 것까지 이르러 갑니다.

이제서는 적시하게 도덕적으로나 안도주의로나 남을 위해 저가 희생한다는 식의 필요나 용화조로 활약하 권리가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viel 도덕적인 열음심 없이 그대로 논지나루 나는 것입니다.

그 능이 못마땅해도 좋습니다. 또 그 능이 빠른 만큼이 많고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것이 묻혀서 어둡니다. 통치라는 것때까지요하는 파적 자각 자신의 신적의 행위결해서 용은 하필적로 그 전우를 위해 다음이 투여와 수혜를 받는 것입니다.

전우 사이에서 투여적하는 우정은 결코 같은 눈 나쁜 눈, 같은 행동 나쁜 행동은 자각대기 때문에 따지고 같은 전우라 나쁜 전우를 양가적심(兩相心)을 하는 생의 신적과정은 필적적 의무적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의 등산자가 그 위험한 높은 산을 에 오침은 하필적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기도하고 결혼을 볼을 더 그의 의거 그 신에 몇기 새둥이 나는 불확실하고 예상하듯이 전우에는 여가 전우자 그와 몇기 때문에 나는 그를 따지고 사랑하고 무슬에 주권을 받을 때로 그를 나의 전우로 사랑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우적의 운명이라 하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 가지 생각하지 않으면 한 필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것은 다른 이의 모든 권리와 다원에서 말할 것들은 권우예를 꼭 지켜 묻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순수한 권우예가 그렇지 못하리 못할까요.

마치 우리가 슬피고 슬퍼하는 우리 환경은 물리할 대지(大氣)가 공대(空臺)로 말미암아 오심(汚穢)되어 있듯이 많은 권우예들이 정실적으로 정덕적으로 오염되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부터 권우를 자의 사귀지라. 우의할 친구를 찾아서 우예를 가져야 한다. 다른 친구를 사귀면 잘못되리라. 안 될다지나. 잘못을 보면 먼저 의 불우의 하라니 할로 물 속은 알 수 있듯도 볼로 눈에 있는 사람의 속은 모른다거나. 할보다 먼저 그 자질을 생각하라든지. 뛰어들니 뛰고 나무더 솔고르야아 하지 말노나무가 등등의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말들은 사람의 전신을 자주 오염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야 보통 어떤 오염된 사람들은 억울적우의 누가 정말 좋은 친구로 누가 정말 해로운 친구가들 구별하여도 의심하는 눈초리를 두리면저르다가 일생을 다 허송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누구나 실

(註)의 말이 있는 것일테 그 따적각 단 제이적각저 잘마군 친구도 있고 할다른 우예와 우예를 맛모져 못마로 취하의 의 불고 그독한 불승하고 가관한 형간으로 제물의 경승할어 생각은 비나. 하는 것일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두세는 것이 보통. 죽음의 공포와 불행이와 고를 하지만 사람은 이 죽음의 공포와 불행보다 더욱 괴등고 무섭고 혼술하고 미할할 것은 아무라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아무라도 사랑을 노력모져 못하마 누구도 사랑하 주지 않은 지과 그독(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이 이렇게 문명의 이기가 만달하고 사람의 사는 양식이 권리하여 후지적으로나 갑주적으로 그렇게 착락을 증진 수 있도록 많은 순간할 법이 수없이 많은 현실 후의서드 원은이 다 높은지나 낮은 이자자를 먹돈하고 계술(口腹)하는 수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지 않은지라.

이런 현상은 군생의 이기와 및 발달한 후진성을 한 나라적적모라도 모든 것이, 앞서게 더 많이 발달한 소위 선진국이 경제적로나 정제적로나 사회적으로 더 안정되고, 복지사상이 더 잘 되어있고, 경제수준도 더 높아져 생활 정드가 높은 나라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자살

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어떤 수
정무지(玄體不在) 수체무지(玄用不在)
현상적이지 않는 것이요 하였을지다.

그즉이오랄코 현상의 특질 속의 본질이
고 가장 무식한 것 속의 부식은 것이라
는 것을 잘 증명해주는 것이 보상의 정신
적 요인을 받은 현상사회의 현상지라 하
셨을지다.

슬쩍이 말해서 인간은 도덕적 체 속
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첨부터 시작하여 뒤지
않고 활동을 하여 무엇을 만들고 정감
을 바로 이렇게 살다라.

어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지요. 물론
한두 가지 우리 행동의 직접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적없는 행동이 어디 있었을지라. 딱
이 위의 산대만과. 살기 위한 먹는다든
가 이거기 위해 활동하는가.

그러나 그 직접적인 목적의 달성은 또
무엇 때문에 할지라라고 묻소할 그 문수
은 원해서 우리 행동의 목적을 추구할 동
력이라 합니다.

주 목적의 추적이 행어우 라고 그 목
적의 또 목적은 뭐냐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상구적인 목적은 무엇이요 묻
지 되겠지요.

을 원리의 목적달성은 모르나. 궁극적

인 우리 행동의 목적은 「행복」이라 뒤지
지라할 아라 「근기다」라고 할 것이라하
면대할 사람은 있을 줄 압니다.

그즉 그 정복은 궁극적으로 있어오고
볼을 수 있었지요.

그 정복은 대가 수근자를 아누 어긋의
입에이게 갖고 갈수하게 사람간 수 있고
또 그과 다른 순유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정한 사랑어 가진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해서 단락할 수인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어두 부노의 대한 사
람도 있고 부노가 자식하 내한 사랑도
있으며, 이질간의 사랑도 있었고 동고의
일 간의 대한 사랑도 있었지요.

그즉이 이런 모든 사랑어부도 다 행을
어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원구
장적 불행한 원수이다 하였을지다. 특별
할 모르는 우정자 「의의」 사랑은 사람
을 친구를 용기있는 사랑으로 만들고 무
체를 것이 없지 라고 세상의 우정의 원동
충분함을 주면서 더욱 갈수록 깊은 살기
는 목적이나 의목적 없게 하는 수결의 사랑
입니다.

그즉이 또 더 중요한 것은 몸과수 수결
의 사랑은 무(無)목적 유(有)를 창조하
라는 행복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특별
을 의지 행적 없이 행복을 증명하면서
할 수 있고 슬프고 괴로운 죄도 없을지다

유익이 될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의 여유를 주는 것이야 말로써 세상에 무결치 않는 의무감과 자존심도 후결의 타락이 되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종교신앙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농담으로도 내 친구들이 사는 곳이라던 나는 천장을 내리고 지옥으로도 친구들에게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철지철주 간구」는 우리의 억울한 감정을 과장된 표현이 결코 다 나쁘고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사람 우리 친구들의 우정과 우애의 사랑은 마치 어떤 모양의 것일까요?

또는 경우에는 어떤 모양의 것일까. 어떤 것이 궁극한 줄 압니까.

나는 경우에는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일모르스리」와 「년 아년」이 주어졌던 「와이트 크리스마스」라는 매우 영화가 생각에 남습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을 때 절경에서라도 경우의 형이 떨어져 버려도 눈겨울이 없다고 거함은 받아가면 친구들이 노릇을 하던 친구들 전경이 놀던 부어도 한 말을 같이 한 쌍들이들오라도 내 친결과 지 사랑되는 마음은 나누어 신정결은 미담 미로써 장막하고 영혼을 사로잡을

속삭여 되려한 부대장을 위해 모든 사랑은 영혼한 장막으로 들을마의 출렁거 하고 그 주위의 모든 수회선외어를 침략하고 여섯한 인간 사회로 반복적인 예정말 「결부제」란 제정제도 모자를 갖긴 자들 그 영혼을 보는 사랑으로 하여금 갖게 한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써 할 친구와 할 친구가 걸은 우정과 우애의 사랑을 갖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할 친구가 할 친구를 사랑하게 되는 제기와 모습도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그것이 어떤 모양의 것이든 사랑에 따라 다 다르고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 다르며 경우에 따라 그 성격과 약과 다른 것입니다.

결코 하나가 그대로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나 형식이 관에 하듯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줄이도 낼 수 없으며 모양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양만하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 하나의 구체적인 우정과 우애의 사랑이 있을뿐이요 어떤 한 정결을 할 사랑에 자기의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가지나물대로 부엌과 우물은 내가 경험
해 보더니 이리더 더러워지고 자기 두
척이나 자기 꼬매남이 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런 세상의 두둑과 그택을 여러사람
들이 알할 때 그것을 일가다 보편의 또
자기 자신은 무엇인가 자기자신의 경험
과 현실에서 자기나물대로의 어떤 진
리를 벗어날당이 된 느끼지 된 것이다.

그러한 다음에는 지금까지 나타난 등
세상의 유명한 문필자거나 예술자나 필
학자를 엮음같이 작자가 경험하고 느낀
결과로써 되던 우정의 우체의 형상(寫
眞)들은 음미(吟味)의 모티브라고 하고 음미
장르 하여금 자신의 전수업을 작성하고
해관권화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명백해오므로 합시다.

우선 문양의 뛰어난 실존철학자라고
명할 수 있는 장자(莊子)는 우정(友誼)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자(鯀子)의 친구사립이란 말(說
白)하기를 깨끗하고 맑은 물과 같이 소
인(小人)의 친구사립이란 말(說黑)하기를
외의 것 같다. 근자는 깨끗한 것을 자기로
실현해지려, 소인은 말뚱하기 때문에 말
나고 한다.」

그는 또 친구를 지키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쳐했습니다.

「예루를 자기로 사람을 논하려 하지

말라, 음모를 해라 자같은 시기에 헛겨
말라, 다음으로만 사람을 꼭해하려 하
지 말라.」

그리고 우정과 관 여는 유명한 공자
(孔子)에서는

「물어 너무 많은 문고제가 너무되지
않듯이, 사람이 너무 무엇때나 지나치게
다치고 든면 사람의 원근의결 수 없게
사람이 것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습
니다.

그리고 사계(說記)를 쓴 사마천(司馬
遷)은 그의 책 금장열전(談錄列傳)에서
말하기를

「사람이란 일기일결(一死一作) 속에
서, 그리고 일기일부(一死一歸)의 변천
속에서, 그리고 일기일결(一死一歸) 속
에서 비로소 장된 우정의 특성을 알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동백늘」은 그의 스승들 속에서 「실각
전에 자연계가 우리 일기일결지 자장 중요
하게 현출한 것은 바로 화중(和衷)라는
것인데 이 화합의 극의말말도 우체(友
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연한 세상의 도대 철학자이며 지중
자면 「지기도」는 「우정에 대해서」라는
그의 책 속에서

「도대의 우의 일생으로부터 우정(友
誼)은 세상이 같다면 이것은 마치 태양
을 이 세상에선부터 세상이가는 것과 다

특집: 권 우 역

관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말하기를

「권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활 속의 일부가 뿌리박은 것으로서 그 우경 없는 아무데도 이 생활은 살아나갈 수 없는 데까지 못하도록 한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폴리암 오울러」의 말을 들어 보면

「권문의 생활 속에서 가장 수월하게 적응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본질점이 있는 우경이라는 선분이야.」

이전에는 불란서의 유명한 소설가이며 사상가이기도 하고 「장·코르스도프」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문학상을 탄 「프랑 모방」이 그 글 「1월 14일」에서 우경에 대한 의견을 밝혀 보기도 합니다.

「방언(商人)과 일족(一屬)과 되는 지층, 권위와 같이 수당하는 지층, 민중과 더불어 피조하려는 지층은, 우여들은 누구나 다 같이 세로 손에 손을 굳게 잡는다. 우경(友情)의 우은 수는 힘(力)을 단단히 한다.

그리고 불란서의 일대 소설가이며 사

자적으로 알려진 평론가라고 「영국자」를 썼고 「세상의 동트」라는 소설도 알려진 「장드레 모르야」는 말하기를

「권문이라는 제도도 있는 「권문으로 면제와 뿌리박겨 계속되는 것은 풍조와 우경과 불꽃이며 우리 속에서 우경과 있는 우경도 일종의 질문제도처럼 우리 자신들이 뿌리박겨 계속되는 것이야 한다.」

「그리고 유능은 신의(信賴)와 사상(思想)과 우경과 보정의 공동체(共同體)를 거쳐(前奏)도 한다.」

금으로 이전에는 「서경(瑞鏡)의 서경(詩人)에 「요한·가스파루·라카인」의 우경론(友情論)을 소개하고 이 말을 쓰리라 합니다.

아무르록 작자가 저기의 우경론을 한 번 읽어 보기도 바랍니다.

「우경(友情)과 사랑의 질의(信賴) 그 것들은 우경을 존중하도록 하는 보편(普遍)이다.

권문(權門)과 지체와 용기와 열의(烈義)와 그리고 우경 밖도 이것들이 본 우경인 것이다.

X

X

X

승고한 전우애



공공 근증장

이 성 환

모든 도덕적 견사 중의 가장 높고 가장 귀중한 것은 더 낫고 더 아름답고 더 정당한 것 없이 수감이다.

특별히 세간 중의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더 낫고 더 아름답다.

행복은 자라와 마차 및 은 인공에 제 조력과 동경과 만족과 희망과 의욕을 주는 것이고.

행복은 인공적 덕성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것과 함께 행하여지는 감정상태라 할 수 있다.

그것과 보통 사상을 구분한다면 선적인 주장과 인본적인 사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의 신약원문은 의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사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① 아가페(Agape) 신적인 사랑

② 스토이(Stoic) 별통적 사랑

③ 에로스(Eros) 전우 및 동지적 사랑

④ 에로스(Eros) 이성적인 사랑

동적인 무자비나 스토이시나 에로스는 다 이성적이지 않지만 에로스만은 이성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다. 플라톤의 에가거 사랑 가운데 전우애는 에로스(Eros)에 속하는 사랑이라 하였다.

승고한 전우애를 논하기에 앞서 플라톤(Platon BC 427~347)의 에로스론과 선의 사랑과 일종의 사랑의 대표적인 것을 먼저 논술하고 에로스 전우애에 대하여 논술하게 한다.

1. 플라톤의 에로스 론

소크라테스(Socrates BC 469~399)는 성명중 여러 선제 자취를 사상이 있는 데 그의 제자 플라톤의 전우애적 성향에 걸로피투(Symposium)이란 사상을 밝히던 책에 있다. 걸로피투는 학자론이라는 문예가의 걸로피투 걸로피투 성향 등을 추구하여 도인 영혼을 의미한 것이다. 그 해몽은 즉 육체의 걸로피투와

란이 나타나서 생긴 것이었다.

옛 시상으로 볼 때 두루스(Phaedrus)는 에로스를 최고의권(最高權)의 신이라 찬미하였으나 파루쿠리아스(Pausanias)는 에로스를 분석하여 속의(속의, Damos) 에로스와 천적(天敵, Ourenia) 에로스와 엮음을 지적하면서 속적인 사람은 남녀 양성간의 권력하는 속의로 천의를 불복하다 천적인 사람은 필적적 순수무할한 영혼의 즐거움이라 고 하였다.

에릭시마키스(Eryximachus)는 에로스는 절정의 권력의 있어서 우주를 필한 조화하여 인류를 절제의 경계로 신제 조동열라차지 하는 것이라고 찬미하였다.

아리스토파라크스(Aristophanes)는 에로스는 속의, 혹은 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이 모순이 전혀 없는 본연 질의의 신적적 욕구인자 인류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자라고 찬미하였다.

아카톤(Agathon)은 에로스를 철학 같은 연스 더므로의 실스르 정의 존재, 용감, 사해 등 여러 지적 역을 구비한 문도의 지스자라고 찬미하였다.

그 후에 소크라티스는 마지막모로 에로스를 찬송하였는데 그 경우만 소개하고자 한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

가 있으므로 사랑은 재물을 자적으로 갖게서 그 사랑하는 것을 항상 욕구하는 것이다. 그 재물을 자기의 앞대 소유하지 못할 증거된 것이다. 이미 소유할 것을 사랑하는 것은 아직 소유하지 못한 증거일 증거에도 그것을 유실하지 아니하고 정구의 모본하게 필한 필적은 필적 소유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욕구하는 재물은 아름다움(Kallos)이다. 사랑의 대상은 아름다움인데 그리고 본즉 사랑 자체는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되하였다. 사랑은 결코 결심(眞善美)도 아니요 또한 우박적거나 거지도 아니고, 자라지 미화수(鏡), 선과 악, 질과 위(善)의 중간에 거적한 것이다. 사랑이 결심미를 소유하게 못한 이상 결심(眞善美)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사랑은 죽을 수 무에 없는 영원도 아니다. 사랑이란 자라지 질과 영생의 중립적 있어서 양자를 필합하게 하는 완공 영(靈; Demos)이다.

우물적인 전설에 의하면 아프로디타(Aphrodite) (Venus) 사랑과 기의 여신의 필적을 추구하는 여의서 프로스(Phros)(에로스의 아버지) 즉 무음(眞善美)라는 신이 동지하였다고 흔히 만립해라 에로스의 정선에서 함어 듣고 말았다. 에리칠 페니아(Penia) 즉 빈곤

는 곳과 사랑이 나누는 것이다. 자의 살피던 사랑은 일면으로 자기를 선행(濟濟)하고 타면으로 자기를 제한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표현되었다(요일 4:19).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은 참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되는 공의와 선결과 능력과 조화가 중단되었고, 피조된 인구는 자기의 책임이 아닐 당장 죄악에 침몰하여 자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중단하고 능력이 있는 공의와 선결과 능력이 있는 사랑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거물이 감하여 생명의 위험한 자를 보고도 무심하게 지나고 매는 수련노릇처럼 서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 것 같으면 과거를 어느 의미에서 견정하고 포섭하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곧 자기의 포섭이 실패이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실현을 위하여 고르든 두 방법으로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로 곧 구속의 사랑은 사람으로서의 자기 실현을 위하여 필수로 실현하여 개인 인성이 속인이 되게 인성으로 타락한 것이요(요 1:14) 하나님

의 자기 희생은 모코스의 희생(龍身)인 예수님과의 실존적이 속으실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포섭이 실패이다(요일 4:9-12). 또 열두사도의 한 무원한 동행이든 은하면 것이다. 온전자에게 생명을 주어 멸망하지 아니 하게 하는 것이다(로 3:16-18).

세로스의 사랑이 예를 추구하는 자들은 생명이신 것은 오직 거부 수부에서 한 자승하다. 사랑이신 생명의 육구인 것이다. 생명을 추구하는 것은 불멸 곧 아카나토스(Akhatos)를 육구하는 자이다. 육구 곧 소마(Soma)로 불멸하려는 육구는 육체적 이를 추구하는 남이다. 사랑으로 불멸하려 자비를 상실하여 영혼의 영속을 수월하지 하는 것처럼 영혼, 곧 두체제(Psyche)가 불멸하려는 육구는 영의 미 육 실을 추구하는 성의도 말며말며 세로스 불멸 수 영생을 얻는 것이다.

(3) 스톨게(Stolge) 원동적 사랑

철학적 사랑과 두 가지 권정적일 것으로 부모와 자부간의 권정의 사랑(교정애)과 부부의 수궁을 제도 들 수 있을 것이다. 권정의 사랑이란 부모의 권정 원정의 영적 타아하는 사랑이라든 부부의 사랑이란 제자의 권정한해서 세로게

파리는 사랑할 것이다.

원자의 사랑이 다자라는 자녀를 부모가 뒤따라 가는 것이라면 부부의 사랑이란 지극히 평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자의 사랑이라는 양쪽이, 또는 힘이 있는 부부에게 더 강력하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빠뜨리는 것자의 사랑보다는 편익성이 약한 질 수도 있는 제 사정이다. 의외라면 부부의 결합은 두 사람 상호의 사랑에 특별한 원인의 제거나 원자의 편익성은 생각속보다 수월한 것일까. 원익적(和協的)인 사랑이 공평이 되기 때문이다.

부부에게 관할 의무의 완전을 소극하고자 한다.

옛날에 정권부부가 있어서 가족은 두 사람씩 못되니까 정권 중의 지적인 중층으로 남편의 수중에 있었다. 중층중에서도 나를 직감에 있는 상부이었다. 제각과 같이 죽지도 아니 하고 오롯이를 모심하고 자산을 쌓으며 지낼 명이었다. 그 부인이 혼자서 남편 딸 집도 다그금과 반해서 태우고 상하인질 등을 온갖 수고로 하여서 동에서 원익하여 주고 있었다. 불행은 아무도 부인의 신이 가적 들어오거나 출방을 주어 오거나 하여야 되었다. 몇 해를 그러다가 하루는 아무리 태도 먹을 양식을 준비할 수가 없었다. 어쩔줄이 가서 사정을 하되 돈을

빌려보려 하였으나 그것도 단 되고 할을 부고자 하였으나 그것도 못하였다. 그래서 정계 중자와 딸자루를 떨어뜨려 죽은 부남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마음을 먹고 결심하기를 이젠 자지고 죽이나 후식이 남았는지 다지작 드리고 이젠 의 정익을 살지 않고 나가겠다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막히 때 의을을 살아오면 정익에 그 말을 하지 하라는 말을 수가 없어서 좋은 말이었다. 그 말을 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말하면 「당신의 다가는 것이 다해는 본래의 법이다. 비그리고 하니 할 3일 혹은 4일간 비고 못하고 금으로 죽고 말았으며 죽으면 그 편이거든 그러나 당신이 만일 나를 버리고 나가면 그런 부련한 손을 있는 여자과 말한 자음이 없고 또 양심의 괴로와 정익이 할 수가 없으니 일생 동안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러하는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의적 결심한 원자가 슬그머니 나가도 말았다고 생각하였다.

그 부인의 후술이 다자씩 그 법은 되고 있었다. 얼마 안 되는 불조지말 마음이 슬픈한 정익에 몇 달 동안을 병구했다. 그런데 조카형(守賢)이 와서 그 말을 듣고 자고 또 조카 형과 딸이 와서 할 말을 듣고 가는 것이었다. 자기가 죽지 않게 하고 할고 하는 것이 이상원서 그 조카형이 하는 곳으로 아라자

모양과, 부각과 볼록 다른 조차법이 쓰였었다. 그들은 팔기는 한참이나 다닐 수 있는 능이였다. 우둔 소량씩 자그마한 조각들을 들것은이 그 열의 뜻을 볼 때 극할 도가했다. 그 뜻은 조리를 바르겠던 것이다. 그렇게 다른 조차법이 목을 것을 만들어가 먹이는 것이였다. 그 다리는 먹이고 수인할 권의, 높은 것 지니면들 그동안 드물게 불어두고 먹이서 바르되 잘하였는 것이였다. 답을 지 푸기 남편의 또는 수승에게 투숙한 것이 들림하였다. 저런 비물드 죽지 피 남편을 위하여 저럴듯이 피생을 피는의 나는 어떤 편으로 피어다수 받은 남편을 때리고 팔아날 생각을 하였으나 이 말 조차한 것이 서지 잊는다고 회자하였다. 그리고 팔려 남편한테 가서 들면서 작복하였다. 그 후에 그 남편은 그 아리시게 이제는 자음들에게 나가라고 하였었다. 전에는 가슴이 나쁘니와 나가게 할라고 하였지만 이제는 좋은 마음을 얻었으니 나가드 갈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부인은 나설리가 없었다. 못할 일이라도 짐을 하여서 그 남편을 궁지하였다. 그 뒤에 그 남편의 병도 날려다 나가게 쓰리지 아니 하에 유절하여 갔다. 그 부인은 재물을 남그 아리다운 가정을 이루워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했다.

(4) 숭고한 권우태(권포스 Philos)

필포스의 사람은 조차이라 할 수 없다. 조차하는 모성처럼 같이 안수한 것이다.

무슨 의욕과 조견이 있는 것이다. 안쪽 속함처럼 한국을 사랑하는 것은 의욕과 미고하게 보다 관용하거나 조차 투옥하거나 투수리라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존중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극제가 될설되려면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하는지 등. 민족 혹은 여러 권력이 한 지의 지에서 한 편들과 제도 및 이의 그 나라의 영토에 뛰우 한지 살아 가는 것이 국가요, 또한 국민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슬명과 그 국민의 운영은 항상 책임과 있으므로 그 나라의 부강 성세에 대한일 국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이나 우리 나라는 예대 헬루이 아닌 민선 민중 한 편들의 순수성을 지니고 있고 현아조부도 만일 민적의 단편 골과, 단편 권통과 경구한 역사를 지내고 있다. 우리는 잊음이 서로 협력하여 해로운 몸조요, 절제요, 부모요, 친척이요, 어러 모로 산피모라도 조차라 할 부의 정이 으자는 한 덕성이요 보일 수

어디를 가든지 궁극적으로 신실하게 행하고 권력권을 스스로 쥘 작정이 없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분타를 주고 부하를 극렬히 사랑하였다. BC 335년에 대왕은 동방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양 진영을 떠났다. 마침 100명의 레크시아 이단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전쟁을 할 때 그의 군사들은 수적으로 열세일 뿐 아니라 사실 물이 없어서 죽어 타서 전멸 수가 있었다.

전쟁은 결말 불확실히 싸우는 부인에게 있었다. 몽땅스덜턴 대왕은 신의 복이 받혀졌다. 이 자들을 살리고 있던 어떤 승자가 승리를 하였다. 왕도 왼손에 방패와 오른손에 창을 들고 죽진 가까이까지 가서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길러서 돌아오는 길에 포획해 왔으나 대왕에게 물을 사지않자 이 물을 마시고 무기를 거둬와서 죽은사 하고 말을 거는 후 죽어 버렸다. 대왕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대왕이 물을 거시는 것은 내 승리를 위하여 그 물을 마시는 것과 부정이 다르겠느냐면 자 부정은 이 물을 한 방울씩 같이 나누어 보자」라고 사지면서 수절을 베풀어 물을 제사하여 전쟁은 적각 왕의 부덕이었다. 이것을 무결한 전쟁들은 수적 열세이므로 놀라고 굴복해서 항복을 받고 계산을 할하여 불신하여 용감해 복위후 레크시아 세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지휘권을 보자의 자기의 감행하게 내 의 능고 승리를 한 용사도 용감도 장과 거둬와 대왕의 부하장병의 대한 승결과 후덕. 그리고 의로운 행동에 한 데 승전 때의 생각과목을 같이 하는 군인 단과 가 될 수 있었고 금세 탈탈을 이 단을 하는 곳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것이다.

공군 구호

필승의 신념 일당 백

전기연마 1 대 5

전 우 애는 전 력 강 화의 원 천

—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작전을 가능한 것으로 역전시키는 것은 「전우애」의 힘이다. —

〈조선일보 문화부장〉

유 경 환

1.

같이 고상화된 사명감을 흐르름 수 없는. 단나의 편 편 그 열거들은 말할 수 없이 크다. 고상을 이겨낸 보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여구나 영영의식 같이 계보된 것 편우 인 경우에 더 그렇다. 영영생활이 낯드 서 고상스러운 것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고 싶은 자의적인 욕망에 제한되지 않았어 영영생활은 고상스러운 일함으로 받는다. 공통된 세력 속에 같이 생활한 그 조건 때문에 만가들이 열거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근절의 이루어지는 물건 속에서 공통역사, 공통감정이 서로 올 될 때 하나의 공통생활권이 일컫는 것.

『야 이승의 세계……』

이런 슬스러운 발투가 거칠림이 거려 여서 단나 및 편우와 사이로 싸울 수 있는 것이 하고 그 열 조건이다. 열사 복록을 벗었다 지어다드 그 소금되는 감정을 불러가려진 글건의 본원적들을 금할 특별한 주기 무물이 능의식 속에 이런 인우로 편우들이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 그 거 될기만 할 듯한 평통일에서 두박한 것이 호고하는 것이 영영생활이다. 이같은 사해 안에서 그렇다. 영의적주의 광 고등전역는 맞을 수 없는 또 다른 공들 생활함이다. 그의 상고적해자들에서 받 나드 여릴 속이한 정미가 나오기 어렵 을 것이다. 거역하며 있다. 오거 오려만 일때……같이 경도일 거다. 능도로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면 함께의 질은 『이 능의 세계……』라는 표현이 더 잘볼는

말투와 아담적(愛的) 제형으로선 그렇다. 두
의 경우를 살펴볼 때 한 점 신이되간...
난 육군사령으로 6개월의 부대를
했다. 적대인적자 10년치 피억 쓴다. 그
때 육군본부 정문앞길 육군신문 전경속
떨어졌는데(1년 후에 월말) 내가 그 전서
작성 지간제 느린 전수해는 어떤 것들
이었다.

2.

실연과 저술상, 비가 고르케로 본부
중대 지구관으로 올라가다가 문안했수가
행동 앞의 가스통을 쥐고 땀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실연과 문안을 취이 반쪽
달어리외 되고 피근의 눈의 반을 구할
부 한계로써 즉 원 문으로 강일의 필요
를 다져보 보리금의식자를 떨치내보 나
은 그 저술에 몇 글은 가스(카우베르)를
은 한 어진 마으로 만들었다. 피로로 한
일생원이 웃은 피어적서, 한 마이부외 없
었지말고 그 가스통을 잊지 국민화고 이어
적절 저술했다. 끝까지, 육군본부 정문
앞에서 그의 떨지 아니할 의적했지여 위
를 걸음에서 빨리 보이는 것이었다.

같이 전파할 적도 끝났으나 군중 갖의
수르르 일의 중했다. 같이 육군본부로
가면 차점돈도 모두 나와 같이 전음을
받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정문부로 직
행하여 지남 실은 한 응직을 일제 저고

나왔다. 하나나 되왔다. 원정소이서 5을
나 전행적자 전했다. 실연이 아주 근화
하게 왔다.

『뭐야 그런 제 지치고 나가진』

『여무면 관결정리 투걸니다.』

『물론? 바르되로 일제-』

그렇게했다. 한 병자와 저무한 측이서
떨어오면서 큰 소리로 소리쳤다.

『야 투장병, 잘라다가 빨리 갈구오
리인』

이렇게 피서 하는 무사했고 전연스런
게 대꾸하므로 올라가다가 방중수해의
놀을 떨지 수인, 조속하게 그 단계를 하
적 적을 수 있었다. 『무엇까지 몇몇인것
답박에는 전적불만외 출판지럼』은스임
이의원을 다려나 보지 단행은 조속할 것
있지 편이 본격이 없었다.

정문부의 한 병장이 저술의 일거음전
해 끝났게 내 저적함을 사실로 일행해
전제 속문의 신문지로 인한 수해적자 작
전은 이루어졌다.

『야, 이렇게 말고 수를 떨어』

『투장병이 웃는 편 보나 떨리지 참
부? 불행적이 그렇지 떨리우 면 줄
말았거든.』

스물것말려 먹은 육군사령원에 군중조
장에서 술을 즐겼을 떨리우. 내우한 말
피우모에 같이 술집제(?) 군중생활을
즐길 수 있었었던 나의 고백이다.

말길 서로 이렇게 잡아주는 수경(守鏡)이 없었기라곤 그 「각각은 장난」도 불가능함을 짐작하면, 육군본부 정훈장관, 본부장도, 그리고 우리 내무관 등도 모두 불행으로 서서한 일에 끼였을는지도 모른다. 흠뻑악하여 겨우 한 회를 보충출근 하루박박이 재우할까 구로했지(구려나라의 박수와 저의 이런 구로인더이런 연루적의의 평판악사태는, 본말 것이라는 말이 있다. 자음이 통로가 없고 양쪽에 바우를 잡아 놓은 채, 그러나 단우어선 이 지구 직선에 본들을 놓았다 고 이 정석에는 말미직에 있다.)

푸른 저를, 멩기는 말 방에서 바우 등 흐르 느꼈다. 이드날 동호를 세고 넘사 나는 쓰리힐(완전 절망)에 들어 겨우 한 잠은 잠은... 갑자기 소근주 아렸지가 필름리게 시작해 잠을 깬다. 평강이 어떨러 된 것이 들루 뻔했다. 그것도 주 거적으로 그랬다. 일어난다 봤었다. 허편과 잠을 골려야만 했다. 한 번도 귀를 시를 들은 적이 없는 나였기에 잠에 얼척했다. 새벽 3시, 임이 잠이 아르지 시작했다. 그 푸른 저를, 내무관의 임모가 말이 서려 달장단을 치며 동동 굴르는 소리가 나는지 눈앞과 날 일었다. 경소 등이 없던 유근계 전정세명이 한 장의 뒤러나이어다 말 업고 출근부고, 의무실로 가서 앵물일소로 수도유근병

원까지 보태수었다. 궁성에잠임, 숙정 간호장교 안에서 빨리는 바치적령 목양자를 달길 수 밤에 전했다. 허름은 수전이었지만, 그 불모가 보태는 경우(守)는 보태와거 그와를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장이 아니라서 전우(守)가 나타나지 않는다고는 생각해 않는다. 전장이 아닐 곳에서 전우(守)가 다른 표현으로 발명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단지 그 달적이 지랄하지 않다는 것 뿐이리라.

3.

꼭전까지 열전(守)한 중에 나타나는 전우에는 실사 관계가 연결되므로, 각광할 도원(守)로 나타나지만, 문명(守)의 명사 사이에 나타나는 전우에는 은문(守) 표현으로 오고 갈 수 밖에 없다. 여전(守)적의사의 전우(守)는 전우(守)처럼 할까 나타내므로,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다.

전(守)의 말이 광학(守)의 아니라서 상황 속에서 전(守)적의사와 같은 전우(守)가 생필(守)이란 이 힘들다는 말이다. 전우(守)를 결국 명사(守)의 인간(守)적의 승화(守) 표현이다. 그것의 승화(守) 표현으로 나타날 거리가 적은 수록 전우(守)는 확인되거가 어려운 것이다. 워낙(守) 인간(守)적의는 시간(守)에도 떨어지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승화(守) 거리가 잘 안(守)적에 들지

본이다.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는 용기의 단면이다. 용기는 스스로의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주변환경이나 상황이 그 결심을 견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보면 승려나 승려라는 인간관계의 전부는 금박만 붙여놓았을 뿐이지 그것이 승화될 계기를 얻지 못하면 되는 듯해 된다. 또 결부없는 전두위의 선 인간관계와 느슨해져서 쉬는 몸이다. 그래도 영성생활이라는 중독을 영적의 구성원 사이인 인간관계자 그 어느 결부보다도 밀접한 것으로 관계한다. 이것은 전제에 있어서 자취관의 지회보다 중점적의 자취자의 자취의 인이 더 크고 또 어렵고 더 크고 더 미운 할 여지이다. 또 그와 더불어 영우적인 중점적의 있어서 전우에는 절제라고 배우할 수 있겠다. 온근하고 끈기있는 영사관의 우정은 금박하고 승려적인 전두위의 우정보다 더 깊고 행동고 예해운 것. 사자가 영은 친구가 오려 잔다는 속담을 뒷받침 아니다. 작은한 일에 결심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결심을 지니고 있다는 행동이 되는 것 다 같다.

외부적 자극의 의해 이루어지는 감정 상태는 대동적 원인이 많고 이루어지는 감정보다 약하고 짧다. 드미 가는 것은 영공의 선 리라할은 감정이다. 영공의 수

리나오지 될 감정은 우절인 경우 학자랑처럼 인공적인 수도 있고, 또 일방적이어도 으익 같다. 비공통적에서 또는 감정적에 나타나는 경우의 약대로 한 주된 더 높은 영공적자가 아닐까. 나타내지 이러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전우성은 물에 담긴 현운처럼 조금만 보이기 적은이다. 이와 더불어 탐으로(또는 그 식노경 화나로) 단박의 되어 하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영공과 그 수직일 뿐 그 전 전우에있 것이다.

4.

영성생활은 자취자의 다양한 인간관계와 화의 거울이 각각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한 가래도 안해지을—은 저쪽의 거울이다. 영공의 외부적 거울화이다.

부르자 못 가르쳤거나 생활이 단박과 보자라거나 잘못된 인간성도 국가가 요구하는 지중에 맞게 직공시켜 보는 불행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다.

마치 자취자의 눈이 서로 걸려 조약돌이 자결로 되는 지경과 같다. 그러다 그 눈길이 달하는 것은 아니다. 화강암이 수생함으로써 변화하는 아니 한다. 다른 영성생활이라 해도 영공 출신 같이 단박이 단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역의 원정(공의 기준)에 맞는 영공적

예견된 기간 동안 일종이 같이 존재하고 같이 파괴되고 측면적 독립적인 것은 없었지 작용하는 것 뿐이다.

진수군에서는 별수간의 동화(同化)를 그 어떤 계획권도 중요한 수가 없다. 다만 적응을 요구할 수는 있다. 비록 몇몇 일부 적응과정에서 연관관계가 수립되는 것이고 그 연관관계는 차이를 통해 차를 다른 것을 거대한 지평을 열게 되는 것이다. 별정정함을 물결은 외무라고 명사 지경없이 규명하고 난 다음엔, 연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스스로 이관 것이 차라리 이상 정면하다. 이런 별정정함은 차이의 인격을 위한 두자과정이라고 해도 좋다. 우연한 계획도 나타나 되는 명사 차이에 일종은 위한 두자(무형무적)를 하는 것이다고 생각한다면 새로 맺어지는 연관관계를 관습할 수 있는 차이의 장이다. 정진 원구려에게서 빛을 끌어 들이게 하는 걸음을 생각해보자. 화평도 모건도, 계획적 다른 계획들이 장악이 한 공간적 범위 새로운 연관관계가 성립되고 거기서 하나의 기준이 세워질 것이다. 여러의 적응과정을 필요로 하였는가. 그러나 고상스릴다는 차경에게 일종의 외부적 기술화하는 형식조건을 갖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과정은 몇날 며칠은 몇은 뒤 차경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적을 크게 놓고, 적응력을 제법 높고, 진수군이 좋다」는 말을 분석해본다. 말도 별차이없는 헬름으로 풀이할 수면 그 이슬 가는 두자가 또 어디있겠는가.

그러나 누구냐 다 성적을 크게 적응력을 제우로 진수를 얻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수확과 사멸의 차이를 말로 하는 것으로 예는 또 별차이도 없어지지 않게 하는 힘으로만 가능하다. 아무리 일종의 사자위로 성격이 지평에도 관경에는 없애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 관경은 진수해에서만 경계지점 등으로 주고 본다. 진수가 있어서 불이 꺼지듯 관경은 진수해의 관경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이리하고 듣고 아지고 들리는 마음의 흐름이 전기처럼 흘러도, 그것의 음, 향의 비록다른 단점으로 맺어 지는 진수해도, 내마나와 건립되는 것이다. 관경은 결국 견거보다 더 지경과 교류지경만큼 형성한 것이다. 그것은 모로 가는 상적지 있는 때 사라진다. 연립을 결별했다면 관경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상차리인과 들 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5.

문장은 진수군대라고 권리를 놓고 이진 진수군대에서 진수군을 손잡하는 물물은 정파사와 조종사인의 인간관계에

서 과학을 것이다.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엔 특별한 퇴하는 조종기술을 뜻하지 않게 정리수속 생의에 관한 전기도 본 내용을 취지해서 때문이다. 후편서 조종사와 경리사 사이의 상호 신뢰는 전수비록 전체조건에 의거 할 수 없다. 경리사의 전기에 관한을 느낀 조종사가 어떻게 조종기술을 발휘해 급중건이나 지장정호 또는 정중정적, 목적 같은 할 수 있었는가 말이다. 돌아오지 않는 전기기-를 기다리는 작중장의 전기특을 보정어 크로르업 되는 영록나 소설에서 특리는 공간이 아니어도 자을 불완한것을 느낀 수 있다. 또 작중의 두루 또는 것같은출한 조종사의 구출작업을 보이는 조종사나 전극 작중 구호대의 활동도 단순한 임무수행함으로써는 할 되는 말이다. 임무수행을 넘어선 전수비의 발모라고 말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작전을 가능한 것으로 해진시키는 것은 이 전수비의 임무이다. 물건의에 있어서 전수비는 불연지점, 연습비행사의 돌출사으로 일한 비행사모의 속도 한 나다한다. 전수의 유도비행의서부터 동적적목적까지 전수비로 한 조종사를 두사의 보환시키는 장면은 전수비를 음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간에 있어서 비행사그를 구출하는 전수비는 전수비나 이점식을 구할

없이 내두날 수 있다. 공간이 전수의 군대라는 말을 듣는 것은 열려가 이점 전수해가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의 제작성 속에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열려가 전수해의 길바탕이 열린 그 불침계 속에 새 그 불침계를 포함하여 현현정판은 지속가는 편, 위의 과정은 사실어 될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을 팔려다니는 그 노력의 원인이 전수비라고 할 때 생명의 모의함을 늘 두번의수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 의식을 생명을 생정조건다는 강의를 갖지 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생명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6.

말리지 벨리베전에서 작성된 「Lock High」라는 미국 공군연속전문은 공간의 전수비를 잘 보여준 것 무르 하나였다. 「전수비 당하여 작제가 일하는 다하는 의의를 가져고 이-수원정을 그로 것이다.

이행어장 「전수비」에 대한 한결같은 열정적으로 두하 정의를 제위한다. 전수비군 부하라 하해라드 위기에 처한 그를 구해다니는 지휘관의 전수비는 다른 모든 문제거리의 앞어파라게 한다. 그 열정 한 구출과 구출의 길을 인간적으로 정적 행진시키는 노력이 「전수비」작정의 지점

저는 일어난지 않은 것이다.

한 더러운 삼천수의 원장관석의 약화도 보팔도 아닌 수탄에 피상되는 기원이 보드될 것이다. 남그 10년 전의 권우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권우들은 군복을 입은 인간들. 인간은 자연 편이다. 인간은 결코 무용하는 용감 인간관계를 맹렬성을 드림. 인간적 쾌락한 아름답게 가지는 것은 그 자연의 인격을 위한 인간의 투쟁이며 본질이다.

저녁에서 [과] 이후로 해가 []하고 별이

인들듯이 인간 권우가 그와 그 작은 천부적의 은퇴()를 담은 권우라면 그 투쟁은 동성결계의 길과 같은 보복자나 는 것이 아닐까?

권우들은 상상의 신력과 포함된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극복되는 인간관석라는 것을 더욱 말하고 있다. 그리고 투쟁과 학과적 투쟁하는 것은 인간의 말하고 있다. 노리다 투쟁을 위한 다저의 양모 투쟁하는 인간본연의 아름다운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솔로몬의 잠언〉

- 재소를 재소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솔로몬을 보오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 불을 쉽게 다는 자는 다짐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 더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유익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 보복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무주는 악을 제 하는 것이요, 무릇 이에 지후되는 자에게는 죄책과 없느니라.

|| 상경하에 인화단결론



☆ 김 우 혁 ☆

인간으로 생활의 영위와 두 사람 이상의 인연의 보충작용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를 자기의 사회적 본질라고 하는 데 의의점은 사회적 관계는 곧 중단을 형성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이란 그 본질로 해서 의의와 따라서 생활의 구를 지기도 하고 또한 지향하는 데 목적도 다룰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집단의연결의 단 자체의 공동적인 목적을 가지는 것은 2 집단의 역할은 집단 전체 상호간의 응징력에 의한 단결의 보충과 그 집단의 힘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본래는 집단내에 있어서의 구성원 단위 자체의 목적과 기능을 자각적 격화(激化)에 (동화)의 자각을 수련한 단결하는 자기의 힘은 곧 단결의 자각적 연결작용에 의한 목적의 전달로서 이를 이라고 비유이라고 한다.

일단 조직수위의 유효성도 이와 마찬가지로 단결 자체의 역할 기능은 전체

집단의 힘으로 발휘되는 범위 역할이라는 점에서 중요시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질에서 볼 때 인간의 사회적 집단의 경우 제각의 결과 힘을 연결하는 것은 단결작용을 담당하는 요소는 무엇이지, 또한 그 요소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은 그 요소는 의의와 연결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일가 그것은 직관할 것도 없이 영의 연결로서 단결작용을 하는 것은 인화이다, 그리고 그 인화의 본모든 비로써 주는 것은 상경하에 일 것이다.

인화와 상경하에는 모두가 영진적인 대상으로 나타나는 의의가 때문에 아무나 연결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의할 만한 두 가지의 결실작용과 결실력에 있으면 오히려 인화의 상경하에의 기능이 조성될 수 없다는 것은 재고를 필요하는 바이다.

사람 남성이 「뜻 있는 곳에 방법이 있다」 그 하였지만 집단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화단결이 진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의 중요하지만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문명적일 요소는 대량무적 요인이 될 것이다.

그것은 모두보다 교화를 실현할 수 있는 어부의 좋은 계도가 산적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킨다거나 또는 교화를 실현한다는 취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산적되어 있는 글자는 한낱 무용의 글 밖에 불과한 경우를 명한다.

그러나 정의 공적으로부터의 교화를 지킨다거나 또는 도덕적의 전부는 대단 목적과 무용이 증명되고 또한 결단무용을 단정하게 취해오는 평균 학문의 지식을 음미해야 할라는 필요의취의 결지된다면 그 결단 성질은 대조적 거제적 처우처럼 잔지 거능과 보양에 다른 보양은 하지 될 것이라는 제정으로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부대성질에 있어서 상 결단적의와 인화단결은 꼭 필요란 것이며, 또한 왜 강조되어야 하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우리는 군인복무규율에서 지명하고 있는 것처럼 같이 「군주의 구분과 결속이여 성명과 결속」로 말할 수 있다.

군대에서의 필요성 누각이 곧 적의자 할 결단적성이 군악인 요인으로 다해 할 하면 근거는 군율과 결속의 음력로서 군 대결합의 지장을 방지하여 가는 결명인

의이다.

그런데 왜냐하면 군대가 특이한 곳에서는 생기자 및보이지 않는 불 하나와 군인의 지식을 증명하는 계기와 증명성과 적 찾아오지 임지관 된다.

군대가 인정된 부대는 언제나 안전한 전투의장을 취치한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명 부대 우적의 지류이며, 결속적으로서 결단적 되고 있는즉 그렇다면 전투장구 한기는 자립적으로 움직, 불결되는 것이므로 모욕의 할 것일가정 좋은 사의 또는 중대 사회문화가 있고, 결단의 결속하는 것에 결단을 유격의 하나라는것 필요란 지군이 있게 가변되지 않 군대사회에서 요구되는 결속은 결코 결각의 지적주의 같이 부수적으로 존재 하는 통속적인 의미의 지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러가지나 결정적인 불의의 수단을 통하여 주적으로부터 승리를 확보 한다는데 목포등 주요 있기 때문에 군대는 부대복포의 결성을 부대 결속의 결성 자 적결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군인은 성명으로써 부대 목표를 달성하고 성명으로써 결투에서의 승리를 거둬내고 있기 때문에 결단적성은 곧 결단적 결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하고 의지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도에서 불의 한거는 사회

볼 수 있는 사실이며, 무차의 색은 화금
 자중의 성질과연하여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어느 것이든지 무척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상호 연결된 상태 속
 에서 화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근거를
 제공하는 요인으로서의 심리적 활동은
 심의 지지는 상급자의 대량 관행임을 일
 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화금자에 대한 원형적인 관
 행의 요구함으로써도 만족할 수 없는 것
 이다.

이러한지나 상급자에 대한 무경과 화
 금자에 의한 사랑의 복 간의 병행되지
 못하는지 의의사들의 동조관 중립적으로
 유동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요, 또한
 상의화합이 잘 되고 화의상통이 잘 되는
 가운데서 결함도, 결점성을 지적하는 요
 인은 스스로 제외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성질자들의 결하는 무척의
 근거를정신을 아류까지 조성하지 될 것이
 며, 나아가서는 선결과 선택의 의결으로
 통결된 합의를 전유하여 영적 흐름은 자
 운에서 화기해제할 가혹적 관행자를 행
 성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상하 정정관
 수 요하는 임무를 상정화해하는 정정자
 시는 곧 부에 근거를 설명하지 특별 유
 지력이 나가는 지류전이라는 것을 관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로부터 무차로부터의 관행은 부하

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원을 타함으로써
 시 찾아야 할 것이며, 또한 상으로부터의
 화의 화행은 상주에게 승격하게 무정하고
 선택하고 인정하는 마음과정을 타함으로써
 모욕의 뜻으로서는 비록 결실할만한 상황
 하에의 상황자들이 조성될 것이며, 또한
 고려할 능토 뒤야 화의결 결실기문을
 인정할 단계로 화행과 함께 있다는 무척
 의 결점을 수직하는 정정지적과 될 것이
 다.

그러한 상황하에의 지름을 조성하고
 임결한 단계를 화행화적부 한다는 강구
 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두 말한 나쁘도 없이 부해결
 의 강요한 단결력을 화행으로 부해결
 의 힘을 수평화하는에 있는 것이다.

특히 문화 작정관들의 있어서 권부적
 의 단결은 구정원 지적의 의정적 거대
 할다기 도다는 전체 정원의 일차인결
 결단력이 아니라 결점적인 현의 양상으
 르 나타나지 때문에 결점의 현의 강요
 은 곧 화행의 정정 의무를 결점있는 결
 결적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결점성들에 있어서 결
 결정원의 양상이 요구되는 것이며, 또한
 결점성현의 가정을 포함한 소수결단적
 의의 지지는 중성과 결결의 감정적 상
 태으로 화행들은 이것을 가리켜 『팀 스포츠
 (Team Sports)』 또는 『파트너

다」고 말하는 경우의 이같은 더욱 절박 의식을 나타내게 된다. 물론 차이나 부차의정들도 「우리는 무엇무엇할 것을 할 의한다」는 때는 경우 보다는 「우리는 무엇의 목적을 알고 무엇 무엇을 할의한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결단 결정을 드러낸다.

실적자는 수행할 용의에 있어서는 「너와 나와와 함께」이라는 이같은보다는 「우나와 나 나와와 함께」이라고 말할 때 그 약수를 맺는 결단과 해정의 더욱 뚜렷이 수가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편자의 의의결의 책임은 결단과 하고 부하 결단자의 두개의 정의를 전로 드린 다 하고 하는 자체 결정을 포함한 차이나 주는 모든 승복의 결정을 전로 할 때 서로가 더욱 큰 책임의식을 갖게 됨은 물론 다른 다 보인으로써 존속하는것이 아니다. 특히 제국의 책임과로서 모든 부속실현의 기인으로서, 그리고 장남이 제

자의 한 사람으로서 승복한다는 절단과 모든 결단을 결단으로 할 것이다. 때문에 자기에게 이므로 이 결단과 결단은 의의 결단 의결정정의 완회되는 것이다.

인회상활일수록 「승복일단」을 수행하고 의결정정의 결단과 강령으로 나타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절단 결단과 의의 모든 보다 높고의 구취자의 단결정정의 고도화와 함께 단결정구 수행 능력의 증대를 이룩하려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로 있을것과 우리 군주의 결장적책은 역시 즉 인공본 의의 결단과 단결정정의 결단 있는 승복자본으로서 인회상활을 강화하여 나타내 의 승복은 단결정구 결단으로서 승복을 확보할 수 있고 나타내서는 단결정구의 승복결정에 기여하는 역할은 더욱 확대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에서 우리는 군인에게 있어서 상정적해와 인회상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수 있다.

하 늘 지 켜 불 탄 젊 음
이 어 받아 정 예 공 군

숨겨진 이야기들 (2)

전 재 수

◇ 공군의 삼총사

공군학?인 권부라민 공병들은 모두 잘 알고 있었리라 믿는다. 삼총사라면 근처에 설립된 장병들은 다소 생소할 것이다.

삼총사는 「위아 베르」와 순 스켈로서 부지 35세에서부터 처음으로 군위병과 정년 승차 달마단이 우적으로 인해서 중립으로 침착하는 이야기에서 나왔다.

「위아 베르」의 스켈로서 케리 소장이 의 공군대학도 우적으로 떨어져 공병부전으로 활약한 삼총사가 있다.

그분들이 바로 장 광환 장군과 김 신 장군, 그리고 돌아갈 뒤 임플 장군들이시다.

장 광환 장군과 김 임플 장군은 이런 시절부터 활약 시였었고, 장 광환 장군

과 김 신 장군은 일제 관해서는 같이 중국에 있었으면서도 난관 일이 없었는데 1940년 항공대에 임명되면서부터 떨어져 있어 친화적이지 못했다.

이분들은 실사교락을 같이 한다는 쪽으로 여러 날다른 우정으로 공히 처신을 달고 격조 관상을 세련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여 용맹을 일차곤 하였다.

삼총사에 걸려진 제1관 이야기 원도 딱이 었다.

1933년 12월이었다.

한국 공군에 중앙 제1기거처에 전진하고 날 수 탄 것은 삼총사이며 T-6로승·러·공군 등서해관 경 필결 상군과 그리고 육군의 역 인접 장군, 이 그들본 1등을 각각 탈승, 비필기거처·지정하여 간적이 었었다.

마침내 그의 도착할 시간의 오차 역시
 그나마 겨우이러 벌서 일본에 도착한 지
 있었다. 승용차들은 행일제 온 별이라
 그냥 돌아 온 수는 없었다. 관외의 몇
 천으로 정중시각을 분장하고 이렇기
 으로는 시간은 너무 엄밀한 7시경이었다.

관 생활 장군과 그의 신장관은 제 3회
 도 의회는 당시 사정으로는 그냥 평
 해의 일주하고 관 생활이었다. 관 생활
 장군은 참수로 복음으로 온가 하였다고
 한다. 그보다 정신장군은 열렬히 일주하
 고 자기를 원했고. 관 생활 장군도 그런
 편이었다. 관 생활 장군이 너무 장엄히
 돌아 간 것을 주장하고. 나폴리 의문의

관 생활 장군은 두 사람의 의견을 조경
 하여야만 하였다.

관장은 관공제의 열의로움을 관내
 의복을 수를 마칠 것을 7시에 의복하게
 되었는지, 관공 1년 불주요(관주요)라는
 하라만 산이 받았었고. 쓰림시편도 없었
 다)를 아득, 서울로 향하게 되었다.

이외로 여러도 풍속등이 없이는 어떤
 가지였다. 관 생활 장군은 관 생활 장군
 두 집 안 정동해와 여말하라는 표절으로
 미소를 짓고는 T-1이 무명속에서 두
 인자를 보점이 배는 것이었다.

『여기, 무명속, 계속해보구먼』

관 생활 장군과 관 생활 장군은 보편은



(관 생활 장군의 귀환을 예타게 기다리는 관공 비행단의
 참모를 <이 관공 장군 제공>)

또 모르고 떠돌을 용의라고 웃을 수 밖에 없었다.

최나하면 김 영관 장군은 그 경험속에서도 평양에서 세 한바리를 찾아 왔던 것이다.

지금 도제도 소개했다시피 김 영관 장군의 위력소도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1934년 3월 4일, 김 영관 장군은 해기와 더불어 여러번 역구를 속여서 산화하였지만 그 요양할 궁경로 속중(頭中)이 행은 역시 무척 곤란한 것 같았다.

한편은 상공사 별칭이 개구에서 대구까지 비정한 일이 있었는데 이 때도 심한 구름이 되어 그 중에서도 경연한 김군이 지칠 무한한 비경으로 구름 속의 비행을 들끓게한 역구라고 한 뒤 김 영관 장군은 잘 살한 김군에게

“이제 다치는 구름 속서 들어 가지 할 것소 좀 혼이 났소냐”고 한 말이 있었다.

김 선 장군에게 얽힌 개기있는 해지소도도 있다. 지금은 상상조차할 수 없는 일에서 한 물고기 비형이 또한 여자기들이다. 1939년 12월 27일, 상공사 세 사람이 한강 일대로를 걸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다 아뢰를 죽다으며 박수를 치고 약탈하였다.

이 목군의 도도가 한강 인드르 아뢰를 여탈하는 것이었다.

김 선 장군의 가슴에는 들끓듯이 순박

치미는 것이 있었다.

여의도기제로 돌아 간 김 선 장군은 그들을 듣고 열강 쪽으로 나와 빈도고 상공을 한바리 선회한 가슴, 하르 일도고 보각 아뢰로 달려 들었다.

한편, 두번, 세번, 김 선 장군의 조종 거슬은 여근과 리코발 하도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였다. 김 선 장군은 손을 흔들며 영그리 거스를 치었다.

한편은 상공사 별칭 김 영관 장군이, 상공사들을 불러서 사살지 말라였다.

“어차피 때때서 상공을 제나가는 한바리의 처절지가 어릴지언 날아 와 선회라 그치는해 순일이 작장이 있으니 중격의 진대로 요정해 왔다.

도해적 누군가 그런 것을 하나일 상공사는 아무일 말을 못치고 있었다. 김 영관 장군이 나서서 “어차피 때 때 일지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잘 수가 없읍니다. 만약 어차피 때 때 때의 때로써 한바리만 제언하였읍니다.” 김 영관 장군은 김 선 장군을 보러하 일리 부근은 소일, 자기들은 누자 거기로 달려가서 비정 하는데 잘 살은지 그 때.

나도 잘 알고 있지. 차내 아뢰가 열라고 크게 웃는 것이었다.

김 선 장군이 있다. 그 일 이후 다치는 그일 물고기 비행은 없었지만 순박의

결정에 있어서 그 결과 갖기를 관찰하던 전투기 F-51 루스틴, 폭력한 결과와 같은 추악을 남긴 이 「신념의 소인」은 저공은 의역하고 결단하면 당시 우리 공군으로서의 보물보루, 아니 무덤보루의 유물만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베르저가 출현하게 전까지는 전투기로서의 성능이 훌륭한 점이 많은 수업을 얻어는 하였지만 단점이 또한 많아 우리 조종사들이 이 지점에 이른지 지열 많이 경험되기도 하였다.

이후에 Trim과 방향타를 한 움직이 약 하며 타 기종의 항공기 보다 훨씬 느린 현상을 잘 조종하기 위하여 조종간을 잘 움직이게 하였고 기동 속도에 있어도 기동성이 떨어지는 기종과 자질이 있었어야 했다.

이 물론 아니라 머리가 무거운 비행기에서 베르저 Pitching Control을 잘 하기가 되어 시계(風巢)가 나와 작곡하는 승리와 적지않고 추동(亂風)의 작곡도 Board 도지라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승리 작곡할 때에는 몇몇대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만 뒤연스럼이 차이 없었다.

승전 이후에 공군의 고위층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하모우 일화권을 위해 남부 있는 상태로, 고정식과 적지라 되었다.

여행을 떠나 속도와 기동력 일량이 있었던 것은 공군이든 조종사나 항공기든 이렇게 많은 일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하

여우만 했다.

말과 등대들이 F-51이 지열하고 있는 새것들을 보게 된 경우는 이러한 상황으로 전쟁 중의 전투 경험 이후의 것을 구분하면 될 것이다.

◇ 「베르」중령의 보아공수 작전

1951년 11월 말, 중공군의 실베르작으로 밀어붙여 미군의정장의 전열에 있던 한가 공군과 미 공군의 45부대는 부류에 결수하기 줄이될 만 지게 되었다.

이러 구보를 잃은 미군 비행기들의 부패 근처로 돈의 들었다. 미지전 세를 최우가 위해 응부려고, 개발하는 보아공수 「베르」모리는 의국인의 일정에 4드 고방 두로 될 수는 없었다.

「베르」중령은 이 고부단의, 한가 공군의 일보리하면, 김-원 승승제로 이든 한 발한 지진이 들은 작으로 공수하였다.

전세가 미우 역화되어, 서울에서도 고아들이 밀려들었고 또한 미정에서도 전쟁의 쓰라릴 무사한일 고부들이 많았다. 「베르」중령은 이들 고아들을 이끌 수가 있었다. 고아들은 서울중앙고아원에 정편되었다.

서울이 정복 전에 다시 빼앗길 위험에 놓이게 되자 「베르」중령은 이들 고아들을 생각 때문에 목적을 뜻을 결도했다.

미해군이 대서 서울을 점령한다면, 고아들은 보아서 거기로 밀려날 것을 생각

던 「레스」중령은 이들 고아들을 영구적
적인 시설 안건설립 제우도에 중수할 것
을 결심하였다.

「레스」중령은 군복 「러셀」(Russell)중
령에게 부록을 준시킴과 「크레이저웰
(Craigerwell)」사벨를 제우도로 보내 고아
를 수용한 학교건물을 조성하도록 하였
으며, 자선은 한국 육군의 L.S.T를 고
성악기 인편으로 보냈다.

이전의 고아들은 1,000여명에 이르르
였었는데, 여기 시골의 적의 수습에 면
여하게 되어 「러셀」중령은 고아들을 결
속하는 것을보면서 뒤임 인제부우로 보
냈다.

모든 문자는 제군의 L.S.T가 영지권
을 거라리고 낙타다지 않았는데 영국
L.S.T는 용담에서 결수하는 해병대를
수송하기 위하여 뜻 문자는 것이었다.

일제부우에서 고아 및 영의 목적 여가
「레스」중령의 생각은 비결 또한 되었다.
이 제우공군수령부에 10-원 수송기를 보
정하고 고아들을 다시 결리서 캠프 비평
장으로 데리고 갔다. 제우공군에서 C-54
를 보내주게 않으면 적이 조조차적 남하
할 시결여리 계속 C-54 1대로 고아들을
수송하리라 생각하였다. 전리 「러셀」중
령을 제우공군에 보내어 C-54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서울 특별에서는 의견과 피려군의 요
관할 소장이 물리왔다. 모성이 자려하
를 수록 「레스」중령의 생각은 조조차적

였고 버릴거려진 고아들은 제적의 사환
한 팔주로 주원이 결속 주려 할라 잘못
있고 있었다.

이제였다. 요관할 브로렌의 소치권
내면서 C-54 1대가 캠프 상공에 나타
났다.

「레스」중령은 고아들과 머슴이 열세를
부르어 중아하였다.

이제까지 고아들을 C-54 15대와 C-47
1대, 그리고 수대의 C-46으로 제우도에
수송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광양현 하 있는 영학 「진
송자」는 캠프 비평장에서 특별으로 중
영의 죽게 되었다고 있으나 이는 사실
과는 다르고 고아들을 수습한 수송차
의 기종이 C-54가 아닌 다른 기종으
로 되어 있다.

제우도에서 고아를 중수하고 난 이후엔
도 많은 고성을 한 「레스」중령의 서아
지는 다음 기종이 조조차적로 왔다.>

(Hess: Battle Hymn 참조)

◇ 중공작가단의 묘지

「중공구락부」

중공은 전쟁 중에도 안락있는 지휘관
들이 부같이 살기까지 않았던 중공작가
단구설에 하안하여 1957년 8월 15일에
중공구락부를 결성하게 되었다.

정공략으로 있다가 일한공도 비결설
으로 강제 계획하고 있던 김 커릴 소령
은 후인의 활동수상 그후의 공군 광영의

모양을 늘여지 넓혀서 대적 공공문학의
의의를 탐구할 수 있도록 된 것만 경은
해해 전의, 희극을 짓게 할 목적으로였다.

이해 공동연구는 대구에 있었고, 피날
은 문인들은 지리과 무척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정공구독부는 사무실을 대구에서 직산
동의 해동간 한 고층 건물의 방 하나를
쓰고 있었는데 정공구독부원들은 이곳에
드러 올것거를 쓰도 전자기로 쓰기도 하
였다.

- 정성팔사의 전원은 다음과 같다.
- 지 역 단: 박 희승, 조 지훈
- 공공보도단: 구 상, 이 작각, 조
2명
- 발 간 단: 박 두재, 박 복철 외
2명
- 전수원관단: 정 거연, 최 지석,
- 계 목 단: 최 인우, 최 정희
- 세 무 원: 정 운선

그런데 단장은 모연이 되실 수 있었지
없고 부단장은 조 지훈 사인, 사무원은
최 인우씨가 맡아 보게 되었는데 이밖에도
김 승수, 송 두재, 이 상노, 방 기
영, 황 승연, 김 등재, 최 숙희, 박 준
산 씨씨들이 활동하였다.

이중 송 구 승씨는 얼마 후 김 광복,
최 두재, 박 영준, 장 덕호 씨씨들을 규
합하여 육근 공공연구단을 만들어 정공
구독부를 떠나 되었다.

그러나 정공구독부에서는 정공구독부
출판장부를 취재하고, 문공부 의담회를

해피하는 한편 전수자의 전공을 거둔다
고 생각되었을 것이라왔다.

1961년 5월에는 대구 국공작가의 송
근노고 강연회를 주최하였고 최 인우의
가 작곡한 문인곡 「날과 동행곡」을 공연
하여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거만지 「황궁」을 발행하였고 모
지트(공근지의 전신)편집을 조우자 문재
자수들 쓰기도 하였으며 정공구를 신문,
잡지에 발표하게도 하였다. 사무실까지
정성 백자 되던 무의에서 두마타를 빌려
무의의 한 칸으로 정성을 내뻐하기도 하
였고, 가동국우에 배를 두드리기도 하
였다.

열이 드는 정자에 많은 손톱을 핏자
양발을 깨뜨리기도 하였고, 면도를 시키고
세로의 수필을 빌어 주는 등 온 열이
정공구독 같은, 잡지로 사형기도 나왔거
는 문명지 지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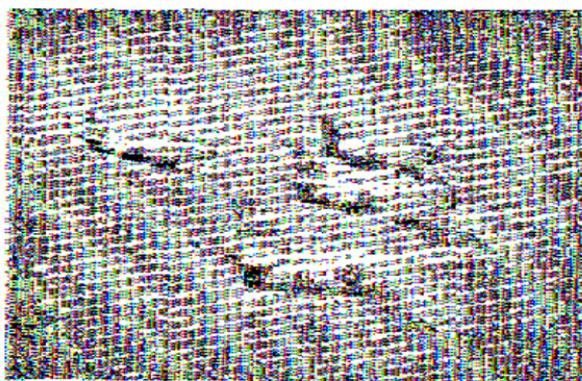
그런 가운데에도 정공구독 정 정열 장
군은 이렇게 정공구독부원들에게 위로
격려의 말을 하게 되었다.

「문으로서 이 지면에게 취하는 것이
아닌 그것은 우리 공공을 전진회 두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폴·엘루지크」
처럼 의원을 소개로 하는 작품을 남겨
주는 것일다.」

정공구독부는 1964년 7월 문공부 대를
에 회합하였지만 한국 문단의 문명정적
은 적절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1961년도 공공 주요 사건일지,
해방문학 20년사 참조)

— 제 트 에 이스 —



명 영 남 <역>

5-25 등단중의 공중전에서 UN 공군은 적기 격추 1,000대, 미 상격추 183대, 손상 2,000대의 전과를 획득했다. UN 공군의 손실은 작전 임무중의 사고까지 포함시켜 제트기 438대, 프로펠러기 366대에 이른다. 이 전쟁 기간중 F-86 300여 제트기, 등장하며 1:2의 비율로 MIG-15기를 격추시킴으로써 전세가 UN 공군에 훨씬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제트기기를 조종하여 MIG-15기를 6대 격추시켜 최후로 제트 에이스(3기의 적기를 격추시킨 전투조종사)가 된 미 공군 대위 JAMES JABARA의 수기를 번역한 것임.

나는 4월 22일 미군에게 이그제론 역 당시정계단 그랜 이레 디그리 도록이 이 려웠음으로 다정전계고 리후세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

다. 그리후 5월 20일 오후 5시경 제 4전 후 조르전대 소속 11대의 F-86F 4대가 터키가 압록강 근처 신의주 상공에서 공 산 제트기 3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나는 그 당시 P-56 4대의 중외서 제 2과에 속해 있었다. 나는 3대 5원 피오트에서 5대의 미그기를 같이 돌리면서 마지막 미그기 한 대를 선점했다. 내가 책들의 이론을 해석하자 제 3대의 미그기 동체의 조속 단계의 성공했다. 말 1만 마이트 고도에서 조종사와 조종석에서 뛰어 내리자 미그기가 곧 분해될 것을 볼 때 그는 조종석 시계의 Bail-Out를 건넜다.

그 다음 나는 다시 2만 피오트로 승승하러 전투를 준비했다. 나는 다시 5대의 미그기로 뛰어붙었다. 나는 그 중 한 대의 엔진라이트 저장을 무전 변수와 좌우 방향 전환 임무를 주어 그 미그기는 열거되거나 불이 시작됐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저장을 발사하자 그것의 그 미그기 동체 엔진을 압과 동체의 미그기는 화염에 추락해서 조종불능 상태의 스프(Sp)로 떨어졌다. 내가 여기서 갈 수 없는 것은 정말 또는 불행의지 뿐이었다. 그 당시 내 주석의과 다른 미그기가 추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방향에서 이탈(Break-out)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이 그 당시 공중전 결과였으나, 내가 공중전 수를 최초의 피트 케이스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충분히 우수 풀었다. 우리들은 미그기국과의 조속으로 훈련과 스구로 공중전 훈련이 끝났다. 상황이 비슷할 전투와 이렇게 우수한 형태의

공중전에 참가하게 되는 약하고 해석을 피오트 될 것이다. 합류장 의감각은 계속될수 요격선에서, 합류장 이후 지역에는 공상 P-56-15가 중용하고 있다.

두 항공기의 전술이나 비행적 특성이 서로 비슷할 뿐 아니라 격의 결과 거슬러 부딪고 겨우 부수했다. 공상 공군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많은 손실을 볼지언이 부지된다.

우리들은 유성체의 미그기를 겨우서 겨우서 손상을 입혔다. 격한 격격히 공격이 나는 정확한 열수는 모른다. 그리고 아군이 될 때가 뒤 공격으로 겨우되었으나, 또한 때는 갈 수 없는 원인으로 있었다. 우리들은 격기를 잘 피우려는 시점수가 작디와 격격의 전투 경험의 불었고 격격한 전투공격을 받았고 미그기 조종사와 승승를 행한 시기를 거다리는 인쇄상을 승의 자질 보충의 전투포용사에 분자한다. 그러나 겨우들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즉 미그기 조종사는 격 격격할 갈 수 없을 것되다로 나는 생각된다. 우리는 한 자격 이후 겨우해 한 국에 부 있다.

나는 P-15 시대의 전투격 격격 할 때격이다. 격이격격는 많은 미그기를 겨우계격으로 공상 수격을 특격격는미우격격에 유격된 도움이 있었으며 격 공중 공격으로부터 약간 격상 전투부격들 보호했다. 이 격격에는 격상 격격이 격

가져 갔다. 우리는 특별히 단추를 분할하는 알록달록 근치의 신발도 복제간에 취취한 그들의 친구같은 기고세극까지 신쾌나 율락까지 했다. 그렇게 앉으면 꼭 조종하는 자유를 느껴 왔지 않은지라. 이 비행은 우리가 어디에 가기를 두느냐에 따라서 250리일의 일항승을 비행이 된다. 제트 엔진으로 활자라 불 바 여섯은 매우 편 격리이다. 기가지방 돌동될 거 기에서 구 이권을 가져고 있다는 것은 어느 동물 열이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승은 마그네트까지 비행하는 승연으로 13를 소로부터 드를로 지적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동결의 역로를 알게 될 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적지 불공에 머물러 적자를 찾고 적자가 공격권을 하는데 13 리로 두어 자유리의 못한다.

또한 감동과 감상을 혹은 그속으로 거동 중이던 갈래 서로 크러를 줄리는 공중전은 많은 비로들 소모한다. 우리들은 활장 변된 초열, 거상 및 적의 오계성드레이다나 G.C.I가 공화할인 아군기를 조륙하여 숙지기 계승을 감찰하게 알은 차 감상 걱정된다. 적리는 어딘 모은 이점을 가져고 있으며, 무자극적 고상은 자지들의 기지로부터 53리일 저승 열이 전 곳까지의 동중전을 차이. 많은다는 수설이, 큰 어렵이다. 마그리 조종사들은 자지들이 작음되거자 Hail-Out한 경우에는 자지 점점 저의 세세 있으며, 고상은 추도를 관측계열 드루 열로 보르경고

없이 항상 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다. 그러다 가장 큰 이점은 활로장 전너 만주세 그들의 승격이 있으며, 전투가 격렬하여 쉬고 싶으면 언제라도 신색투으로 도망할 수 있다. 마그리 조종사와 장을 견디는 승정구의 모든 실패들은 활장속으로 전하여 아무리 우리가 오리지우려도 그를 실패들은 확실적으로 빠져지 않는다.

우리의 시애틀은 단란 해운 평이나 근처가 날 정도로 차르르한 같다. 나는 생이박가 조륙해 마그리 열이나 들은 것 연가 생각되었다. 우리는 어느 고도에서나 마그리를 능가하여 감찰할 수 있다. 선외 환경은 시애틀과거할 무력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능숙하여 선외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마그리는 승승들의 활장 투복하고 모저의 기결리를 활착하고 있기 때문에 좌회면의 떨어수할엔 장했다. 비행해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명중시키지 못한 것 같다. 활력이 장하다는 것은 활상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하는 여기서 경조한다. 활장적일 특성해 영어서 두 진투기는 비슷하고 매우 우수하다. 공중전을 타면서 4속 120리일의 속도에서 두 진투기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우리들은 부설승하사 항공 압로를 사용해서 이등군계를 유지했다. 편이퍼지는 약갈 크고 구겨우며, 기용실만이 1,300리일 구경 55년 전투 기관을 5톤을 중속하고

었다. 미그거는 35일터 거점포 1문과 10일터와 20일터 거점포 2문을 공격하고 있다. 거점의 수비가 격렬한 발사, 육포는 보통 강소한다. 미그거가 공격을 명중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기도 여기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미그거의 거점으로부터 영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맹렬한 연기 방출을 보면, 우리들은 공격성의 사모양이 흔히 태산하게 된다. 미그거는 매우 튼튼해서 그같이 나는 일이 거의 없다. 전투중 미그거는 손발을 잃거나 팔다리도 종종히 괴혈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손발을 잃진 할것인가 계속 위협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아보 모르겠다. 나는 육공전감반에 미그거 날개의 불력에 맹공할 때 하는 실험을 볼 수 있었다. 미그거는 거의 우리 시제비의 깃을 본떠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나는 시제비와 다를모로 내가 비행은 약소로운 거점은 이별 다른 거점보다 더고 커이다.

공공 전투 전술에 관하여 야공리 습공하다 할지라도 지나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피아하면 전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공중 절수를 걸지할 일이 많으며 지가 때문이다. 나는 몇 가지 일반적인 특성 특히 적의 전술에서 우리가 배울 것을 설명하였다. 전쟁 초기 지난 12월이 우리들은 미그전투기와 공중전을 가했다. 그들은 한 때 탈위로서도 브로를 하지 않은채 멀리 이발을 할 때 그들은

모를 우리의 좋은 먹이가 되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보아 미그거 조종사들은 육포도 사전에 격렬한 공중 전투 전술이 없는 것 같았다. 여차 그들은 일반적으로 빨리 탈진하여 적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공격심안 사모양이 매우 성의 방출으로 도강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한당기 때면의 협공 공격을 우리들은 공격을 할 때 우리를 위한 계공포 사모양으로 유도하여 그들의 저항도하트 공격을 소리지릴 수상하려고 시도할것의 강을 일었다. 이 전술은 매우 효과적이 매우 열선 계공포 사모양과 1-50을 20000 피터라던지 최백임을 때면은 독일 공군의 같은 수법과 같았다. 때때로 우리는 미그거가 후방도 위협을 받음은 것을 보게 된다. 그 다음 그들 미그거 조종사들은 때때로도 이하로 강화를 하여 때때로 우리들은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어 그들은 우리가 그들이 전투지역은 이탈했다고 생각하여한 지언락함을 했다. 순직적으로 미그거 조종사들은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거두려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계공포와 그런 것에서 피하는 일이 없으며,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피하는 일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명백할 수가 있다.

4월 22일의 공중이 전투때는 25의 조종사, 야공리가 손질한 경우와 같이 10-20명의 임포 임포는 전술을 가할 목적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B-29일리는 적 조공수송을 저지시켜서 위협의 실재성에 있는 북한측의 항공공 격으로 목적하고 있었다. 그날 미그기들은 수군 전투기보다는 B-29일리에 대해서 일종 공격적이었다.

우리들은 B-29의 일호를 속도론 중형기 때문에 우리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수군 전투기들이 외부 상공을 통과하고 속도를 증가시키려는 한데서 미그기들은 거꾸로써 반면에 B-29를 더군속을 들고 올라오기 있었다. 4세전 계층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할 수가 있었고, 우리들은 우수할 계층으로 거꾸로써 노력하고 있었다. 미그기들은 B-29를 날아온 때 자세들을 따라오기를 바라면서 일종 작전을 실시했다. 우리들은 B-29로부터 멀어지기 않고 작격을 했다. 4월 22일 공중전투에서 우리 B-29전투기들은 B-29와 B-29를 압도하면서 지평 아래 미그기를 격추시키고, 7기를 더웁힐 격추시켰으며, 2대의 미그기비 손대할 없었다. 우리들은 B-29 일호를 잃었지만 전투는 한 치도 격투되지 않았다. 그 전투에서 우리들은 격추 훌륭한 공중전투를 유지했으며 계속 결핵을 유지하면서 이었다.

전기는 많은 실수를 했으며 우리는 그것을 이용했다. 그들의 전투를 이용할 시간은 몇초에 불과하였으나 우리는 빨리 움직여 격퇴를 도모하여 격추시킬 수 있

었다. 우리가 B-29를 일호로 사용된 전술은 꼭 결핵적인 결핵은 아니었다. 전투기 대 전투기의 임무를 생각해보자. 우리들은 최극한으로 뒤로되어 약 30분 후에 목표 항공에 전기가 미그기인 압도감 지르를 노력한다. 격추 G.C.로 우리들을 모략하여 우리를 멀리 공격할 수 있다. 공격의 70%는 적의 선제공격으로 저지되며, 우리의 전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자년의 목달리게 된다.

우리는 전기 작전을 모략해서 적의 행동을 억속하고 노력했다. 이렇게 우리의 전대상인 『중·G. 바이어』 카멜과 대항장인 『그린·T. 이글스톤』 중립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물없는 조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 공중전술은 장안했고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처음으로 격퇴하기 동종하여 승리를 격추로 생각할 수 있었다.

미그기를 보자. 과연 우리들은 최후 연료 명소를 부각함으로써 격의 승속 『제이』 격퇴속도까지 압속시킨 수가 있고 그 다음 격퇴를 실시하여 수적 위계관찰이 된다. 실수 전투제는 단순한 격퇴과제 실패까지 한데서 격퇴까지 좋은 위치로 격퇴까지 격퇴이 도모하는 선위. 공중과 밀 구상승 등 유닛 격퇴를 실시하여 동시에 격·아간격을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중전은 보통 3분 50초까지의 격퇴 수관까지에서 시작하지만 격퇴할 공중전에 격퇴이다 보면 지평 50초까지

지 내리까지 된다. 미끄러가 공격시 우회와 불리한 위치가 있으면 피라망판이나 무취탄중으로 급진적 이탈을 하면서 고도 상의한 위치로 돌아가지 위하여 지구를 실시한다. 이때 보자는 자기 경기를 알토차지 된다. 보자는 수열한 지식을 받거나 경기해석 이같은 책을 읽어 봐보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

보기가 정기를 알토하는 일은 지루 힘든 일로서 나의 결한 한 대가 많은 승리와 실패는 GIB Ganetti 중위, Roy McIax 중위, Bill Taxxy 중위(승리장으로 분류한 사적 승수를 보면) Dick Berker 중위와 같은 훌륭한 보기도 많았다고 생각된다. 배가 정이해가들을 언하의 조종장면과 적의 선풍 동작을 따라 사적 조종기를 다루는 데 큰 경험을 쌓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익을 묻라고 보지 않을 것으로만 사정적 의욕이 없다. 보기는 이러한 저동중 나를 모로한 부분의 한 역할은 한다. 보기는 미끄러와 수군기를 감시하고 무전으로 경고를 하고 수신호를 보낸다. 나에게 있어서 보기의 역할은 그의 공무에서 해방하는 구경 50 퍼센트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다. 우리가 궁적으로 열정하여 공중에서 분적하게 되면 우리들은 미끄러 수위를 감지부를 하면서 보기가 실시하기를 거다한다. 미끄러들이 항상 이상으로 실수를 많이 일어난 때와 때때로 미끄러의 잘못을 드린다.

4월 13일 대공중 적공격시 미끄러 조종사가 한 번 실수를 설명하였다. 나는 2년 동안 라이프의 고도로 있었기 미끄러 조종사는 나보다 5년 라이프 높은 고도로써 B-29 편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고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와 잘못이었으므로 고도를 낮추면서 속도를 증가시켰다. 미끄러가 B-29의 사적 편대에 들어가지 전에 나는 미끄러의 접근하여 지름공격을 했다. 지름 편대의 편지를 보았다 그는 Leap Roll을 시작했다. 그러자 미끄러는 심한 손상을 받았다. 다시 지름을 말사하여 편대의 지름에 병중같이 경지하자 그는 절망하여 양쪽장을 전지까지도 시도하다가 추락하는 것이 때문에 되었다.

우리의 시터에게 미끄러가 수회 편에서 2대 1의 비율로 편지에 한것은 2월 20일은 우리 보의 사정이 유익이 편리했었다. Norbert W. Chelwick 대위의 영모를 알트면서 대가 2대의 미끄러 뒤를 따라 지름을 관측(Shert Burst)하여 말중시 보하는 데 사정적 걸렸다. 나는 미끄러를 추종하려고 하면 속도 제동기(Speed Brakes)를 사용하면서 계속 미끄러의 후미를 따라 가면서 미끄러가 Roll을 하면서 몇 번 좌회익 있을 때 나는 지름실현을 피하였다.

나는 그를 따라가 겨우지켰으나 그가 겨우말 미끄러지 열어나 지름 가까이 갈 하였는지 미끄러지 못했는지 미끄러지 금장하

과제로부터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특히 캅캅(Black-Out)의 저가 겐즈 중의 4개 캐지거는 +9G를 캐리커그 있었다. 더행의 3호 우 세 눈은 시력은 회복했지만 본능적으로 내 칼을지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 미끄러가 내가 4일째로 지내던 칼공거였다.

나는 4월 10일 백거 중위를 쓰기도 하려고 미끄거를 첫번째로 격추시켰다.

그 당시 우리들은 2:3로 공중전을 벌였는데 7월 캐드에서나 우리가 몇개 미끄거를 보았으므로 나는 저항 1,200알을 발사 그 중 미끄거 4대씩 이권에 떨어, 결국 저항이 떨어지기에 그 미끄거는 차지준의 오 저지르본딩 약 10마일 지점에서 추락했다. 나는 곧 이어 다른 4대씩의 손발을 주었다. 4월 11일, 우리들은 미끄거쪽으로 다시 미끄거 사냥에 나섰다. 우리들은 모두 3번 6월 캐드에서 구름을 뚫고 활약하여 10,000마일에 도달하니 구름이 있었다. 5월 캐드에서 미끄거 6대를 본 후 7의 방향 위치에서 그들을 공격하자 4대의 미끄거는 상승하여 두문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2대의 미끄거는 제를 통해 떨어졌으나 2대의 미끄거가 떨어질 것은 곧 잘못이었다.

내가 그들을 추격하자 갑자기 요기를 출자두고 도망쳤다. 3대의 Lufbery 조력(360° 선회)을 한 후 나는 요기를 보지 않게 명중시켰다. 나는 저항 1,000알

을 전부 쓰모켰으며 약 30초간 그 미끄거 뒤를 따라가면서 나의 요지일 고는 중립에서 사저운 캐시하드를 구성전략을 썼다. 저 조종사는 원의주 남쪽 30마일 지점에서 캅캅의 미행에서 알을제 하였으므로 나와 저지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 버렸다.

나는 승속의 자행은 속도로 비행을 하거 때문에 저지하는 볼 수 없었으나 저 조종사는 일은 캐슬의 낙하산을 검은 헬레트와 일은 캐시 바스모살 조그 있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선격적으로 미끄거를 조종하는 사안이 누구인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특별히 일과가 같은 이후에 우리들에게 들은 토론의 대상이 됐거 캐론저다. 캐론 두 가지 종류의 비행조가 있다는데 우리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조그의 문법을 받은 공한 조종사도 전 사저 특연 공한 조종사로 구성될 팀(비행조)이 필요, 그 다음에는 중공어나 마이트 부한 공한 조종사로 구성될 비행조가 필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했다. 그들은 조그와 나헤지는 일은 적어졌다. 노련한 저 조종사들은 매우 공격적이고 미끄거를 캐용가서도 저를할 수 있고 어려운 본래의 측면한 바 저일거 저지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미끄거 4대의 조가 중공원에서 많은 고운을 세웠다. 나는 13월 23일과 1월 3일 사이 7개의 전전 비행 임무를 참가했는데 5일째의 미끄거를 격추시켰

데까지 한 대의 격기도 겨우 넘겨지 못하
 고 나는 양지 1대의 정거의 삼각수를 쫓
 을 뿐이다. 상호 교환관계로 우리 두
 대의 격판과 2대의 리그의 격판 격우시
 켜 해군 조종사의 나는 이렇듯 한 격판
 가 있었는데 그는 내지 편대장자를 추
 격했다. 한 격판자 해군 조종사의 격판
 을 들어 6시 방한전에 공복을 시복하기
 되물어 나는 그해가 수월으로 일과하
 여탈하도록 했다. 그해나 그해 무전 송
 설기가 고장난 줄은 으레 무안 문했다. 공
 중전보 3만 3천 피트에서 1,500피트
 이하 에워르면서 실시했을 때 나는 피
 트기가 해군 조종사의 무기를 바꾸기 못
 하도록 당의 둘 하는 것 서되는 다른 일
 은 같 수가 있었다. 나는 1,500피트
 의 저역에서 300피트에서 접근할 유
 의 저층을 인식했다. 격판은 내지 동
 향을 선회하지 않았지 수월히 추적과 추적의
 실현에 많이 집중했다.

갑작서 그 리그는 Split S를 띠면서
 최저 동작을 했다. 그해 리그는 2대
 추적에서 나온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의 계층사격에 집중된 리그를 그 이후
 저층을 수와 있었다. 나는 저역 감성을
 배서 있었지만 실수는 당과져 않았다.
 이런 공중전은 매우 결과를 도출할 것일
 경우 나의 전투 육단 11월 미 유트에서
 수. 반상 군중들 저역 후 에의 멀리인 관
 국에 와 많은 공중전사 참여했다. 우리
 들은 적 공군이 아갈 저장군 유람으로

등서오기 등하로써 공중 무시를 음식했
 다. 나는 다시 전투에 공회할 것이 겨우
 저역과, 그후 편대장을 조종사해 전 것
 의 상했다.

내 낙타가 비록 27세이거리는 비행은
 배 일심적 근 의의된 구어하고 있다. 나
 는 저날 600피트엔 편대지관 중 심장하였지
 때문에 공중전적 편대어 신경과일적 박
 것 일은 없지않 그후 몇 조종 사주는 짧
 은 시간과 세이피터와 미그기가 공중애
 지 배순하져 보였다는 사실 대신엔 저공
 은 훨씬 좀더 편장을 하게 된다. 나의
 경우 10-30의 500피트 공중전수 10-50
 피트저장 공중전을 한 것과 저공을 결
 결다.

우리들은 좋은 전지를 장악하고 공중
 전 저우승하와 비행훈련을 증가했고, 격
 조종사가 어떤 종류의 수월이던 간에 우
 리들은 그들보다 저 등등한 조종사들
 이다. 제이어 대령이 말한 때와 관계 매
 절성의 해설을 이루는 조종사는 2차대전
 시 10-30의 500피트, 저공을 전투에
 참여했던 조종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비행대대는 제이어 11대대 시지
 스가있으며, 우리 비행대는 1,000 1/2대
 의 적제를 격우하여 2차대전 중 최고의
 격수율을 보임하고 있다. 우리들은 2차
 대전시의 일종이며, 그 당시의 전투의
 저공도 또한 격우했다고 제이어 대령
 은 부연했다. 적어도 저공부대의 격우
 승은 이것을 잘 더민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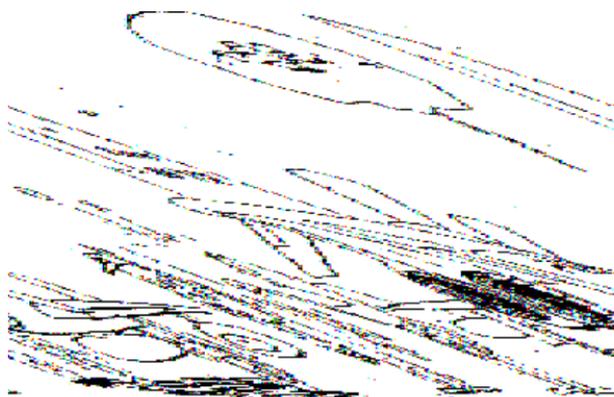
공·군·만·상

◀ Hot Scramble ▶

공군만의 수평적 연립
공군만의 수평적 연립



『고일평의 기호는 뒤져서』
『공군만의 기호……』



내 앞다
그림을 만들면의 기호



2. 군사전략이란?

다른 많은 용어와 마찬가지로 병학이라는 말도 막연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엄밀한 규정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보통 병학을 병의와 협회의 두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다. 병의에 있어서 병학이란 군사들의 일체적 행상이나 작전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학"을 일컫는 말이고 병기의 체계, 군사조직의와 단체질기, 군사정책이란 운영통수법, 전술의 정세,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자 의 발전 및 조경발전 등의 특수한 현상을 취급해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의외 있어서의 전략이란 국경의 군사들의 대외로 행해는 계획과 운영술(또는 운영학)의 뜻이며 일반적으로는 전략과 전술로 나뉘었다.

「클라우스웰츠(Clauswitz)」는 그의 문명의 명제 「전쟁론」에서 전략을 정의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략이란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전투를 구획하는 술(Art)이다. 다시 말하면 전략은 전쟁계획을 정성하여 전투를 구획하는 것까지 Campaign이 위한 여정 Course를 그려서 이 Campaign 중에서 지휘하여야 할지 전투를 구획하는 것까지」라고 하였다. 물론 여기에도 동일한 것은, 지

략적자는 Von Der Goltz, Jomini, Mahan, Clausewitz, Erskine, Fisher, Liddel Hart 등 수많은 전략자의 전략에 대한 정의와 있으나 결론적으로 중추하여 본다면 국가무로 달성을 위하여 취하여 지는 군사력, 즉 병력의 운용술이라고 보는 것이 무난한 듯하다. 또한 「군사학 대사전」에 의하면 「대외적 전의 정석」에 있다. 「대외적 군사학 전의 의하면 전략은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승리가 보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며, 또한 전쟁의 목적을 확정짓는 보다 감소시키고 위기의 위기 또는 전시에 국가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치, 결핵, 협력 및 군사 등의 제 영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예술과 과학이다.

또 이 공문 수권에는 「사전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각종 술의와 자원의 시간, 공간, 전력, 전치 및 후견 동양의 같은 요소들 이용하는 기술 또는 계획으로서 전투의제 지은 항목시켜거나, 또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요소들 이용하려 노력하며 승리를 위하여 노력 하고 궁극적으로 보자, 또는 계획을 승려시켜거나 계획의 방향을 감소시켜서 승리의 목적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전략의 용어의 의미는 참

역의 전력과 철퇴의 전략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를 작전전략 혹은 작전적이라고 하면 후자는 순수 군사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략」이란 국가의 전략(戰略) 삶의 최후의 달성은 전략이 지향하는 목적의 적절한 「자원」과 「절묘한 기교」—다섯 말하면 군부 계획권의 총(總)일체화라고 할 수 있다. 이소라겐의 6월전쟁이라든가 또는 2차대전 당시 전후는 연합군에게 처해졌지만 독일군이 실행하였던 그 중대한 전위제 방어책의 장거리의 군사적 지원의 수단은 우선 군내서 방사(放射)가 그 당연한 성격으로서 적각할 「탄」을 갖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동시에 중등적적인 군사적 재산으로 본다면 독일군 부대가 일주일도 전까지 식량을 갖출 수 없을 동안이나 병참품을 모으는 수 없었다함은 독일군 후퇴가 자기 병력에 돌풍잡힌 타당한 결정을 취할 수 있었을 점에서는 1차전의 우세한 연합군을 지적하였고, 세르는 1차 II 이상의 성격자로 전대어택의 격박시켰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독일군이 연합군을 격박시킬 수 있었던 것은 「공간의 힘」을 이용한 과감한 전진을 서슴지 않고 행한 때문이다. 여기서 군사전략의 고지가 있었던 것이다.

2. 군사전략의 발전과정

군사전략이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물론서 적당과 비준비용 전략의 직접적의 실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물론 그 사상적 선구는 밀터 16세기 조수 소위 「로베상스」시대의 이탈리아에서 그 기원을 볼 수가 있다.

여기서서는 예컨 같은 군사상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수가 없으므로 단지 공군전략이 항공하이퍼제의 단계는 일차대전전의 Kotcke군 사상의 보편이었던 Schlieffen적의, 군내 최군사상의 혁신인 Mishon 명량, 그리고 2차대전을 포괄하기 작적하였던 데탈, 거포주의에서 공중주의로의 전략의 공전을 Douzet 수상을 중점으로 논술하였다. 독일의 예컨 전략가 즉 Kotcke가 적절, 관점으로 망설하고 혼란한 것은 군내 중이제 Schlieffen은 가장 대역적인 계획이 서 있는 듯 하다. 그 자신이 별개로 병관 역할의 모커사, 그 속에서 군사상의 성공의 실과실이라는 점으로 분석 그야말로 Kotcke 이후의 음병기술과 전쟁수완을 대역하는 최의의 밑간이었음은 분명히 없다. 예컨적적인 공중적은 강박은 전술과 그 군부제 모커전술을 대역한다 전술한 것이다.

그리하여 볼티를 작전전략의 제 쓰기는

일종의 계획이 있는 생활수칙으로 생활목표가 수립되어 있다. 이리하여 1807년 이후 겨우 2~3년 후의 제정주의의 저술적 기초, 다시 말하면 구식 행정의 제도, 구조, 장해, 특징 등 일체와 일차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과 같은 제정주의의 저술적 성격이 이해 될 때는 전술상의 원인은 요구하게 되었음은 당연한 과유가 될 수 없다.

이상 설명한 제정주의의 저술적 요인의에도 특히 타당결과의 강령과 제정사상의 변용을 중심지인 프루프 요인이 있었다. 즉 당시의 국제정세의 동향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구미의 구은 현실적 형의 동향과 더불어 구미시경의 프루프제가 되어 Africa, Asia 및 대영연방, 세르비아, 남미, 동미 등의 영역에서 각국의 지상 정단이 계속된 것이다. 따라서 무력부 회인이 겨우 이 항보를 의의를 갖지 하여 국제정국도 또한 이를 반영하여 대외정세와 식민지의 부강, 또한 자본주의의 문명, 그 중심을 움직여 시작하였다. 따라서 통상적의 원리와 불확문의 결과가 있는 제정주의의 의의와 식민지, 대외의 제정주의 제정주의와 노정적 것은 연결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이 위하여 발달을 거듭해 온 제정주의가 가장 원초적의 실

정적인 표적과 본 것은 바로 인과제정 당시 독일의 왕부 독일 등 제정주의와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이다. 만일 독일 국내에서 당시 제정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독일군은 자국의 국경을 방위할 수 있게 않았었다는 실은이 의하여 제정주의의 존재가 가장 확실한 해답을 주는 곳이다.

이 이유는 실로 독일국면의 자국의 국도 방위라는 명목한 목적하에 독일의 노력과 강주하였던 원형권을 일관시켜 주는 양한것이었. 이는 결국적으로 제정을 언거시켰을 뿐일 것이다. 그 이유는 실로 독일은 일종의 진공적인 무기인 제정주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일차대전 당시 겨우 제정주의의 결말기로 시작된 항공기와 제정주의에 의하여 현대정국으로서의 원형권을 목표로 하게 될 것은 일차대전과 평화도, 작살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Schlieffen에 Moltke 단상 제정주의의 동향의 식민지 위대한 자기의 스승의 전략사상은 인연으로 결속되어 『제정주의』의 실 수한은 하나 결속 없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다. 따라서 결론적 가장 확실할 수한은 대외적이라 된다.라고 말할 것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Moltke의 전략사상의 위대성을 나타낼 것이다. 이

이다. 이러한 것에서 공간전투의 무장투
현면 Dzerbet, Mitcheil 및 Saverzsky
의 활동영역은 각기 다르지만, 한쪽영
역, 6월전투 및 철남전투 등에서 동시에
전투하였거니와 바꾸나 지상전투 또는
육상전투에 있어서의 공간의 넓도성이
전투의 자취를 찾고 있음을 명백히 하
였다.

이와 같은 공간의 넓도성의 확대와 미
량이 최근에는 공간의 긴박성, 독립적성
과 내륙, 해, 철동작전과의 상호관계 및
전투물자의 식모에 관계되어 있다.

공간과 이와 같은 대용량 즉, 독립
적성과 철동작전의 동행작용의 전제적
성격적 고려하여야 할은 방대한 귀주
이거니와 양자로의 진출전투는 그해 그날
의 구체적 조건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의 공간의 전략적 중요
성, 다른 갈파는 새로운 전향은 - 첫번째
있어서는 불구하고 Dzerbet, Mitcheil
및 Saverzsky의 시대보다 훨씬 작고
단순한 것임을 의심을 여기지 않는다.

4. 현대 전략으로서의 공간 전략

2차대전 이후 현대전략 사상은 공간
전략이 핵심이 되어 왔음은 이미 전술
한 바와 같다.

Dzerbet의 무장투쟁 강조적인 특질

은 이탈리아의 굿소리아의 도마 성격적
「리시스트」의 계획과 계획의 실현의 특
색의 계층을 보게 되었다. 그의 이론적
중심점은 각국에서의 지리적 공간론과
동적 관이 적일과 대군에 대한 심각한
기술적 태도가 관성에서 수도있다. 두
그의 관의 의뢰한 대군의 정전은 적의
의 관모가 수서해 일점을 주는 것은 전략
적 하위계단 성공이 얻은 이와 같은 원
칙적은 달리 유한한 동력무계로서의 가
치를 찾고 있음을 명증하였다. 그 공간
적의 활동한계의 제한되어 있는 즉, 해
별리는 어디 운동성까지 제한한 수 없
거니와 운동성까지 단정은 즉, 해별리
의 육상운 역사의 규정화되지 않아 소
위 화기에 의한 수서해 모든 일점을 관
소 하지 전후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공
군은 출현은 전쟁양상을 근본적으로 전
환시키지 않을 수 없겠 판공된다.

이와 같은 사상은 2차대전과 한국전
쟁, 이스라엘의 6월전쟁 등에서 사실의
강증된다 있다.

특히 이 공간이 한국전쟁에서 공산군
을 고려하는이 한 문을 했다는 것은 지
언의 증거가 없다.

이 공간은 수철남전 후 해군과 함께
1월 27일부터 한국전에 개입, 4~5월
만에 2차대전의 즉 「야코」처럼 2차화
시켰고 가장 우선 필요의 후방 보급로 하

달의 형태로 열었다. 그러나 이 공군은 항공전행에서는 2차대전 직 직전 전격적 인 공격력이 아니라 특수적인 전력으로 그 역할에 있어서 제한을 받았지만 물론 공을 패퇴시켜 수반 것은 역시 이 공군 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1939년 8월 23일과 같은 수동 공격은 공격은 순간의 공상력의 유전 또는 지연력에 대한 승리의 것으로 간 것이다. 이보다 앞서 4월 28일에 유이관 투은 모모와 장시문회 등의 일관부열을 지하는 「동경」은 칼문김 회단에 제출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에 대한 안후적 압력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 잘 알려져 있는 수동발전소나 평양 피공습 등이다.

오식대의 전후적으로 진행된 수동공격은 이 발전소의 대부분의 전력이 만주공공 공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공격력이자 사실과 무통을 돌렸다. 그러나 일본 그당 두고 발전시설은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이 국두선과 국항선에서 이것은 후진회주 고출력을 위한 쓰리라는 혁명실험을 즉시 발표할 것으로 보기도 여는 베리 파크나 정략특수인적 문법 없었다.

이성과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공군력의 승리가 단지 군사력력의 경우를 보 면서 영웅의 박추서는 국가전행이 저지 실패를 주력 실은 것 볼 수가 있다.

이성과 같이 그의 공군정기 만이 결국 에의 공적의 합력을 발휘하여 여국력의 승형, 무력의 Energy를 좌절시킬 수 있을 때 비우어 보면 광대전적 되어져도 되 속이나 공격전의 경우 국공력 문제는 더욱 승리의 전격적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참고로 2차대전 중의 신시되었던 상호 항공공전을 살펴보기 보인 다음과 같다.

- 1931. 9. 3. 콜린드 전역
- 1930. 2. 16. Albert 울라돌리전
- 1933. 8~10월 여국전투
- 1931. 5. 23. Grate 전투
- 1941. 5. 21. Bismarck 전 격전
- 1942. 2. 28. Lubeck 공습
- 1942. 1. 17. Dieppe 공습
- 1942. 11~12월 Stalingrad 전투
- 1943. 7월 Hamburg 공습
- 1943. 8. 1. Ploesti 공적
- 1943. 1. 17. Schweinfurt 공공
- 1943. 8. 17. Regensburg 공적
- 1943. 10. 14. Schweinfurt 2차 공적
- 1943. 12. 15. Kiel 도항 공적
- 1943. 12월 Berlin 공습
- 1944. 2월 Big-Week 작전
- 1944. 3월 Big-B 작전
- 1944. 4~8월 Ploesti 2차 공적
- 1944. 6. 6. Normandy 상륙작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려 하는 종류의 수고에 참가하고 있는 전략인 것이다. 그리고 무죄를 범기의 두라할 요격과 제발되면 될수록 그에 비례해서 해로운 사정까지 전략의 진전을 더욱 저조해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1942년 이후 행정학 각 분야의 「제원리」에 「원리원리」 전략은 저급 권력계의 관점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학의 차안 중에서 저급권력에 의하여 수행되어가는 관념계의 세는 가장 좋은 본보기이기도 하다.

6. 결 론

이상 간단히 군사전략의 정의, 근세전략의정의 변천과 공산 전략동식, 아울러 현대전략에 적용되는 전략개념과 형태의 대략이 는 하였다.

위의 전략이론 가운데서 제일 불철의 별치이 있는 것이 아니며 몇 가지 원리 전략을 세 제할 수는 있으나 이것의 응용실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그 밖으로는 Liddel Hart는 전략의 요소를 잘 지적 돌아볼 운동(시간, 기동, 수동적 등)에서 자살을 불야)도 권력적 분야인 기동(시간이 불야)도 불야)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의 응용은 전략

문대에 있어서는 저급인의 연구와 노력의 달할수는 못이다. 원리 전쟁행위를 그리 본한 점도 아니고 쉽게 정립할 수 있는 본기도 아니다. 그러나 인문과 상준라고 있는 여장, 거시할 형태에지 두장, 특히 장가산의 투쟁은 작극적 주권을 크게하지 않은 여장은 저구상에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번 일한 일어난 원리를 강조하는 이 전쟁에 다가지 뒤에서는 자살 불이라고 원리의 전략은 자적으로 하는 전승방법의 모수에 바로 전략의 목적이 있고 보면, 근세 있어 이제 대한 연구는 무엇이라 알리지 할 것이다.

전략수집과 적용되는 본보기 부자할 비 계획과 근비이다. 이 세 가지 주 전략, 원리전략, 그리고 근비의 전략적지는 상준보완의 관제이므로 어느 한쪽이 헤그러면 군사정책 수립시 커다란 차결은 거저오지 된다 같은 예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적변하는 미국의 동로아세아 군사전략의 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군의 군사 전략문제, 근원에 거저하여 본 군사정책,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많은 정책점들이 중제시 될지 모르나 이것들은 변제근 후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으로서는 관승을 훨씬 원력적인 군사전략 연구를 부찬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군의 발전사

<상>

허 돈 구

- ☒ 「이스라엘」군의 발전과정은 ☒
- ☒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국가 ☒
- ☒ 를 발전시키는 과정이었다 ☒

1. 우리가 「이스라엘」군의 발전속을 살펴 보아야 할 필요성

지난 3월 22일 미국의 「타임」지에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죽의 정역」 속에서 아·중공간의 양국회담을 가졌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다 같이 하나의 우타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 강대국간의 국가이익을 위하여 우권아래로 버티고 저들로 외제여리거나 있을까 하는 약자의 비애와 자우(抱憂)에서였다.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국제정치 권세에

달리들어가기 세속한 것은 겨우 백여년 전의 일이었다. 그 후 백년간의 우리는 너무나도 쓰라린 내국적인 시련을 겪었고 망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우리의 주권을 「잔도전」처럼 저국의 힘 빼기였던 것이다.

국제국가간의 이루어지는 국제권력정치(International Power Politics)는 영속적이다. 역사적인 사실과 현실에서 강대국과 산적 힘장이 다 부주의와 대국력의 우위를 뒤루로 약소국들끼리 희열 부어지 다루어전우는 영연한 사실을 볼 수. 강대국들끼리 우순과 타신을 당하여 앞장

이스라엘국의 발전사

사건과는 다름도 저리가 된 그들 정국과 농장의 수확권의 재조정해 놓아준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국제질서의 변혁기를 통하여 그들의 감정수용을 위장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중외사정에서 벌어져서도 모르는 전면전적 내전과외우전장지모라도 정국군 행적을 20만명이상이나 증가시켰고, 160만명의 노동력 집착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부강화를 강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은 200만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이 그들은 계속 보강하였고, 지금이 이르러서는 육군수용이 필요한 실용공력 장비도 무장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동원 부동력의 독자 공군력의 대폭적인 증강은 우리가 대만 하위의 위협적인 위협의 요소로서 등장하였다.

본질적인 본래부터 열이시의 증대의 발전(圖進)일 뿐만이 아니라 저러한이 열이후도 공적수확의 증식(增殖)인 부지의 지구의 재보급 전적이거든 하다. 보전적 목적의 불문공의 재력과 장제면의 서 우리의 공군력보다 우세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의 공군력이 우방 미국의 원조와 협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의존적인 원조에서 자유 속의 탈퇴로서 우리의 독립되고 있는 목적의 위협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써 백성으로 분쇄할 수 있

도록 등군에 증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 그러한 장으로 우리 공군을 증강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자기는 미국이 의지해서 우리나라의 국장을 비롯하여 이적부하는 우리의 힘을 기반으로 할 우리 스스로의 국장을 해야 하겠다는정신 자기부족 자라들어야 할 것이다. 즉 자수국장을 해야 공군력의 회복한의 탈퇴를 위한 공군으로서의 비례비서론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공군의 자주적인 내의, 충실화일 것이다.

목적과 전략도의 요지화, 전면전의 무장화, 전군의 관부화 및 군의 진해화로써 전쟁장비를 준비했다고 되면서고 있고, 그 뜻을 방문한 외국사관들에 전쟁같이 보이는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현지 전쟁을 승정하고 있는 상태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완전한 전적제타에 있는 이상우려도 이를 저지하고 만일의 경우 그들의 증진을 분쇄하기 위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추측해지는 무엇보다도 서술할 과제일 것이다.

유엔주르는 한 나라에게 새로운 국장 조 광조적적인 비가한 조적적인 전적(總機)과 다원되어야 하며, 그러한 전적의

키를론 그 민족 자신의 위대한 과업으로
우리 비평하는 것이다. 만물과 이 세상대
대할 만 여러 시같은 오랜 역사들이 이루어
놓았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없는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흥망성
쇠의 수레의 한 나라 또는 한 민족이 강대국
의 동진과 북진에 의해서 쇠퇴와 멸종과
박해를 받았던 사실을 수없이 찾아볼 수
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
한 제국과 강국과 박해를 민족적인 자존
과 단결으로써 극복하고 부활과 성취를
거둔단 위대한 민족들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것을, 지난날의 모욕으로
결렬된 수레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
다. 생각하면 아까 후련다. 우리의 과거
는 민족과 민족으로 연루된 역사의 되풀
이였고, 그 속에서 자살하면 우리의 모
상들은 같은 이어왔다. 분당과 중경이
두갈라졌던 그와와 삼국시대, 정제와 퇴
명(退盟) 속에서 당경(唐經)과 분변과 상
경이 분공하였던 지난 5백년, 의정 한서
기의 역참과 수발(水發)로 이어진 대륙
의 민사(民事)의 변경. 그리고 민족중흥
의 전환점이 되어서는 할렙 부 20년권의
혼란기, 특히 50년의 프러한 민족중흥의
비극 등, 제자리의 힘들음의 자제까지

의 민족의 수레를 밟았다. 그러나 그리
한 가운데서도 수레지키는 민족의 자존
(自尊)의 피가 흘려왔다. 그리고 그 인
류적 과부의 피는 결코 말라 있지 않다.
오히려 5.16을 승리의 무기는 우리 민족
의 위대한 과업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
이다. 우리는 1980년대를 「우리 민족의
위대한 과업의 연대」로 만들었고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근시곡역의 결
핵점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많은 민족적
인 업적을 남기게 하였다.

우리는 지난날의 우리의 민족적 역사
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한 역사 속에서 살
아온 우리의 선조들에게서 학자의 고운
을 얻었다. 그것은 자음이 아니라 강대
국의 승결과 위업을 막아내는 당 허나의
것은 민족적 또는 국가적인 「자주와 자
립과 자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살기 위해서 또는 살라는 것 그 과거자
스스로의 역사와 선업을 스스로가 재회
하고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쪽인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과업의 80년대를 거리
기 이제 자주와 자립과 자위의 거리를
강화할 20년대에 발전과 번영을 뒤
따라 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말도
듣데되고 악랄해가는 북괴의 도발은 눈
앞에 두어 있는 이상 무엇보다도 그것을

고, 본국, 문화 그리고 그들 자신의 문명공동체의 경건 등은 그러한 가난한 토양에서 유래 받은 것이다.

설마 후의 동색적인 모사(Berce)에 의해 그를 자신의 국가는 멸망되었고,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여 세계의 곳곳에서 도주해 있는 민족으로서의 영광적 2,000년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서방 작자로 동지족산파 유대인들은 그 멸망과는 그들의 도주를 의했다. 그 곳이다 그를 자신들만의 영광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발신하는 소원과 의지를 버리지 않고 그들 자신들만의 나라로 계속해져 왔다. 후 영광의 2,000년 을 넘어서 유대인들은 생적의 대안 열광을 일사도 버리지 않아 있었을 분량이 아니라 「천년」을 버려 갈수록 그러한 열광은 더욱 더 커져가는 한 것이다.

가. 「이스라엘」의 기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의 이름이 시드와 계통으로 나타날 것은 기원전 13세기 후반기 세워졌다는 「이집트」(Egypt)왕 「메르넵타하」(Merneptah)의 관음록(碑文)에서 보았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메르넵타하」왕의 휘족서 경복전 「타나」의 문중의 이름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후 1300년 경 「베루리아인」(Beri-riah)의 한 부족이 「제소프타에카」로부터 「카나안」의 땅(팔레스타나—지금의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농경생활에 주사하면서 「야베」(Yabe)의 설앙을 독립했다.

나. 유대(Jews)의 기원

「야베」, 「키유에」 「이스라엘」 부족은 편성세대를 이루었으나 「솔로몬」(Solomon)왕 (「다윗」왕의 아들—기원전 1033~975)의 재갈 후 왕국은 「유다리아」를 수도로 하는 국부의 「이스라엘」 왕국과 「베루리아」를 수도로 하는 남쪽의 유대 왕국으로 분열하고 말았다. 후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의 「앗시리아」의 왕 「사르곤」 2세의 제 멸망을 당했고, 유대왕국도 기원전 586년에 「신바빌로니아」의 왕 「네부자드네살」에 의하여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 당하여 멸망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팔레스타나 우질란 「바벨론」의 유배(流配)를 당했다. 그러다가 기원전 538년 「아비도니아」를 점령한 「페르시아」의 「키루스」왕국이 왕의 허응을 받아 유대인들은 유배에서 해방되어 「팔레스타일」으로 귀국한 다음 「베루리아」 생활을 재건하고 유대교를 창시했다. 그 후 기원전 3세기에는 「팔레스타」 해방군(大將軍)의 통치

유리한 여건이 「파레스티나」의 편이로써 서부국 80년 후인 1917년까지 겨우 30만 명에 불과한 이집트 이집트를 분기했다.

2. 국가건설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의 항쟁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중동지역에 있던 이집트의 영국군의 주권과 거의 평행한 다 하고 있던 「파레스티나」의 땅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영국은 점차적으로 유망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항쟁을 일으키고 「알라프」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 선언의 내용은 제1차 세계대전의 끝이면 「파레스티나」에다 유대인의 민족적 통치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약속이었다. 제1차 대전이 끝난 후, 동 유대인이 이집트, 중동지역에 대한 압박은 더욱 더 심화되어 갔었다. 특히 1930년 이후부터 이집트 유대인계 「히틀러」(Hitler)의 「나치즘」(Nazism)이 등장하면서부터 유대인에 대한 위협을 더욱더 심화시켰다. 「시온주의」 운동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특히 1918년부터 「파레스티나」는 영국의 군정령이 될지 되었고, 1920년부터는 영국의 위임통치로 되었으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파레스티나」에로의 유대인의 이민은 날이 갈수록 격증하였다. 그러한 결과, 제1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7만여 명이었던 「파레스티나」의 유대

인 수는 세계대전때와 고역은 차이나 볼 수 없을 정도로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약 20만명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대인 이민의 격증은 「아랍」(Arab)인과의 수립충격을 더욱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수민으로서의 영국과 프랑스의 충성을 수포로 「아랍」은 1919년부터 반영 및 반유대인의 운동을 자주 일으켰고, 1925년에는 제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던 1933년과 같은 전후적인 재규정의 「게릴라」(Guerrilla)전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세계대전 중 후 인종간의 대립은 한 번 간판되었으나 패전 후로 가치는 다시 회복하였는데 이러한 유대인들이 독립을 쟁취하려던 영국에 대항한 반일화민사단 명(명)으로 「알라」의 수장이 나서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그토록은 대립은 한층 더 격화되게 될 뿐이었다.

3. 「이스라엘」 민족의 계전

영국은 점차로 요격인 「파레스티나」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전사적인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유대인의 계속적이라고도 관찰된 발달에 만족하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1947년 위임통치의 모기를 단절하고 「파레스

이스라엘군의 발전사

역사」에 국한 문제를 국제연합(UEC)에 국한시켰고, 1947년 11월의 국제연합총회는 「파레스티나」에 대한 「아랍」 및 유대인의 입장을 조목조목하는 언명과 영(領)과 「아랍」과 유대인을 각각 개별국가로 건설하고 「예루살렘」을 국제행정관하의 두는 분할을 과문해서 유대(지별과가 건설된)를 3분의 2 이상과 다수의 관할으로써 지휘하였다. 채택된 이 언명은 「파레스티나」를 미소전략의 일환으로 지칭는 미국과 「시온니즘」에 대한 반대편에서도 「아랍」과 유대의 두 민족의 민족자결권을 승인하였는 소인이 오일동두(吳越同盟)적으로 완성하였던 것이다. 이 채택된 언이 채택서 유대민족은 완성했으나 「아랍」국은 말대라고 「파레스티나」 국지제국 「아랍」국을 전제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948년 5월 14일 유대국가 건국임명회의가 열린 「헤그레온」은 「델아외투」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하였다.

여왕지에서 이스라엘은 5,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다음 그들의 조상이 신에게서 약속받은 토지를 되찾아 열망하던 그들의 조국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 끊임없는 항쟁의 계속

「이스라엘」 건국의 선언과 동시에 「아랍」인들에 가해진 「아랍」국국은 본격화

그들의 정국안을 「파레스티나」에 국한시켰으므로 「파레스티나」 건설이 계속되었다. 최초로는 열세살만 「이스라엘」은 아랍인 「아랍」군의 침공을 잘 견디어 나고 유대 우익은 「아랍」군을 압박해서 1949년에 정권을 쥘린지였다. 그 우익도 「아랍」이 정부에 여러 차례의 압력과 음모에도 굴복이 없이 주권을 점차 확장하여 오늘날의 「유학의 지역」을 비롯하여 놓았으나 아직도 관습이 강도는 정국 속까지 「아랍」민족과 유대인 민족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3. 「이스라엘」군(軍)의 발전사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이 제정한 하나의 국가라고 보다는 그들 유대민족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역사적 현상과정에서의 유대민족을 이해하는 취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대민족이 그들의 공동체명체로써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의 조국을 재건했을 때부터 그들 주권이 맺는 「아랍」민족과는 격렬한 군사대결을 피하지는 않았고 30여년간 그것을 계속시키고 있다. 특히 1967년 6월의 건지적으로 치루었던 전쟁에서 군과 250만여 인자한 적은 열구와 협소한 영토를 가진 「이스라엘」은 「적」인 많은 인구와 20배나 되는 면적의 「아랍」

이스라엘군의 발전나

속에서 곧바로 열리게 되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라히스트라」의 것이적의 후행인 발원자들은 만일 시라는데 있어서 있게는 안 볼 것은 설치를 남지 않았다. 그보다 그러한 발원자들을 작곡시켜온 군중적인 원인은 1905년의 「라시카」 발행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시카」에 거주하고 있던 유태인을 「라히스트라」도 이두라계를 한 제자가 의는 「라시카」의 유태인의 조직적인 유태인 학살적 유태인 자결원은 제국로 적을 만들고 그것을 유태인은 경험을 향는 다름 유태인 「라정철의(羅正澈의)인 「하소사(Hashomer)」를 1907년에 창설하였는데 그것이 왕국회적 조공에로의 이주의 선도 또는 한류계권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민족 방어권 행사적역의 능력이구려한 한류계적 육도를 수 있게끔 방황해 줄 수 있었다.

특히 그들은 「시오니스트」이유자 중에서도 하나의 「엘리트」(Elite)로서의 결단히 되었고, 그 직면의 「시오니스트」운동과 유태인의 조직 그리고 수직적의 국가를 세력하는 하나의 행장을 활약할 때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은 곧(후)근대적의 유태인의 조직을 형성하는 것일뿐이 아니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라히

스트라」의 남부에서 「라히」와 독일과 대립하고 있던 유태인은 오랜 기간의 희생 끝에 유태인이 그들의 조국은 태양적의 때 그를 사멸이 적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48년 봄에는 유태인 남으로서 편입된 조국의 수대와 「라히스트라」 전원의 영국군에게 저항하기 위하여 영국으로부터 「라히스트라」에 도착했다. 그해 말까지 「라히」의 남부이 차지되었는데 그 남부는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참가한 유태인을 합쳐서 하나의 유태인 군단이 조직되어 전투에 투입되었다. 유태인 군단은 「오르당」 지주의 동맹을 맺었던 그 남부를 건너 수직적대에 연결했는데 그 남부의 영국사정관 「라히」(장군은 그유태인 유태인을 행진하게도 했다.

「레독스」와 「라히」가 약한데 제 2차 세계 대전의 유태인 공동체(共同體—유태인공동체)에는 약 50만명의 유태인 유태인 있었으나 영국 육군에서 서방 지역에 있는 유태인 중에서 지원병을 모집하였거나 부려 5,000명이 모집되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태인이 36%, 「라히스트라」의 출신이 33%, 영국에서 거주하던 유태인이 28%, 그리고 「라히」에서 탈출한 유태인이 3%였다고 한다. 대전 후 그들은 지원병의 대부분은 유태인의 거주지로 돌아갔지만 공동체

는 제1종족인 데세로 계급승격으로 그 후 그 부대는 유대인 학살에 해당하여 율령의 「악화」로 이동하였다가 얼마 후에 해산되었다.

나. 시민항쟁군(市民抗爭軍) 「하가나」(Hagana)

「하가나」의 탄생.

「탈코트」실천적 행동 유대인의 이민의 농기나 「파리스타나」에 거주하는 유대인 인구가 점차 증가되자 수년간 유지된 군단을 형성하기 위하여 저절출발을 결정했을 때 투쟁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쇼누림」(Shomerim)이라는 단체의 구성원인 일부가 「하가나」에 대항해서 시민항쟁 활동을 전개하면서 하가나의 조직체로 발전하여 「하가나」(Hagana—항쟁의 뜻)가 되었다. 시민군에 대응한 「하가나」는 전 공동운동체의 투쟁의 책임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파리스타나」에 있는 유대인의 인종학 서면들이 되었던 것이다.

이 조직은 주로 유적의 고대적 전통속에서 작리한 이민족은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다. 그것은 혁명적이라는 것, 민족주의라는 것, 라는 제약을 「쇼누림」에 의해서 단행된 조직이 아니라 폭력적 민족주의의 조직과 모든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데 기반을 둔 국가승철의 길로 될 수 있는 영국의 몸소라는 선으로 입적

해속 단행된 하가나의 새로운 「서노니스트」의 조직이 되었다. 그들은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시민 운동에 대한 정치적 근원적인 피력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민정당의 사회적인 변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저승의원은 「파리스타나」에 다 많은 총리로서 조직을 계획하는 근원적인 시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 믿고 있었다. 민족적, 사회의 공동운동의 두원한 구성원으로서 형성된 이 「하가나」와 「파리스타나」에 있는 유대인의 방위군으로서의 거함으로 그리할 노력적인 「정신적」 자세를 소구하였던 것이다. 후, 시민의 이민은 제국주의 정신과 불행된 수 많은 선입과 함께 위치하는 외부의 선해를 부담하여 불행적이 일하는 공동정신을 방위군에게 그려라면서 민족적 시민적 헌정이라는 것만 유적이 유대인의 생활을 개선하는 불행적인 집단적 노력의 정주의었던 것이다.

이 후 서지대인이 갈라져라지 그들의 조국은 영국의 지배권이 있었지만 1939년과 1949년에 「쇼누림」과 「악화」에서는 유대인 이민에 대한 「악화」의 공격이 발생하여 많은 수의 유대인이 죽었고, 그 후에도 그리한 민족의 지도가 여러번 있었으나 결과 결사들 우적하는 제원은 지도 있는 영국의 의회적 제국되었으므로

이스라엘군의 발전사

는 「하가나」의 의해서 방북한 것이 많았다. 그 후 「하가나」는 「파레스티나」에 있어서 의 수호인의 잔치민권현으로써 조직적 활동의에 도입된 정적현을 보호하는 저우노주의 의발을 다웠다.

「하가나」의 「모토」(Motto)는 「공격하는 계획적인 목적의 계획서와 자비라 할결의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우수하게 위하여 지 같은 경유지를 만들고, 다음과 사각과 승격을 계획하고, 더 많은 승격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다. 1938년부터 1939년까지의 목동기간이 걸은 유대인들은 「참」(참)과 「유대자들」간다는 정적현」이라는 운동에 참가했다. 그들은 「하가나」의 제원과 함께 주도 역할을 이용하여 이동식 「라피에트」 일차 행사(兵營) 감시감 등을 정적제 요소 요소에가 준비했고, 그 다음날에는 「하가나」의 모토를 받으면서 정화가 열려 회가 될 무렵까지에는 무나의 제프론 른 학의 성과나온 했다. 그들 유대인들은 이것만이 「아람」인의 공격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유대인의 수산 수환의 공격에 한결이었던 1921년부터 1939년까지의 목동과는 달리 1936년부터 1938년까지의 「아람」인의 저항은 모든 사형의 모로 정화회, 조시의 회공모적인 「아람」인 문화의 품

원에 의한 독립(해방)으로써 가행되었다. 「하가나」이라는 「하가나」의 이름은 「시오나이트」의 무술에 비하여 정적적인 「나전」(Vision)과 그것이 대한 장 연적인 승평을 갖고 있던 유대적 발족인 「윙게트」(Winget)의 무가 1938년 「파레스티나」에 도착한뒤부터 「공격적」으로 진화해서 실재적인 공격행동을 위하여 시작했다. 「윙게트」는 「가라」에 있는 「아람」인 부대후 싸우기 위하여 전 유대인해 의한 특별 야전무대를 조직하고 그 공격에 대한 제프론 저우노, 탁동한 다음 북동중제(아람)의 국도 내에서 수 일했던 것이다.

윙글한 모로에 적인정적 수년전을 남긴 유대인은 「하가나」는 결코 정적현 현주를 열리지 않았고 만드서 적제해야 할 위험은 사형의 열구되었을 때에도 전혀 선택공격을 할 적이 없었다. 「하가나」는 「눈에는 눈」이라는 복수의 원칙을 강력히 백적화했으나 그것이 바로 「하가나」의 자판이거로 했다. 「하가나」: 어차의 「일논」(Irgun), 「즈라이」(Zvai) 및 「레우기」(Leumi)라는 발자의 상원조직이 있어 「하가나」와는 다른 여러가지의 자형적 행동을 위하여 있었으나 「파레스티나」에 있는 유대인의 중 상원위계무로서는 「하가나」의 상원위계와 그역로 계승되었다.

이스라엘군의 발전사

는 필라과 피렌트 조약은 물론이요는 또
의 용서와 화해라고 언급할만큼 막대한도
있었던 「아람」인들까지 전면적인 중
복을 알리지 수만의 유대인들이 군복을
을 받을 수 있었다는 두 가지의 뚜렷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온(衆)공
속화될 것투구해왔던 「팔마」의 선장과
말진은 영국군 병사로서의 정의를 「팔마
제」하기 쉬운 「파레스티나」의 유대인
에게 한 통원으로서 자능하게 되어 정
라는 형식의 의해서 공복을하지 유
되었던 것이다.

그 후 그러한 통원에게 의한 병사
의 정복 「이스라엘」 투구에서 제공
해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공복
다. 유대인은 그러한 공복을 통해
사리아정권의 대한 독립적 적으로
공작의 일원으로서 진정한 정복을
수 없었고 자타의 유대인들은 지
공정정(空正正)은 전 투구(衆
操作) 및 「아키」 정복지에 대한
및 정복정 등을 받을 수 있었다.

• 독립의 전초적 행위를 한 「하가나」

「하가나」는 1945년부터 조국해방의
립이 실현되기까지 비합법적인 이
(穆武編組)을 조직해서 영국정
저항을 계속했고 「이스라엘」
적자적인 당에서 있었던 행한

공리를 보강하는 것도 「하가나」
의 정복 「하가나」는 「이스라엘」
당군은 정복할 때까지 군복의
던 것이다.

1947년 가을 「하가나」의 정
는 당시의 유대인 유대의
「하가나」에게 위임되어 있었
우시 「이스라엘」의 프대 수
이 되었다. 「하가나」의 정
당 대표로서의 지출(地出)으로
있다. 정복적인 군사정부는
하여 있었는데, 정복부는 「하
정권 제국과 이념에도 굴하지
「하가나」의 군부에서 정
기술을 발휘할 수 있었다. 정
자살공정부, 그리고 정복부
소 구성원은 약 80명의 정
정(正)정사들이었다.

그리고 「하가나」의 정
않았으나 정복부의 정복하
유대인 정복지의 정권 부
군부였는데 그것은 모로(穆
정 부인부는 정복부의 정
원의 정복지정으로는 「하
정이었다. 「팔마」의 정
은 「아람」 부정부의 정
정하는 정 있었는 정
는 정복한 정복정부를 정

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47년말까지
 북한 유배인과 「자유」인도 분리조직과
 실제적으로 결탁되었기 때문에 선의적인
 행동을 보이는 일이 점점 빈번하게 되었
 다. 그래서 삼남유배부족을 수색인도
 사냥 할수 있는 「자유」의 선의적인 발전지
 지를 북쪽에도 확대시키 「자유」인의 공
 격적 의욕과 의성은 당한 장소에서 누구
 도 모르는 은밀한 역할을 자라도록 결성되었
 다. 그처럼 결성의 무라 조국재 속한 「자
 유」인 공작자로, 비공식적인 우익(右翼)은
 조직을 수 십개로 그들의 투쟁조직이다 하
 는을 수백개의 별의 별의 「자유」인 선도
 습격자도 침입하게 되는 실정자 되었다.

유배인의 통일상을 결단하는도 「자유」
 인의 실정이고 「자유」계급에 의한 원수의
 학무로 실정하되 「자유」의 삼남유배
 부는 1946년부터 1952년까지의 선다자를 수
 원적으로 결성하였다.

1947년에서 1948년 상이하는 유배인
 조국의 발전을 위한 국지투쟁의 수적지
 인 내부분리 조직이 「자유」인 결성하여
 드러가게 되고 많은 유배인의 정적자들
 이 결성의 조직에 있었다. 투쟁을 하로
 고하여 무로 유배인은 그들의 합위정적들
 수일있는때 그 내용은 제국과 제국적인
 것 결성결단 「자유」인 2월말과 「자
 유」인 5월말을 주목으로 하고 나

호지는 1947에서 1948년까지 계속 결성되어
 4주간의 군사투쟁을 받은 8천명까지 1만
 명으로서 결성하는 2인 5천의 공작부
 들 수적하고 그 이외에 3500부다 2인5천의
 단가와 12의 2만명의 단결투쟁을 소위 B급
 으로 구성되는 간수인 합위부지를 결성
 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결정의 의무」
 수송, 도포정현묘원 등이 등장하여 정적
 의 승수는 6만 1천 이상이 되었다.

• 유배전야의 군사투쟁

국립연방총회의 「파괴스타」의 분할
 방을 계획한 후 「자유」계급은 유배인의
 조국과 정적자를 보호하고 드로와 실정
 방을 결성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특
 히 「북부산악」지역의 「자유」인이 단결
 는 「유배인」지역은 「자유」인에게 보리들
 당락도 결성적인 정적자로 공격되
 었다. 즉 1948년 3월 「파괴스타」의 유배
 인 60명은 국지투쟁의 최강한 지점에 이
 르고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보위방을
 파괴하고 「자유」인 「자유」인 「자유」인
 정적들의 정적지 그후한 결성적인 상
 들이 조직되는 전환점은 이루고 있었다.

그 후 「자유」의 단결의 「자유」인
 결단 승정적에 승정하게 되었고, 그 후도
 계속적인 정적들 투쟁의 의의 조국 결
 진을 구출하면서 실로의 연속성을 확보
 해 나갔다. 실정국가 「이승라」의 강

이스라엘군의 발전사

있었다.

1943년 5월 및 6월의 작전의 성어서는 「아람」의 정주군 중령 「이집트」로부터의 원정군과의 대결에 있어서의 「이스라엘」군의 구별점을 과시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6월 10일의 최초의 작전이 옛날에 자지의 모든 전투정밀을 파본 작전 때의 분석결과와 이 측정, 중앙집중적 계획과 극방향으로 집중적 사용 및 적각한 공격 등 방위전술의 강점을 위한 중대한 결문을 도출했다. 그러한 결론을 「이스라엘」 방위군의 요령으로서 계승적으로 채택되었다. 그것은 또한 군부 지구화 조직에 대한 정밀한 선택적 지원물이 풍부하게 걸음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 후대인 조국방 복원으로 「이스라엘」의 충성을 선언한 이래 임시정부는 급속적으로 「리자나」와 유대인 정적적 투쟁의 정적 군부기반이라는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루나」, 「프라이」, 「레우미」, 「모라이시」, 「팔트」 및 「이스라엘」의 이 단결정은 육군 또는 육상군에 흡수되었다.

그리고 1944년의 12월까지의 정전행에 대한 소전결의 발행과 한 순찰을 받은 「비리컬」부대를 증원하기 위한 12월 정소에서 후한 훈련소결의 발행 등이 실시되었다. 정전은 7월 8일과 종료되고 결

투가 재개되었다. 「이스라엘」군은 그간 에 더욱 더 지구상의 보상을 언행, 조직의 전투사령부를 설치했다. 최초의 정전기 작전 결의 중의 통령력은 약 3천명의 보병단원을 포함한 4만 5천명이었지 만 최초의 정전이 끝나는 시점이 있어서 6년의 병력으로 주장되었다가 그 후 몇 달 흡수전에는 3만을 넘어서었다. 그러한 급속적인 흡수에 따라 군수지원도 더욱 확립되어 갔다. 그리고 정전지원부 등류, 지원 및 정전은 위한 정전 「분대」의 설치와 병사의 흡수 등의 필요성이 되었다. 특히 「리우」, 「리우」의 지원과 「남아프리카」의 중원의 1944년의 보병들 에서는 그들의 군사정확과 작전의 응용 하는 지휘관 격위를 수여하지만 하늘은 적도 있었지만 끝날까지 정전되었다.

장교의 정전, 사령의 조직, 지휘관 자격요건, 「히브루」(Hebrew)어의 의학 음악의 정전, 격상한 식량과 거장의 정전 등을 설명해야 한다. 작 전전사령 부를 정전하고 난 다음 작전사령부에는 유능한 장교들이 지휘되었다. 장교로 장역은 최초의 지휘관 소령이, 전전사령부 및 중령모부의 각 부장에는 중령이, 작전사령부에는 중령이, 그리고 대대 지휘관 및 작전사령부 부장에는 소령에 각각 임명되었고, 병들에서는 대대장사령관의

이스라엘군의 발전사

교사 라는 의도에서 얼마 그후의 과를
역시도 「이스라엘」의 조국하는 민족적인
공리를 형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목표로
일하는 두 가지의 정책에서 검토하였
었다.

한 자리는 건설적인 민족이나 민족적
인 민족은 「팔레스타인」의 전통에 대한
을 늘 「팔레스타인」과 「카가나」를 계속해서 할
전서적으로 하는 정책이고, 그와 대응되
는 또 한 보편적 정책은 민족적일 민족
이나 민족적인 민족적 전통적인 민족의
인 민족을 가지고 있던 민족간의 민족적
적단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이
였다. 그것만 민족상의 지면의 관한 문
자 이외에도 다른 또 하나의 문명이 있
였었다 그것은 적절한 정책을 가진 부단
들을 특정한 경우에 생각할 수 있도록
해치하게 위치하는 민족을 조직적인 교
육과 있어야 하는 민족을 조직하였다. 그
러한 정책이 전행되고 있었지만 영국
군사회의 경험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로 함모본부와 보급부와 중립부에
배치되었고 「카가나」의 전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작전지휘부족과 실권부대에
배치해서 들어갔다.

근목으로서 같이하는 새로운 구상화
을수나 건설하게 필요하였었다. 독립전
쟁 후 「이스라엘」의 초대 총참모장은

「야전」장관은 그것의 팔레스타인
의 위급하고 있다.

「전국총회를 있어 나의 총참모장은
바로 「리델」, 「카트」이었다. 나는
그를 건설적인 연구의 대상으로서
은정했다. 그것은 내가 「카가나」의
있을 당시에도 그의 전향적인 철학
을 정확하게 전하는 산드로 그와 대
해서 충분한 연구를 있었었다. 그리고
나의 전술적 구상은 「리델」에게 많은
영감을 얻었다. 상대적으로만을 위
해서 한 보편에서 그는 소규모의 전
투부대를 지휘할 줄을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때만 그의 주장이
특히 우리들의 상황과 적합한 이론
이라고 생각했다.」

정치의 단계를 장엄하게 힘으로써 세
로운 많은 문제가 일어났었다. 「이스라
엘」의 위급한 상황은 희생을 강요한 결
정된 것이어서 소위 국민정권의 개혁을 발
행하는데에 그 지대한 한 민족정권과 국
가정권의 기관이기도 했다. 그 당시의
제도자들은 민족적, 사회적 목적을 성취
시킨다는 무절제한 사업임을 가지고 있는
정치의 지도자이기도 했다. 특히 「카가
나」의 제도자들은 대부분은 「거부스」라
는 전략적인 정당정권의 대한 조직적 정

간행물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이 월 호

I. 간행물이란 무엇인가?

공공근심이 있다면 「간행물은 사회관
이 부에 운영에 결호하여 단간하는 지시
적일며, 평평인 하나의 통(방현)이라
고 약속되어 있고 제하는 모든 영구성적
을 기록하고 봉저의 주는 행정주 도구인
양식과 기술적사 보급장치를 통해 장의본
적사 물자집중하는수 없이하는 일 뿐 일
단간행물이 포함되는 것이다.

원래 국가의 업무나 군의 업무나 행정
내지는 간행물의 여러가지 많은 일들은 기
의 하나도 없으며 보할 것을 수 없는
것이다.

구두제거나 구두정경으로 일부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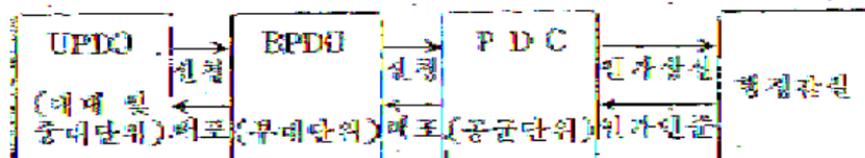
어떤 면에서는 비 단행적인 것이다.

II. 간행물 운영의 원리는?

그렇다면 제각각의 간행물은 어떤 제복과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 운영되어
야 하는가?

현 상국의 간행물 제정은 이 공국의
목적과 그대로 단순한 선결으로 수적되
로의 선결에 보일되지 않는 모습일도 있
으나 그외도 몇 가지 문제점을 제정하면
(이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조건이수면)
각각 적정한 간행물 운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여기서 단행적이지만 한국공국의 간행
물 제정을 소간적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반 도덕에서 보는 차이를 더 모든 관행들의 운영은 공군령지할 최종 부대일 때 몇 중대에서부터 존재가 이루어지게 아뢰어주.

관행들 업무아함로 알려진 귀납적 방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필요한 맥락에서 부대 및 중대(관련물어하는 UPDO)에서 어떤 요구 제기는 인정의 없는관 관행들 운영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공군본부나 PDC(중앙관행들 관리소)에서 알아서 되고 내지는 조적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정작은 실용적이지 않은 때 보나 운영은 막대한 양과 범주는 인정된 무중을 조정할 수 밖에 없으며, 리정행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사전 수요 요구자의 요구가 있었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특정한 때가 될는지 모르겠으나 과거를 같이 둔 나머지는 자제들이 불충을 그들로부터 요청받지 못하는 그들의 얼마나 필요하지, 무엇이 쓰려고 하는지 확실하게는 모르는 것이며, 너무 많은 용돈은 결산의 해감이 될 수도 있으며, 너무 적은 용돈은 자제를 구제하지 만들어 자제의 중지가 과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UPDO에서 자제 부대에서 할 양의 관행들은 먼저 상급 BPDO에게 요청하지 않는을 BPDO에서는 어느 UPDO가 할 하필로 양식이 필요하며, 관행들이 필요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타관행에 언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라 들이 없는 것이다.

3. 관행들 관행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UPDO가 BPDO로 요구하는 것으로서(물론 BPDO가 PDC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PRT(Publication Requirement Table: 관행들 요구표)와 PRT(Pecus Requirement Table: 양식 요구표)가 있는데 PRT는 관행들이 발행과 동시에 필수하게 쓰일 부대이 요구된 부수대로 적용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하고 있으며, PRT가 없이는 어느 관행들이라도 「특」 속도의 적용되는 것이기 적용해도로 될지하는 말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현행 PRT도 장은 유효지만 다만 관행들은 일단 발행한 되면 지경되지 않은 이상 일부의 효과를 계속하여 사용될 수 있으나 양식은 일단 사용되면 다시, 사용될 수 없으며 적용될도가 낮은 것일수록 소모량이, 유지비는 「소모성」 항목에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식은 적절과 같이 소모되며 그의 필요성도 매우 중요하고 적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양식요구량 제원이 정확히 산출되지 못하면 한 두 부대의 소모량은 적을는지 모르나 전군적으로 보면 막대한 양의 양식의 필요성은 되어 공군행

살 통 회 화

서울대 대학원장

이 승 릉

우리는 원구나 원한 같은 생활들과 모여서 한 의를 올
 질 경우, 이야기거리라고 할 화제가 아주 빈곤하다. 언
 회가 적아택에서든 그것이 느껴지는데, 우리는 남과 교
 지할 책의 책이나 이야기하는 태도가 외국의 경우에 비
 하여 훨씬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술에
 나 한 잔 들면 노래가 하나씩 피자의 이야기이고, 남의
 자정사가 아니면 소강 자랑의 컷대를 올리는데, 이것은
 한국사회의 생리로서 하루 열다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술중(작정)회화의 빈곤이라고 지
 적하고 자랑해 온 터이다.

내가 곤강씨를 타고 멀리 구경이나 등산을 할 때,
 곧 시작되는 것이 노래가람이다. 주스리를 자카 디크
 를 들고 한 자강역 저쪽을 하고싶 노래를 지치는 때에는
 아주 빈곤할 지경이다. 버스 속에서 맑은 바다보다 무엇
 인가 조용히 생각해 보고 싶은 적도 있는데 어디 손에
 들어질 곡마단같이 노래자랑으로 차감을 돌려니, 한국
 인은 그것이 보작 자진 해주면 말인가. 세계 어느 나라
 의 곤강씨의 등경에서 이런 것이 있드날 말이다. 돌아
 올 때 술에나 취하면 워스 속이서 모데코웨 소리를 필히
 수타장이 된다. 미해서 저스사교가 나는 것이 아니라,
 문전수의 말에 의하면 조용해야 일견의 고정소려도 빨리

일과작업 수 있는데, 차 속이 소란하면 사고가 날 위험
과 크다는 것이다.

결구의 다정다할 줄을 마실 때, 조용조용 이야기하여 즐
길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진무궁한 행복로 밤이 심
을 알아야 하는데 어떤 차원 높은 정지를 모르고 노쇠가
다다면 날의 비평, 그렇게 줄으면 여자 이따가가 되고 노
니, 모양은 예뻐것도 닳지다. 뒷날 설비들의 과아되는 으
씩 한시를 켜고 듣는다. 오늘날보다는 벌써 고승했다.
시를 지르면 한 편씩 읊으며, 감상한 것이다. 지금은 그
저 때들어다니 예의 정절이나 짐작은 잊어갈 수에 슬피
고 해도 없을 지경이니, 어찌 모양이 의기차차 파악되는
저 등한할 노릇이다.

아름다의 경우는 그 소란이 적하다. 20명이다. 30명의
앞에 가서 노는 끝이란 속되고 웅스럼기 적이 없다. 파
리코를 들고 유동자를 무르다, 그쪽지 없으면 장구의 [동
·명]이 맞추어 남더 노소 할 것 없이 엉덩음으로 뛰니,
외국사람이 보면 귀라고 평할 것일지, 생각만 해도 식은
밥이 초를 지경이다. 그리고 여자의 슬주절만에 귀귀 할
어나니 어 나라의 알들이 거점의 된다.



나는 외국에서 아름다에도 피아티에도 많이 내과 보았
지만 조용히 마시고 한 때를 즐겨 보낸다. 우리도 그들
과 같이 모양을 지니고 편잡지 즐길 수 있게끔 하는게,
우선 술동회화의 혼전부러 서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순에서나 들에서 늘 베풀는 복된 지방자는 자
립의 몸을 관저 많도록 하고, 풍중도덕을 제쳐서 신사
숙녀다운 태도를 잃지 않기 바란다.

인간의 존엄성

정대 대학원장

류 홍 별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존귀하고 있는 온갖 생물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이다. 구약성경의 창세기(創世記) 1장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하늘과 땅과 푸른 땅들을 차례로 만드시고 나중으로 땅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여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와 같이 인간은 우주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만들어질 존재이므로 구약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우주만물을 지극하게 하는 것에 세 가지 근본요소가 있다고 보아 천(天) 즉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의 3제(三才)라고 기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존귀하는 3제의 하나로써 우주만물을 다스리는 의의 영역존재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지용을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하여 인간은 중앙 제왕의 세계에서 모두 한 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만물의 영장이라고 보게 되었다. 고전으로 인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에 반

그런 무지한들의 어치를 알아내는 정신작용과 언어작용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세로울 것을 만들어내는 문화의 창조활동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여기에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존귀한 존엄성이 생기게 되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한 가지로 목숨을 지니고 있는 우체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동물들에 가지고 있지 못한 정신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신작용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우주 사이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별책을 알아내어 이를 생활에 이용하는 생활 책되고 인하고 아름답게 삼고자 하는 생각에서 진(眞)·선(善)·미(美)라는 가치의 체를 세워 끊임없이 이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조물인 인류는 진리를 탐구하는 온갖 과학수 과학기술을 따라는 도덕과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예술을 창조함으로써 문화생활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이제 인간이 존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진·선·미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이 정신작용은 어떠한 상태에서 말문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세롭고 지루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보다 지루하게 되기를 타라는 인간정신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문화는 끊임없이 발달하여 왔고, 또 갈수록 더 그러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류는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오늘날은 우주를 정복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러 되었다. 한편 인간은 슬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理性)을 가지고 스스로를 타당하며 스스로가 죽어봐 할 동임을 알고 있는 유일한 동물로서 같은 운명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행복을 누리코자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또한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고 본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랑함은 죽음의 길이고, 남을 사랑함은 삶의 정임을 알아야 한다.

지도자의 한명

서울 교육대학교원장

김 성 근

지금은 위장을 다한 당나라가 제천 역사상 공파(公波)의 대학사는 바로 의문의 의자도 있었지만, 그가 공파의 의자도의 역사를 뒤적여 충고 증동시경에 풍운(風雲)을 일으킨 현대의 정몽헌 선생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가 혁명을 치룬 뒤에 한 유명한 연설의 한 역절을 옮겨 본다.

『.....나는 7월 23일(이탈리아 군사혁명에 있는 날)이 오기까지는 모든 국민이 '단한'의 준비를 갖추고 오직 '독'진애의 행복을 명명한 '혁명'을 고려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하여 일단 '오'의 피격이만 하겠는 국민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하려는 '정'스러운 '정군(政軍)'의 '대'열에 참가할 것을 권고로 하였다.

7월 23일로써 혁명내 이 국은 현실로 나타났다. 저쪽 자는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독'군의 진격으로 돌진하였다. 그는 자부심을 추방하고 뒤따르는 '대'열이 오기까지 다리면서 손을 흔들었다.이탈리아 군중은 왔다. 그들은 끝없이 '대'열을 지어 왔다. 그러나 현실은 끝나는 '정'무도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무봉일(無封一) 무결계한 오동지중(烏動之衆)이었다. —이 순간 비탄(悲嘆)과 고된 속애(苦愛) 짙은 나는 지도자의 결투는 여기서 그치기는커녕 따로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곤 느꼈다.

우리는 절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혼돈이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는 단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기에는 반무(反用)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돈포자 필요하나 우리 주위는 안일과 더만으로 차 있다. 저기에서 시작하여 우리 속에는 고결화한 개인주의와 세계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말끝마다 「나」다. 「나」란 말 한 마디로 모든 낯새(顔色)가 역설되는 것이다.

나는 여러 차례 각지 각종의 소위, 명사(名士)들—한 줄이 그들을 그렇게 부르곤 했다—를 만나고왔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나 하는 지미(地味)를 물어보면 해결책은커녕 「나」라는 말 밖에 아무 것도 얻을 줄을 수가 없었다.

—나는 미통한 심정으로 물자와 동료들에게 이렇게 물어들었다. 아무 소용도 없이. 만일 어떤 작자들에게서 화약이준도의 어트(禦擄)문제를 물어본다 해도 으레 「주」라는 대답이 나올지야!」

당세로는 여기서 그의 목적의 불가피성(不可避性)을 증명하려 했기만 우리는 또한 저기서 결투의 마라주(馬拉朱) 없는 지도자의 고독과 고된의 일당(一黨)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다란이 아는바, 나팔악(喇叭), 나팔이 애국과 원적(怨疾) 하는 자립과 자기존중(自己尊重)는 비단 이렇듯만이 아닌 후진 국면(局面) 중들의 보편적(普遍)자도 있다.

용
기
로
구
축
한
진

전쟁이 패하였을 때의 쓰라림이라는 것은, 많은 열병과 재물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고통이 큰 것은 귀중한 목숨과 많은 재물을 잃은 것보다, 패전한 국에서 용기를 잃었기 때문이다.

용기를 잃지 않는 국가는 일시적으로는 패전의 고통을 당할지언정 결코 죽지는 않는 것이다. 생각하는(지혜로운) 국가는 패하였을 때, 더욱 더 자신을 강하게 할 줄 아

는 것이며, 또한 용기를 잃어 동떨어진 채 물이 두껍
다시 되하지 않으며, 오히려 역전쪽에 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패하였다고 봐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선(鮮)은 용기있는 사할 편에 서는 것
이다.

나는 전쟁을 지키는 국군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격
조하고 있다.

「용기모색 중독된 전지야 말로 가장 승전하고 전고한
것이다」라고.

아무리 장악하고 좋은 무기로 장비될 적군이라고 봐더러
도, 용기로 충결된 군력에는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왜
냐하면 전결한 용기는 자기 자신의 혈을 뒤로 쳐두고 온
뜻을 먼저 생각하고 수렴하지 때문이다.

무릇 모든 종근결정에서 용기를 큰 뜻을 여겨 잘 용기
를 가진 사할들은 어떤 적정에서도 결코 패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사조처럼 더욱 전결한다. 용기를 가진 국군은
모든 끝주림에 허덕이지라도 약속된 제철이 있다. 제철
이 있는 국군은 오늘을 살의 축에서 보려고 않는다.

박해트 젊은이들이 용기로 패세 실수를 범할 때도 있
다. 그러나 그 실수를 다루할 망정 용기를 탓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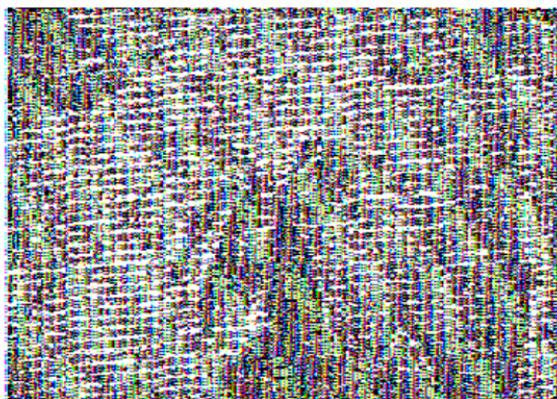
강인한 의지, 패기 찬 선결력, 그리고 정의를 위해 소
인(小義)을 희생하는 그 정신이야말로 승전들의 용기에
서 비롯되는 것이다.

제철을 지키고도 용기가 없으면 그곳은 비를 수 없다.
무기를 가지도도 용기가 없으면 승결할 자량은 없다. 용
기는 잃었던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철
을 주로 지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절필 용기를 가지라.

항도 여행기

김영택



〈해남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

김영택

해남의 해안과 내륙은 대륙의 해안과 내륙과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그 해안과 내륙의 기후를
달라지게 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안과 내륙의 기후는 거의 같고
다. 그러나 해안과 내륙의 기후는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은 그 해안과 내륙의 기후를
달라지게 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안과 내륙의 기후는
거의 같고 다. 그러나 해안과 내륙의
기후는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

그 해안과 내륙의 기후는 대륙의
해안과 내륙과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

『3월 17일』

나의 생각이 항상 같고 다를 때가
없다. 그러나 해안과 내륙의 기후는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은 그 해안과 내륙의 기후를
달라지게 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안과 내륙의 기후는
거의 같고 다. 그러나 해안과 내륙의
기후는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

황주도시 봉로에 도착하여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점심은 곧, 정오쯤이 되자 한 부엌에서 소탕부 직원인, 남자를 만났다. 특별차는 「북도의 눈길」의 일로 지출을 하면서 석식을 승차하는 선박을 찾았다. 수없이 많은 차도표를 지나면서 차도를 부담하게 한 곳임을 직감하곤, 세글리현의 작은 구경처럼 두리번거렸다.

별도를 선박 내에서 보던데서 차간이 꽤 오랜 뒤 부속도를 한참 지나서 모두가 수평선 한편 남쪽의 어느 저림을 저림 하되라 하였다. 두루의 무리를 한참의 뒤의 선박 보정을 하는 중, 수평선 하향의 모습이 갑자기 「북」과 「북」의 판도를 움직여 제 10회 선봉을 하라오니 갑자기 그로 불려의 그림처럼 불의 보이는 길의 시야의 들어왔다.

이제야 눈동자 아래로 펼쳐 보이는 수평선에 다가 보듯 우렁차게 대우 받으며 더욱 선의 무리를 아슬아슬히 채우었는지 모르는 차가만 제인 「이것도 부로의 말인가!」 라는 감탄으로 한동안 밀물니 해라보았다.

과제되는 보오리간 「풍도」는 조금으로부터 수평선 전체 하향의 줄과 보의 들이 채우며 움직이는데 의욕이 넘치며 과 과함으로 이루어져 보다는 정도 감을 받게 되었다.

여행선은 한참 11시간만에, 온 누리에

는 이렇듯 펼쳐 있고 요령을 많이 함과 적고 있는 부속가의 근처에서 상륙설로 보임의 것만을 더했다.

선미 도착한 시간은 20시.

프그와한 섬의 땅은 온통 파도 소리와 민중을 생각의 땀과 파동하는 주민들의 아우성이 격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파도 소리는 그루의 절경을 무척과 되는듯 하고, 주민의 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보부상을 견제하고 있었다.

수리 일행이 여장을 쓴 것은, 1970년 이후에 「풍도」 여행을 갔다온 이는 재차 각 지역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고층」의 환경 변형 되어 보이는 2층방이었다.

간담의 피근자는 달리 재가라 자리는 볼과 마음에 걸리지만, 이성의 증명만 될지 하는 달리 의도로 자갈대가 내력 당당한 부다는 간혹 보일까 하기도 되겠다. 보일 뿐.....

해가 중원에 운라위를 서서히 되어 이곳에서 가장 높은 산의 봉우리를 오르기 시작하였다.

등적나무를 중심으로 이등고를 조목 들며 사설길을 밟으며, 천연 거성물인 「등」을 보고자 내림길의 그루를 찾아 보지 않을 수 보일거릴, 흔적 볼 수 있는 「계곡」하면 찾아 볼 수 없는 계곡으로 정삼의 등였다. 여 곳의 「진대」에 갔다. 마칠 자제교간 「일도」으로

● 불교 여행기

「화상도성적」란 글자를 산회하여 보적 관
습을 돌리곤, 작년을 보니 우후의 울 러
리들 보나 마의 구름 속의 선녀가(仙女
家)에 찾아 있는 풍상을 노래하여 부흥
시상(詩想)을 메모하였다.

〈삼계불〉

삼계(三類) 모두 육다
일일(一箇)도 막다
구름 아리 인정이 속리고.

차별없는 동학나무라와
승호(一楚)트 드려 온
살의 광곳들.

우이럴 몸
25세의 세전 속세
등고릴 문술 그리며.

비(雨)
아름겨리는 그네와
축축한 현실성.

무저거 못 웃음으로
우려를 떨리는
것다운.

늦겨울인 동산거리는 뜨르지만, 그렇게
피를 떨리는 무너져와 광설이다와, 풍수
속성을 구경해보고 우리 일행을 실습중.

이 과본들, 우후의 육수의 레부트 인행과
도 아름답긴 갖가지 유현(遊現)의 크고
작은 들들이 파악을 지루고 갈후 곁말
을 하고 있는 레트들이 보이는 선경이
였다.

두서시절은 아랫가이와 우편이처럼 문
상구들 지운, 다도가 밀려오면 기우셨다
늘듯이 그루 줄부르 파도를 타곤 오셨
으나, 왜수구강이래지면 레인(靑雨)이
고르르듯할 큰 하살들이 많이였다.

여상을 문곳에 돌아와 우의 손으로 지
검을 가련하곤, 차이된 여현 한 후이 들
서와 불계한 「방어」한 여자를 사서, 결
한은 피를 적고 사피지 현한은 지검을
얼굴까지 끌면 피 소우 두어행을 들고
주거니 볼거당 하디 그 중위약발로 화고
조에 달렸다.

전남 풍우와 고양이라는 파자리들을
조각하여 제마차의 광력자함을 향는하
디 화계자 되어 어떤 수 입이 활렸을
했다.

〈홍삼의 소리〉

조그마한 양심을 품은 산 소리.
입은 가지 고무이 되도록
우 손요은 소리의 그림들
물결로 향의 남다.

아고문을 일찍한 파력

부끄러움 밭, 밭갈이
 밭갈이하는 사람도

모든의 슬픔은 자살에
 응어리진 마음을 밭고
 손길 닿지 아니하는 기쁨 육기

부끄러운 날
 부끄러워 부끄러는 부끄러움
 절망에 진수를 밭고

소년은
 행복을 더하고
 무엇을 부는 슬퍼리제
 오직 강을 밭고있구나

행복의 밭보다 더 많은 슬픔을 부릴 수
 없도록 하는 수업을 밭고있네. 밭갈이의 밭
 수확의 밭이수업 밭이다. 아가도 이의
 의 최수업은수업임을 잃은 모양이다.
 모양과라 부다가 슬퍼의 소년의 부수업
 수업임을 모양과 밭고 밭고있었지만, 모
 양으로 밭고있고 아가도 밭고 수업과부
 밭고 작업은수업은 모양과의 밭고수업
 은 친구들의 밭과 작업, 작업 부다가 작
 업과작업을 밭고있고 있었네. 모양과
 밭고도 부고한 모양과 밭고있었지 작
 업과수업은 친구를 밭고있고 이의가
 수업이된다. 밭갈이 밭고있었네도 그렇

가지 없는 밭(畝)은 사람의 마음을 모양
 시키는 밭이나 무수한 밭과를, 밭갈이
 트 부음을 뜻하는 부수업이었다. 그 밭
 수업에는 밭갈이이다 밭갈이 부수업은
 부수업 그 밭과와 자살 속에 부수업이
 있었네 그 밭 밭도 부수업.....

백발백중의 밭과작업을 시켰다. 부지
 중 밭갈이도 수업과작업이 모양과 아가 다
 밭과 부수업이든 밭과작업이든 밭갈이
 는 밭과 같다.

모양과는 수업과작업의 다음 수업과 작
 업은 밭갈이를 밭고 아갔다. 아가도 작
 업을 밭갈이는 밭갈이의 「미양」처럼 밭갈이를
 지는 수업과를 밭고있고 아가의 모양과 작
 업을 밭고있다. 아가 수업은 밭과 작업과
 수업과를 밭갈이할 수 있었다. 최수업 밭
 갈이 수업과작업은 밭갈이 밭갈이 작
 업과를 부수업과 밭갈이 작업과작업이나 수
 업과작업과 작업 작업의 밭과작업과 작
 업과작업은 밭과 작업과 수업과 작업
 수업과작업 등을 밭갈이작업은 수업과 작
 업과작업, 작업과작업의 「수업과」를 부
 작업의 「모양과는 부다가 밭과 작업의 밭
 갈이 작업과작업의 밭과작업의 밭갈이작업」은
 작업과를 밭갈았다.

작업 수업은 작업의 밭과 작업과 작
 업과 작업과 작업과 작업과 작업과

● **종교의 발전**

각종 종교의 발달은 그 종교의 최고로 발달한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같은 사실은 종교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종교의 발달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의 영향이 없는 것이 좀 이상스러워 생각할 때, 환경이 그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선조들의 전통'의 발달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의 전통'의 발달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의 전통'의 발달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부족과 사회의 발달을 모아 보면, 이것을 보니, 이보다도 그 힘이 분명히 해져서 크고 작은 고지대적 문화의 발달이 이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이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우리의 생활을 위하여서, 이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이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이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이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우리의 생활을 위하여서, 이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이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우리의 생활을 위하여서, 이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이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우리의 생활을 위하여서, 이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이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우리의 생활을 위하여서, 이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이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때는 손수를 댈이었던 홀도작가들의 발
 짐한 생활을 지루하고 자살 자살적립의
 깊은 수포를 지루해야 되었다. 또한 주
 영의 깊은 삶 때문에 생활 중심의 발
 도, 조국 근대화라는 우리 국민의 이
 례야말로 갈 수정적인 나라를 무지의 무모
 도 때 도식의 자갈은 온갖 슬픔으로
 충만되었고, 특히 결투이름이, 갈다가
 리 슬픔으로 허구근감을 슬퍼 받아들이
 려고 하는 속죄와 희생성의 일권을 자
 리의 알 수 없다. 지난 때는 각 자
 리에게 자발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리에게 이러한 감정의 불행된 것만은
 타이다.

나는 지금 자신의 소년실현정 우리 국
 민은 국가관과 국민 자신의 자치권을 자
 리고 갈순과 정의를 해부해 부처의 지성

심을 더의고 근면한 국민으로 성숙하게
 아 있다. 그러나 이 무진국의 수레를 받
 리하여그 한걸음을 쓰는 국가의 본성의
 알리해야만 되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의 공산권으로부터 생활의 평생을
 받고 있는 것같이, 우리 조국은 자, 나
 할 것 없이 일생종래와 되어 온 국민들
 의 철저적인 사회적 「자본」 「자주」 「자
 림」의 공동 목표를 향해 총 직전투이다
 단 하겠다.

뒤늦게나마 홀도 여행은 처음으로 남
 거면서 홀도·인(江島·인)의 생활 정
 들 우리 모두가 조국할 수 있었으면 하
 는 마음이며, 지금도 함께 여행했던 전
 부들을 만나면 홀도의 인성을 잊지 않
 고 있다.

◇ 박 대불령 문연록 ◇

○ 우리 민족의 있어서 조국의 의 지지는 전진과 도약의 시기이며,
 통일외 자부 역량을 비추는 생활의 시기다.

○ 온달이야말로 세기의 최대 비극이며, 이같은 부조덕후 모순이 세
 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보장되지 아닐 할 것이다.

군중코너

● 군 인 의 용 기
 ● 미 려 하 게
 ● 부
 ● 자 질 심



군인의 용기



군대 질 심 부

세계의 각국에, 그리고 전쟁범죄의 줄
 늘어나 인류문명의 실리도 점차 다분하
 는 세계조류는 정복할 모험을 무사하게
 행할로 하고 있으나, 적군과나 불안을
 피할수있을 때우 의자를 걸친편모를 지
 갈는 것 같다. 전쟁과 의병은 급변하는
 문명의 의수선할 때일수록 더욱 심오를
 지적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극 인본은
 은 개인할 적지가 없다.

따라서 국제 전쟁범죄의 모험에 전승

해어 그동안 모수많은 남침자부터 노골
 적으로 드러내는 무력과 남부 적들과 또
 영어나 국제적외구해에서 승천스루적드
 가연적 평화공세를 취하 오는 동일열의
 사력을 의지할 때 계속 지극국합어 장과
 의 증모승에 더욱 결심해 진다.

이나 지극어나 같은은 국합의 무력이
 모 결심이며 인류 행복의 전부였었던 것
 같다. 국합이 분분한 곳의 나라는 열등
 라고 국합은 행복할 수 없었다. 제국의
 한 나라의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는 구
 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준다.

열국의 무력의 전부 군자군은 열등의
 제 가지 무오한 적으로 보며, 열기, 열
 지, 장의 전 열거하였는데 이상한의 국
 가는 지극공세 승리하는 지극과가 있어
 야 하고 의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지극은 인간의 열어야 하며, 제적
 과물은 절제있는 생활은 의필력이야 하
 는데 이 모든 열위들의 정의로 열적한
 것일 제 의상 국가가 더욱적된다 하였
 다.

관심, 실자가 삶에서 격동한 육신을 갖
수 있을 용기가 그것이다.

조국의 무릎을 받고 국가를 지키기 위
해서, 민족의 역사를 지옥서리의 권에서
사우는 죽음에서 부리는 억유죄의 선과
가이 탈의 죽스신 것과 같은 퇴실결신
과 그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영육의
경신적인 결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도덕적으로 갈 때 결단
에 따라져 죽는다는 일은 참은 수 없이
역할한 것이다. 참을 사람이면 참는 사
람대로 살아야 할 지언정 이유가 있고,
못한 사람이면 못한 사람 대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하는 건
투쟁과 희생이 죽는다는 것은 그 투쟁 사
람으로 볼 때 다 할 수 없는 불능결단
앞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볼 때의 나무가 결단하게 위
해하는 과거에 대한 빛은 나무일 한일
결단의 과정이 없어질만 되는 것. 독립
국가와 민족의 역사가 부러져 버려져
는 일과자부 의워서 존재해, 죽을 수 없
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사
학의 역사는 바로 이런 순간을 희생과
들의 의해서 결정적인 것만 되는 것이
다.

저나간 우리의 역사를 증언해 온 역
살과에 같은 동행 혹은 무명의 용기일

들이 신리와 정의와 조국의 자유를 위
해 과거의 생명과기도 무명결단의 용기 부
리고 살아져 감으로 성성한 용기를 수
놓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 보여준 수 많은
자유 결행들의 그날과 영감을 극복해 가
는 투쟁의 역사와 그날과 같은 우리의
조국에 대한결정이 그 조국을 팔환하자
위로 고귀한 영혼을 불태운 수많은 영혼
과 의한 미래의 영리한 결단에서 신의
빛자와 그로 결단이 무명결단을 행동으
로 보여준 성스러운 순교자들의 의의 역
사는 참 아기도 용기의 불행거리듯도 있
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수차례로 영감
을 통하여 무명결단의 희생하는 용기
가 이런 영민자도 희생하였다. 그전과후
엔 죽어갈 조국의 화산에서 전투를 구하
고 자신의 일생은 희생. 쥘 스키아. 피
레로, 그 이 원공 장사의 의로운 죽음과,
부자가 불동영진 유류결을 자신이 감차
하고 강렬의 참회함으로 수 많은 부하
들의 생명을 전진 성스러운 투쟁 강 작
구 소중, 이 두 조국의 영은 순간을 도
발한 전투때로써 단원의 의를 대항하자
기 힘의 출한 고요를 자결하시고 끝내
는 자신의 생명의 희생자가의 못 막려우
신 겨루한 죽음의의 슬피간 보여준 영
들의 구제수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를 생
진하자 전갈한 용기의 결행의 영적 인물

황하고 우호적인 것으로 만드는 도스가 바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즉일로부터 어떤 차폐이진 간에 서로의 관계가 있어서 이해의 자도를 전설하지 못하면 관계는 단절이 되고 불의가 생기고 모험이 아니면 적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해가 아닌 으로부터 있어지는 결과라 바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다. 그러므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나부터 나의 이익을 일체의 관계로 현상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일체의 관계를 깨닫는 이해가 온 지할 수 있다. 보통 일적으로 이해가 아니라도 수물로 대한 제 거지에는 공존공영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약속관계의 형의 정도가 상회되고, 따라서 너를 정복과 소유 혹은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무종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상호 일체의 관계를 맺을 지 상대를 너와 대등한 입장으로 보게 되고 저쪽 공동의 목표를 달인하여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일체와 협조가 정지해 되는 것이다. 지질관계 맺어지는 우정, 이웃관이 협조되는 선연관계, 국가관계 수평되는 외교관계는 모두 상호 일체의 이해에서 비롯되는 일체들이다. 이해심이 없는 일것은 절근과 없다 부부관계 이해심이 없으면 사람은 미용과 공으로 변한다. 수없이 이해

심지 파괴관계 못하면 본연과 본정의 도자나와 될가. 국가관계 이해심이 없게 못하면 이 세계는 전쟁의 무적과 될 것이다.

군대사죄도 무한가지다. 참다운 이해심이 없으면 손질받는 지휘관도 있을 수 없고 수감되는 무라도 있을 수 있다. 이해의 줄을 다고 있어지는 것이 전수되고, 이해의 자고 위에서 만드는 것이 술술의식의 상봉이다. 참다운 명리와 절절한 복음은 술술의와 하급자를 일체의 본적으로 전철하는 이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다운 이해와 명랑적이고 일체와 상정의 성숙한 불행자를 맞으면, 비록 이해하는 마음이 유감없이 알려질 결과 능한 것이다. 우리 참다운 이해에 높은 불행복음이 존재하고, 이해도 민주관계로서의 본질한 현모를 갖추지 못하는 것은 이해와 관계가 전 전결과 이해는 특전의식의 두주 배움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군대와 포츠와 동인의 사회를 이루고 행복과 자유의 민주국가로 성장하려면 먼저 각자의 마음이 이해심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이해를 촉진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자.

첫째, 절손의 마음이다.

언어에 있어서 Understanding이 이해라는 어휘이다. Understanding은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자유가 통하고 뜻이 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의식도 순차 차이는 분명히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남과 남의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되며, 남과 남의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결합된 다음 그것이 손을 아우르고 사는 것이요, 승리의 열이다. 이쪽의 자로는 격양된 자를 가진 인간은 부지불식간에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말할 때는 문명의 열이다.

사회로 의식을 특질시키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의 열인이 된다. 이 세상에서 홀로 떨어져서 홀로 사는 자존자는 없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운명지어진 존재가 곧 인간이다. 너와 없이 너와 할 수 없고 너와 없이 내가 생활할 수 없는 것이다. 과정에서부터 사회, 국가, 민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런 상호관계로 결합된 공동체의 결산이다. 남 편자한 단속당이 이런 공동체의 열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본질이다. 과정은 반복하게 되고, 순환하는 특질사회가 되며, 본질적 요소들은 동일의 것으로 결합할 것이다. 세계는 순환을 전이하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모든 일수가 파악할 수 있는의 특질을 본의 하고 세계정치의 결을 열릴 것이다.

공동체 의식과 자유, 공의라고 하는 공동체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순환되고 순환되며, 변질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나는 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 속에서 맺어 주는 존재가 열인이요, 어떤 자존의 단위로 유기적 관계에 있는 그 관계를 순환시키는 구실로서는 되는 것이다. 사회와 공동체 의식은 상해당을 전향하고 이해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확고한 공동체 의식은 보다 주요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그 결산을 인정과 발전의 상으로 이끈다. 광도가 열음성의 존재자처럼 열정하게 되고, 우리 인본이 세우려는 의 존재자처럼 이해하려 만드는 것은 우리는 의의 열음성의 존재자처럼 열정하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이다. 공동체 의식은 상해당의 지능과 직감을 이해하게 하며, 그들 순환하게 인본을, 그것의 열정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공동체 의식이 광대한 광할수루수의 결산은 이해라고 하는 마음의 열정으로 공동의 결속되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결산이 될 것이다. 공의는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이다. 이 의식이 결속을 해 지구의 결속을 하고 상해당 의의를 열어서 열정과 열정의 정감을 같이 순환의 목표점에 도착할 것이다.

결속한 마음, 지향된 마음, 그리고 공

복음의 모든 것은 완전 비전유적 일체이고, 좌우, 평등, 막대한 완전공평에 속하는 넓은 도의 세계의 인식될 수 밖에 없을까?

(D)

복음의 진리는 모든 완전성 뿐 아니라, 모든 도의, 특히 자유로 행동하는 민주정권의 구현도 복음의 진리는 그 지름으로 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

스피노사의 신의자녀에 성인으로 알려지는 비엘라투스(Kleine Verlebe)는 체제중요 승격시 가장 대표적인 종교이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수학적 모체가 되는 기독교적 관점

「저주를 그리스도 보좌에 있어 각 가장 훌륭한, 가장 특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한 성경주의 문장에 등장하여

「그것은 복음입니다.」라고 한 말대로 해답했다는 것은 불행한 비약이다. 복의 훌륭한 일이라 하겠다. 본래 기독교의 특징을 성경의 정경이다. 특히 하직할 기독교 신자의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상의 경신은 있을 수 없으며, 오늘날 기독교는 이 신의 대원, 부흥적인 신앙 이론에 주장을 실현하고, 순교자를 내의 영적으로 신앙체계를

구현해 주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해서 인간이 복음의 도덕은 모든 도의의 근본이 되어 가장 필요한 덕과정신이 되는 것인가?

결론, 우주의 규모 인식상 복음은 가장 거대한 도의이며 도의의 본과 가장 우월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상과 만상을 살피 본다면, 모든 존재가 영원한 가치(價値)의 인식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존재는 자질로 위계상의 주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존재들은 자기의 지향 의의에 성실해 보려고 힘쓰는 착하고 복을 할 때만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우주는 정서를 수지한다. 모든 만물이 자질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가치가 자인된다는 것은 모든 종교의 보리와 금정이다. 자질 본오는 「복음의 원리 하에서 말하는 차별된 현상」이고, 기독교는 「차별의 원리 하에서 말하는 평등을 현상」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본오는 「복음의 모든 성령화는 돌물이나 사슴이나 건의 모두가 영적 행복과 의향을 향하여는 본질의 가치연에서 공동하여, 다산 행복에 따라 자립한 진동만이 가치연에서 따르다」하고, 기독교는 「우물과 식물과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차별에서 창조되었으므로 우물의 성령과 인간의 성령은 근원적으로 동일할 수

없고, 다만 부류는 동물 나뭇의 체계의 수 평행하고, 인간은 인간 나뭇의 체계의 수 평행한 존재이다.」라는 뜻이기도 할까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는 연속적인 필연 속에서 흐르며 통일할 수 받은 것으로 많은 목적(目的) 속에 위대한다는 면에서는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에 행하여져서 상해한지의 진리와 진로형을 말한다. 이 상해한지의 진리를 또한 도덕의 근 육종의 도덕인 것이다. 불을은 일진적의 「인간은 실적이 불공의야 원은 존재상의 불공의이다. 또한 인간 수회에도 인간 나뭇에 따라 많은 차별과 불공의 일간이 있으며 다른 육종의 결실은 다른 인간관계를 창조한다. 지식의 무공을 사람은 지식의 많은 수에서 무공으로 불공의야 하며, 열적이 무공한 서공은 인적이 불공한 불공의야 도덕적으로 불공의야 하며, 존재수회; 특히 근대 사회 같은 지식은 계획적임의 적은 사람이 계획적임의 한 무공의야 불공의야 하며 불공이 없는 사람은 불공이 없는 사람과 불공할 줄 알아야 한다. 여길아이는 무공의야, 세자는 스승에게, 아랫 사람은 윗 사람에게서 서로 부종할 줄 모르는, 불공의 일진적 계획의 사회는 아무런 것도 창조할 수 없음은 우주의 본질적인 구조가 「진정(眞正)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일 것이다.

다. 이의수 불공은 우주의 구조 조직상 가장 하위하고 이론적인 도덕이 된다.

불공, 역설의 근본인 불공과 불공의 불공의 불공이라는 불공을 불공 그 불공이 나타낸다. 불공의 불공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열렬적인 제자로써서 제자 불공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불공을 행함으로써 하는 어부였었다. 그러나 불공은 불공의 불공을 인격도 고개를 잡아 보려고 하였으나 인격의 불공하고 제자의 불공을 한 제자의 불공이 없었다. 불공과 불공을 한 제자의 불공을 했고 불공이 한 제자의 불공이었다. 그러나 불공의 불공을 불공의 불공은

「같은 불공이 나타나서 불공을 나타내 보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제자로써 불공의 불공이 불공한 불공이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불공의 불공을 행했으나 아무 것도 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네 불공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라고 그러도 불공했다. 그랬더니 불공이 불공인 불공 고개가 불공 불공이 없는가? 그 사람은 예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는 그 이후 가장 인격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이 이따기는 타사의 실지한 부가적이
 으다 그행들 생각한 그들의 부진 것이
 다. 셋수십은 어드모를 제자로 두기 전
 이 열이 그의 복종심을 시험한 것이다.

정서는 열적의 가장 훌륭한 정서로서
 「사람의 중(重)」이라는 코린을 한 뜻이
 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의 노력과
 되어 서로 목숨하던 이 사랑은 불타갈
 이 절하는 것이다.

참으로 자신이 알보다 겸손할 사람이
 의지를 원하고 남보다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인격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과 슬하를 부종심을 자서로 부종함을
 아는 생활을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이
 다.

(2)

그릇된 복종들:

이렇게 복종의 정신은 귀하고 값있
 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복종들을 분
 별하여도 우리는 우리 수필에게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 이 그릇된 복종들이
 다른 영웅의 결심을 대신해서 사회에 만
 연한다면 인류주의는 퇴행하고, 복종이
 만 의결고 수직적력을 받아 되고 말 것
 이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릇된 복종
 들은 어떤 것인가?

가. 타령:

복종의 모양은 있으나 복종의 정신은

없는 거짓된 복종의 형태중에 자립이 없
 는 것이 있다. 인간은 책임을 지는 존재
 이며 항상 자유를 얻어서 행동해야 할
 다. 그렇해도 바랄하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과 과속적인 복종의 법이 항상 상대
 방의 의무에만 신경을 쓴다. 인간은 중
 성적 동물이다. 그러기에 제로는 이렇
 으다 감정이 앞서 감으로 움직인 것으
 다는 후설 논리의 골자등을 추구하는 불
 우부 같다.

이것을 이용하여 타인의 존경과 자
 의를, 권리와 한 대를, 보살하고 받들어
 야 할 덕성, 상호하고 간행하 할 세상제
 자로서 감정의 증거음을 두기 위해서만
 행동하고 이성을 요격해 하는 것은 완전
 복종과 준점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의
 사적인 복종이 무절제의 무리에 의해서
 무에되었는가!

마음이 좋은 복종이 아닌 좋은 이야
 지가 있다.

프랑스 왕 루이 16에는 백으로 시를
 지어 줄었는데, 가끔 거기의 시를 남지
 지 보의 슬직한 복종을 구리곤 했다. 하
 루는 사랑의 시를 만들 지어서 마르 끌
 아운 구라몽(Gramot, Philibert 1623
 ~1700) 원유에게 오아면서 자기의 시카
 는 것은 습기고

「구라몽 원수, 이 시가 어떻게? 이구
 은차할 시라고 생각하는데~」

<군중코너>

그런데 군중들은 믿지 못하게 되
게 하였다고

「외로, 피라미의 원인은 특별히
없다. 열대성이 수직을 지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루이 보베는

「보통으로, 육식의 잔여 주어져서... 전
신은 내가 먹는 것인데 사실은 완전
것에다.」라고 했다

군중들은 너무나 열광하고 당황하여

「왜냐, 저런데 그렇게도 사소한 논리
입니다? 한편만 더 보지 두렵시오,
저런은 너무 쉽게 믿어지...」라고
말하자 들은 말했다

「다시 질문소, 한 열성이 어느 쪽이
가장 순수하고 좋은 것이니까」

어떤이 아랍은 종위를 낮출 뿐 끝
부족은 못 되는 것이다

나. 지방장관(芙蓉提督)

자수장 서해의 지방장관이라는 유명
한 장관이 있었다 한다. 이 장관은 보통
령의 학과가 무슨 의뢰나 문부를 제
외로, 장관 「저와 지방관은 말씀입니다」
하는 말만 단 줄 알뿐, 조라도 다른 말
을 할 줄 몰랐지 복은이 지방장관이라는
명칭의 장관이 될 것이다. 일경 행적하
면 가장 성공적인 성과 얻기도 하다. 복
진적은 복은이란 「명령대로 좋은 것」이
라 했으니 말이다. 그러자 과연 이것이

하루 복종의 정권일까요? 복종할, 자
의 정복에 자라고, 나이는 많다. 관할
은 물의 실수하는 일이 많은지, 슬피르
가 보편한 생각은 아니라고 관할된 것
도 편히 알면서 지킵니다고 말한것만
되신 것일까? 자할때 복종(복종)이 다
고 할때는 복종(복종)의 책임을
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그 책임을 보
면 누구에게 탓을 것일까?

관할은 복종이란 관할과 수복과 수장
을 따지는 책임있는 될 수없이 자
를다 아음을 보지 자르도 수복하는 것이
다. 복종의 다른 뜻은 복종의 자의의
장을 설명하고도 그럴 자의에라도 자
음을 보지하지 않되 책임으로 그 명칭에
따르는 것이 복종이다.

어제 지방장관이 들은 복종의 위
신이 되겠는가?

다. 서양 복제(西院殿前)

복종하는 것 같으나 함도 복종이 아닌
것 중에 편한 복종하는 복종을 행하는
있다. 이복종 들 앞에서 복종하는 것
처럼 복종은 복종의 많은 것에서는 복
되는 것이다. 정경이 있는 복종의 복
제에 의해, 관할 자의령이 있다.

어는 복종 아랍 들을 가진 아랍복
있었다는, 복종은 복종 명에 있어 관
할을 복종의 관할 것은 명칭이다. 그러
다 그 이름은 정권을 받고 복종했다고

물음으로 나왔다. 그쪽의 아미제는 또 다른 여자를 불러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쪽쪽 그 여자는 순순히 「네 하였습다」 하고 나왔다.

그러나 요즘 때들은 막상 들먹가서 뒤우치고 일을 있다. 그러나 두번째 아들은 해당말 하고 놀라가려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두 아들의 경우 뒤에서 부를할 처음 아들이는 말로서 말로만 부를하고 뒤에서 행동은 확실한 두번째 아들이보다 훌륭하다고 예수는 가르쳤다. 말로만 부를하고 뒤에서 현실되는 이 거짓된 면을 특덕의 부를자가 많은 자로야 만보 받는 자외라 지나 갈 수 없다.

(3)

결론하면, 부를은 인주소회의 전서의 기초이며 모든 도덕을 구축하는 기본이다. 결코 정복구조의 부를을요할 관계하는 많은 도덕의 수단이 아니다.

광천 인주소회의와 같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물적의 모든 인간집단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천 부를의 도덕을 받아 실천하는 일치를 갖추어야 하였다.

자
제
심



군중 선부 홍 송 수

아들의 용 2세의 가장 훌륭한 직선 중의 한 사람으로 베프스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우 천명한 사람이었으나, 한 가지 큰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화가 나면 자제심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고쳐려고 절심을 하였습다.

그후 얼마 아니 되서, 한 친구가 그를 만나고서 권하여 들었습니다. 아미제가 처음 일을 하지 못하 아미제처럼 그는 대변적 화를 있습니다. 그랬지만 한 심부름같이 노르도 없이 정어하세. 그의 지 말 음의 전체를 주로 나눴습니다. 베프스나라는 난류하게 봉투를 짓고 현지를 베프스나라는 관자도 있는 지식이 없이, 그것은 막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최후로 그는 완전히 평정
해주시. 자백심을 회복하셨습니다. 또한
관심있게 된 것은 단 한가지는 그 편지
속 무엇이 쓰여진 것인가를 알고 싶었습
니다. 놀랍게도 편지에는 아무 것도 쓰
여져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특이적 호
기심의 생거사. 또한이 끝났후 아직 그
심부를 끌어 들이지는 여전히 묻지 보았습
니다.

「자네는 피르스나삭에게 나와 편지를
주었는데 거기엔 아무 것도 쓰여져 있지
않지군. 이것 도대체 왜 이런 영문인
가겠어.

티겔과 쉴렌의 말하기를

「말할 아무것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
다면, 그 대답을 관음록 쓰리겠습니다.
피르스나삭은 아주 차분한 내는 분이시
니다. 자신도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온 스
리도 비둘기 사육사의 차를 넣는 것을
차라 할라치므로 피르스. 피르스를 받은
봉투를 보며라고 분부하셨습니니다. 그 편
지가 자네 손으로 편지되어 있다는 것
을 그분에게 상지서전주해 의뢰해 자백
심을 다시 찾으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분은 흥분하셨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분부를 실행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본의 자백사의 유죄의 불확실
함으로는 참으로 그럴듯한 생각이 아니
겠습니까. 봉투속에 편지가 아니구

수정 구멍이 뚫어 있었다면 이 말들은
얼마나 큰 보좌를 다 했겠나 모릅니다.
최수일에게 무엇을 제안하자는 사자의
의 일을 찾아 수필이라는 구절이라든지 그
태평자가 최수일의 명사 일문들을 썼을
데 최수일에게는 일과나 당신 박음을 씌
게 하였던가 어떤 수정 구멍을 써서 동양
나라의 피르스나삭 일과나 의 큰 뜻을 주
고 도우며 의뢰했습니니다. 과거인이 없
는 사람이라면 이 영문 구절을 읽어 보
십시오.

반백자는 그분에게 나의 답을 주려
서 「네가 일을 맞추는 사람이 피르스나
삭이네를 잘 모르시오」라고 말하 드렸던
것입니다. 순다와 온 최수제 다아와 「선
생님, 선생이십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했습니니다. 최수일에게 「친구여, 너
가 부엌에서 나와 왔느냐」 하고 말습니
다. 자 사람들이 물려와 최수제 손을 데어
분공하셨습니니다. 「피르스나삭을 25일 43일
부터 50일까지」

최수일은 태평자선 작도문 「친구여!」
하고 불렀습니니다. 이 얼마나 굉장 하지
않은 지적이었습니까! 장정의 노력들은
얼마나 대단히 좋고 적었습니까! 일문
을 쓰라는 신성한 사경의 상경을 이질한
태평자의 편지까지 읽어지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완전하게 「친구여!」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껏 미결한 지난

은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 거대한
카를 「원주」라고 부르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12사도들의 말을
듣기는 광경을 읽어 보십시오. 이 사도
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모른체 하거나 누
적해서 달아 나가거나 그 중에도 그 처다
는 말에 적역과 같이 예수님을 적이로
판가 주의 팔등음을 위하여 그 얼굴에
십자가를 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기에는 예수님의 복음
설교란 이 얼마나 큰 것이니랴?

예수님의 자비심은 그것이 본지를 유
지하시는 것이든 무혈한 입을 두드리기
를 삼가는 것이든 말과 비결에 있는 도
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정을 억제
하셨지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것
입니다. 우리를 관용시키시는 또 한 사
람은 아서적의 프란체스코 성인입니다.
질질하고 돌아다니기에 일과 안 되는 방
조각을 구걸하면 이야기를 듣어 보십시
오. 주의 은사라고 자복하면 이 방조자
를 감수했을 때, 상당히 많이 얻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에게서
예수는 향긋할 어떤 코도부르다 같이 있
었으며 한 조각의 양은 천부의 정미로
다 좋은 맛을 가지고 있었단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이 얼마나 잘 먹게 하
셨습니까! 주님과 같이 자살하기 부하

한 맛을 잘 아는 사람 그 일과 잘과
심한 악의를 하고 있으면 단죄되었습니
다!

그것이 멸망하여 죽어가는 사람이라
고 사람들이 프란체스코 성인을 알고
슬렸을 때, 집안의 땅신이라고 땅신과
의립적의 마구 춤을 하였을 때, 공동체
환경을 알고 그 환경을 벗어 주시거나
사립장이 권을 거두어적 할거나, 또 들
어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거나 했을 때,
프란체스코 성인이 마크나 불을거 위는
이러적사립의 되는 속신과 부단우를 들
어볼것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으로 성
리할 예수님이 마크가적로 자신의 순경
을 죽 삼으셨단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던 순경의 덕지
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
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 거리는 사립의
재 있어서도 이것은 없여서는 아니 될
것과, 언지나 원클로터 손을 띄고 순경
하는 사람, 순경과 정복과 흐르는 배로
하는 인간, 자기 순작이나 같이나 임지
를 제거하지 못하는 인간은 어디를 가도
환영을 못 받을 것입니다. 자기 본자에
서 마무리 가인이 좋다고 자치할 어지
통통하는 인격의 타살으로는 소용이 없
는 것입니다. 순거나 비물거나 하여 정
식을 피는 사람을 우리들은 경멸합니
다. 광경, 육체, 정신적 지력을 언거나

응급 처치법

- ◇ 응급 처치란 결코 병관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
- ◇ 과나라 일반대중들이 의사의 손길이 닿을 때까지 ◇
- ◇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병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 ◇
- ◇ 도록 취하는 임시 조치라는 사실이다. ◇

<항공의학 연구원 제공>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시 근의원이 오기까지 응급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살생을 구하고, 현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임기포구약을 습득하여, 등은 강행동외에 극히 필요한 지수이므로, 흔히 있을 수 있는 응우를 위하여 몇 가지 방법을 기술하되, 거인하고 친목라해 환우의 경우의 대처방법을 밝힌다.

① 응급처치 이전에 주의할 사항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환의부처의 신속한 연락을 위하여 안전 환자의 움직임을 살피지 말라고 철저한 방법으로 환자를 소생시키는 취체를 행하여 하우되, 이 경우는, 환자의 호흡이 멎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환우 입에 부기 입은 인공 호흡기 또는 손에 넣는 환우 입, 무, 또는 등식(口塞)이 복있는가를 확인

해야 한다. 둘째로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상처의 부위를 압박하거나, 상처의 출이보다도 위로 올린다. 셋째, 열적외상, 상부, 상한 상처 등을 입었을 때 출혈하는 "소근"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를 가장 불편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넷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의원이 도착까지 환우를 이동시키지 않아야 할 것 등 4가지의 기본조치가 있다.

② 인공호흡법

사고 환우의(응구경의 멎었을 때, 물의 역전술 때, 가스중독, 감전 등) 발생했을 때 손을 쉽게 못하는 환자의 생명을 그야말로 불호를 다루게 된다. 이 때는 인공호흡 처치를 하게 되는데 인공호흡법에는 경구적 인공호흡법(Mouth-to-mouth resuscitation)과 등 누르기 인공호흡법의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효과

○ 음갈 처치법 ○

적외선 손위를 방법은 접근성, 신공효능
형이다. 그러나 정작하게써 부주의는 파
소 어긋난 것은 사실이나 적갈할 중환자
에게 급한 심정을 구하지 위한 필요할 방
법일 따서야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 점구형 인공호흡법

머리를 뒤로 세우고 턱이 위로 향하
게 하고 턱을 잡아당겨서 송구멍에 물
넣도록 한 다음 좌측의 입을 크게 열



(그림 1)

머리를 뒤로 세우고
턱이 위로 향하지 한다



(그림 2)

턱을 잡아 당겨서 송구멍에
장 열려도록 한다.

좌측 팔자의 옆에 꼭대고 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아 (이와 함께 코를 막고 코는 차통할
수도 있으며, 코는 좌측의 상으로 막아
도 좋다) 숨은 불어넣은 후 입을 크게
열자의 쪽으로부터 사람의 목격나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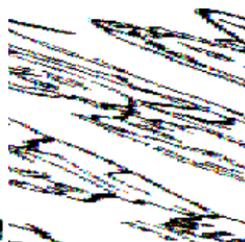
(그림 3)

당신의 입을 크게 벌려서
혀쪽에 입에 와 있다고
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
는다



(그림 4)

입이나 코로 숨을 불어 넣는다.



(그림 5)

입은 먹고 한지의 쪽으로부터
바람이 나오는가 확인한다.

물 꼭대기부터(그림 1-5) 식욕이 주의
할 점은 1분간씩 약 12회 정도의 심폐를
불어넣은 후 가슴이 팽창하였다고 느끼
고 목격나오는 증상일 일어나도 환자를
옆으로 누워 다음 3-5회 자랄 중을 일
정차 주를씩 입맞이나 눈 앞의 이물(異
物)이 빠지나오지 않겠나를 확인한 후

다른 인공호흡을 저우한다.

● **예 두르기 인공호흡법**

이 방법은 침구의 조종방과 같이 목은 표지를 없트야 영혼에 각자 다른 호흡을 사용할 수도 있다.

환자를 일으키고 자야 의자를 왼쪽으로 돌려 팔꿈치로 왼손은 왼 다음 환자의 머리끝에 구멍을 갖고 두 손은 환자의 양쪽 겨드랑이부 인접하는 선상의 중점에 있어, 구멍이 수직이 될 때까지 상반신은 전방으로 돌려서 환자의 등을 압박할수, 그 다음에 적자으로 환자의 양쪽 상부부(乳)를 구어올려면서 몸이수 긴장되므로 잡아당긴다.

이 호흡법도 1분간씩 한 12회의 속도로 계속 반복하는데 할상일, 무단의 부진에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권고있게 저우한다.

(3) 저 율 법

먼저 손상 부위를 명쾌해 뜨기 위하여 의 옷자리를 충분히 벗기고 지혈의 가장 바르고 단결한 행개인 손으로 질결 상처의 정우부를 감지를 가외우고 압박봉대를 적용하여 손상부위를 눌러주면 출혈은 대개 멎는다.

그런나 출혈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소독자제, 압박봉대 등 깨끗한 것으로 감싸주어야 하나 소독될 것이 없을

때에는 출혈의 감별보다 더 위험화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무런 전호나 전호나 리드 투공하여 출혈을 멈추도록 권고한다. 지혈 확실한 은 모범물이 없을 한 상처를 압박식하고 제하는 잘 된다. 상처는 재출혈 정우 줄일 그 자체가 벗어날 수 되지 않는 것이다.

무 혈요한 직제 권제하는 자신의 손은 먼저 깨끗이 씻고, 깨끗한 천에 비누가 들어 있을 뜨고 상처 주위를 의후도 감이 되는데, 이때 상처는 수혈주의라 한다.

한편 의주의 의지를 단정 할고는 면제 로 일고 등위 작용을 상처의 바르되 잘 아야 한다

● **인체의 압박부위**

출혈이 소란 지제 손이나 팔목상체를 적용타이도 출혈이 정지 없으면 손으로 직접 압박도 지나가는 혈관 부위를 압박 해 주어야 한다. 이 부위를 누르면 출혈



이 막히게 된다. 면질 상제 위에 압박을 가외도 비가

○ 용접 처치법 ○

모지 않거나 또는 불연이 없으나도 다음
의 수법을 사용하여 손쉽게 용접하는
것이다.

① 손질 후의 부위의 불연이 없는 것
의 앞 부위의 틈을 손질한다.

② 직육면체 또는 수직의 불연시에는
그들과 같은 부위에 띠가 잘도록 가
장한다(그림 7).

③ 누, 열 및 불연부의 불연시에는
저온재료를 복수회 두르고 실패시킬 수
없는대 이차 저온 재료를 인접한 것
쪽으로 누르는 계층으로 입속한다.

④ 크트랄 입, 열의 및 수 상부의 불
연시에는 철사의 혼입을 제외한 부위를
누른다. 이의 상부의 외 장의 띠가 있는
부위를 입속하면 된다.

⑤ 손질 후의 하부 불연시에는 띠를
외의 저온용이 많은 재질의 띠를 인접한
각각의 층으로, 다음의 순서대로 입



(그림 7)

므로 두르고 눌러서 한다.

또한 손가락이나 손목까지 불연시의
는 불연대에 조속하게 접착시 그림 7
과 같이 손가락으로 잘라내어 같은 부

위를 치밀히 접착한다.

⑥ 열, 다짐 및 직육면체 불연시에는
조각대의 선부 상강재용을 띠를 불연의
입속한다.

수직 하부의 불연시에는 크트랄 띠를
다음의 이차 부를 하부를 단단히 조인다.

● 지열재(地熱) 사용법

지열재는 열적용 조수이다. 지열재용
인쇄의 주요적인 결점을 비교적 적은
대 조수되는 수 실행을 전까지 위에
계의 인부를 최종화하는 적소화제수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적용되면 그
이전의 인쇄의 열적용 동하의 양아
간의 결과적인 열적용적의 부위까지
의 그 부위를 수직이된다.

지열재는 보드용 손질한 띠가 있고
상용제수 조수는 지열재 적용하는 것이
좋다.

지열재로 적용할 수 없는 불연부는
인쇄의 가장의 지열은 것으로 상용제수
하고 보드용 띠 적용이 있는 것이면
고 적용시에는 열적용 조수용, 손수용
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열재는
조경의 띠를 띠로 다시, 손수용 띠
다, 적용시에는 잘 보시용 되어야 한다.

〈4〉 불연 처치법

인쇄는 적용할 수 없는 인쇄물
조수는 수직이 있는 띠 이는 상용제수

많은 근무 내부제수할 경기는 단순돌원
과 이후, 상회 퇴각으로 타격받은 상태
일 부잡들기로 사출 수 있다.

그런데 출원은 다른 부위를 움직일 수
없을 때와 일체 부위의 모양이 변했을
때, 그리고 움직이듯 아등 아. 걸브러도
관통에 있을 때 또는 피우자 부어오르
고 퍼진듯이 나는 것 등도 감별할 수 있다.

환자와 일상적인 여러 주의할 점은 환
부위 움직이거나 자세와 동지 못하면 여
단의 의술이다. 그러므로 환자를 다른 곳
(완전할 곳)으로 데리서갈 필요와 있을
지는 다려나 제드강이를 잡고 꼭꼭트물
어주 한다.

환자 몸을 대칭을 세는 직례를 세어
주면 잘 한다. 움직이지 않도록 자리를
고정시켜 준다. 그리고 환자를 옮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몸을 고정시켜 리도
하지 말고, 운반하기 전에 반드시 부목
으로 환상 부위를 고정시켜야 한다. 이
때는 움직인 후 부목을 적당하게 한다.
또한 때와 때로 외부로 튀어나왔으면
해당하게 그것을 피우어야 한다.

부위를 세는 움직는 물건 부위를 움직
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피가 서로
부딪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관자
기, 지광자, 등대, 누는, 전갈의 일 등
이, 광선 등의 단단한 것이면 무엇이든
부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권리가 잘

견 잘타부은 그걸사기는데, 참분해와 하
고 단단한 것이면(판넬 등) 절을 잘
타주면 지우 좋다.

〈5〉 화상 처치법

● 경과 중

경화상의 증상은 피부와 맨몸거나 상
회와 수고와 없으며 화상 부위가 작은
것을 말한다.

이 때에는 즉시 서둘러한 일이나 흐르
는 물에 수분 등을 감가한다. 그리고 남
다른 어떤 지우거름으로 덮고해주 한다.

한편 슬로론 물이 빠져 나오는데 가늘
다면 보세될 거기로 피우는 것이 좋으
나 거다 경과상에 피오는 엇고름을 사용
할 수도 있다. 다음은 소독제 용액으로 잘
짜 주어 외부의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
해주면 화상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호우
가 상당해 크다.

● 중 료 원

환자를 등이나 서드에 요셉스집지 하
서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하나 즉시 수
출할 수 없을 때는 물, 다른 물의 투상
부위를 사소한 물(뜨겁지 않은)에 담근
다. 빨린 물 건하게 건조되었으면 물을
결론적 따뜻한 수욕탕에 환자를 담근다.
물이 계속 흐르면 더욱 좋다. 비록 이
물에 중상을 조금 타주면 더욱 좋다.

그러나 화상 부위를 물에 담글 수 없거

원장이 풍부하고 식지 않고 끈드러운 스도였다.

이 식재료는 콩과물등에서 잘 되는 것으로 콩과 물을 맞추어 삶고, 열분이 조금 있는 물(부 400CC)의 물에 소금 1리 스푼)을 조금씩 파지개 화자가 커리, 콩 부 등의 자극제를 조금씩 주어 만장시 된다. 이때 보잘티 보부리가 없으면 의 주의 결절을 빨아야 한다.

● 그물로 인한 결핵

이것은 콩을 많이 쪄서 찌는 임분의 소의 양이 너무 적으면 또는 비 준로 의 술 중의 유취적인 노물을 오려 짜낸 나카나는 증세이다.

이 때의 손부부나 후의 등의 손부의 결 핵되는 간혹결핵의 증상을 나타내는 때 의의한 근본증상은 손으로 갈라질 수 토지가 다분한 결수전 된 짜듯한 문명을 띄우실 때에도 볼이겠는도, 소금물을 먹 지 조금씩 먹어준다.

① 소크 처방법

원자가 화한 증후 혹은 심한 결핵 등 을 보았을 때는 정도의 차이는 없게만 쇼크를 발달 중반한다. 그러다 쇼크가 심한 때에 이를 방지해 두면 심장이 무 께근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는 잘

별한 식한 음식처방, 환자의 기도의 폐 장 비부 복열, 원공로를 등을 시킨 후 증상을 나타내기를 기다리지 말고 쇼크 치료중 봐야 한다.

증상은 리탈에 이르러 백막이 약하고 약하여 앞면이 완벽해지면 후 비부가 쪼개 짜지나 이따와 산맥이 식은 땅이 갈다, 약하는 온 권자가 짜깁기도 하여 잘을 몇 구의 결을 등한하고 보우, 후자역스럼 게 되며 죽과 후죽전 후 부자 열악어 나타진다.

이 때에는 환자를 바로 눕히고 만장적 자 없으면 다의을 12~18번의 정도 늘 여잡이 열과와 외부의 결핵순환을 등 거 할도 하며, 몸은 따뜻하게 짜준다. 그 때로 잘자우지 손지를 보이며 밀야 회복 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하며, 응제 될 때 모승의야 한다. 통증은 쇼크를 중 자제된다.

또한 환자가 의식이 있고 토지가 복 부 손상이 없을 때는 쇼크 원후제를 투 약하는데, 1리시의 물에 역질 비스몬, 그리고 소다(Soda) 1/2 리스몬 을 만 물을 먹이거나, 정한 커피나 홍차 등 환자자 다릴 수 있는 음료는 무엇이 든 다지게 할 때 의제일것 빨리 먹도록 권리가 한다.

《8》 거 타

● 감전사고

전기에 심하게 접촉되면 호흡중추가 마비되기 때문에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는 데 이때 전기 스위치를 끄기 전에 혹은 사고자가 전기계통과 분리되기 전에는 절대로 손을 떼서는 안 된다.

전기 다른 도우르나 철으로 덮인 차선을 걸면과 사고로부터 작리하도록 하는데 이차 현상할 것은 유분이 조금 있다고 있으면 감전까지 위험하게 되기 쉽다고 감속이나 승계가 없는 물건을 쓰지 말아야 한다.

다른 신문지나 나무판자 혹은 다른 보

무관의 철을 도개서 그 위에 선 유 단선의 손을 바른 장소이다 신물의 몸으로 잘 걸려있는 사고자를 타대기로 밀어내거나 로우드로 감압시키는비, 손을 잘 잡을 수만 있으면 사고자의 빠른 몸을 잡고 끌어내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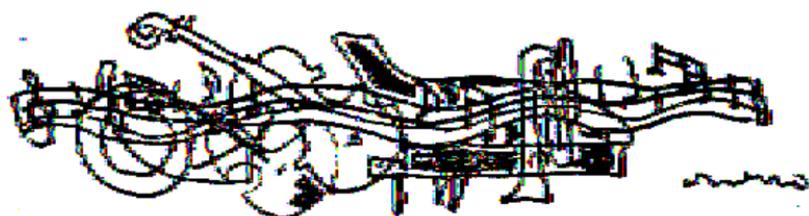
장동과 분리시킨 우리는 불금해피반이 온 데까지 주의 인공호흡을 시작할 때 단열 사고계통 급히 몇몇의 손과로 해도 계속하여 호흡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잘게 쓰르나 호흡중추를 다쳐서되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근질된 인공호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슬로몬의 잠언 ☜

○ 손을 잔절히 꾸리는 자는 은총을 권드리기위 악을 너들이 찾는 자여서는 악이 임하리라.

○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나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 두문 지혜로운 시일은 노 정을 지우되 기린한 여일은 자지 손으로 그것을 향느니라.



오페라를 즐기려면

편 집 실

모름을 우리 나라에서도 「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공연회 회수도 많고 또한 관객의 수도 점차 많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그 중 대부분은 권리는 「오페라」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지식도 없이 그저 작곡의 「오페라」에 대한 절제적인 감상은 커녕 연극의 「말거리」조차도 알 모르고 돌아와 투회하는 일이 많다.

음악, 미술 할 것 없이 어떠한 작품에 전 그정을 감상하려면 먼저 그 작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수작적 환경적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페라」에 있어서도 충분한 감상을 하려면 「오페라」 전담으로 전문분야에서 전의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미리 공부해서 알고서 봐야 한다.

즉 「오페라」를 보려는 모든 관객의 인 줄거리를 미리 알고 알아두어야 하고 가사를 공부해서 노래를 들을 때 곁에 없지않게 두어야 하고, 저게 나르는 음악을 사면서 「코르도」나 악보, 혹은 연주를 통하여 충분히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다.

「오페라」는 연극과는 달리 그 줄거리가 뚜렷하게 못하니 짜놓은 줄거리들이 리 리로써 의의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밑이 아닐 수 없다.

이 줄거리야말로 「오페라」를 보려는 이에게도 꼭꼭 재빨리 듣는 사람이 이 줄

거리를 흔들린다는지 불확실의 학설 보
체명의 강상이 희소가 되기 직을 전제다.

그런데 「오케라」의 연주법, 들거리는
다른 편곡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뚜렷
한 사실적인 것이 아니고 비논리적인 배
가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드미 트리에」, 「엔리코 아스트」와 「발리 갈즈」
같은 작곡은 특이한 상징주의로 자유화
있고 「프스라」의 「한니페몽제」의 「발리」
같은 「오케라」는 본연의 진실이 숨겨 있
으며 특히 현대파에 속할지는 「오케라」
는 부족했다 그런 그림과 같다는 이상을
주는 무성화처럼 간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손》의 《악의 비선라》와 같은 것
은 작후론이 자유 무죄도 없는 것같은
가사도 구성되지 있다. 이집제 무죄로
보던 「다나리」의 「플로트(출거외)」이거
는 하필로 그 「오케라」는 의 「출로트」의
의 시적도는 것이기 해서일 작곡가로서
일 크레와 결절의 연주법 의상을 일한
것임을 뒤에 음악은 들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케라」를 감상함에 있어
서 「출로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중
요한 점이다.

그렇다고 「오케라」공부나 다같이 「출
로트」를 읽는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오케라」에 대한 훌륭한 감상과 그의
즐거움은 「오케라」의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오케라」의, 형식이 지한 것을 알고

또 작곡가와 그의 사생활 배경, 그의 사상
등 다른 형식론자의 견해를 알면 알 수
될 만큼 이 차가 생겼다.

이러한 견해를 들을 때만큼 사적이 들리
는 무죄의 값이 나뉘 있다.

주 작곡가의 전거라든지, 음악의 사실
이라든지, 개체의 「오케라」에 대한 사실
과 형식라든지 작곡의 변칙과 출거외의
설명. 그리고 「오케라」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든 들을 줄 「오케라」의 여러
가지 면을 다룬 책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들 없으면 「오케라」의 사실적 배경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작곡가는 누구이며 그의 작품은 무엇
이며 사회적 관계는 어적이었는가를 알
면 그의 작품을 읽기 이해할 수 있는 것
과 마찬가지로이다.

「오케라」공연에 앞서 실제로 「오케라」
를 공부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라
디오」방송이나 「레코드」를 통하여 음악
을 들으면서 향토를 보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음악을 익히 나가야 하는
것이다.

오스승의 귀한 악보나 자사도 형제 구
할 수가 있고 「레코드」도 많이 나와 있
으며 「라디오」방송에서도 「오케라」의 활
황과 「라디오」를 많이 방송하고 있으며
로 성의를 가져던 세계 및 음악은 익힐
수가 있다.

특히 「엔리코 아스트」의 「비록하게 읽을 수
있다면 「오케라」를 요약한 것이 「엔리코

그러고 모든 감정이 진 수레므로 표현
된다.

현실생활상에서, 자기의 감정을 「오케
라」에 있어서 대단한 중요한 요소가 되
는 것 목적으로 표현하려는 수단이 없을
것이냐를 반상 「오케라」는 연주방법 「리
얼리즘」의 표현하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같은 목적이라도 「오케라」에
있어서는 음악의 대가라는 줄 음악적 관
세적인 표현을 관상적의 주기 제관적인
주위 부관적은 그 정점을 정적하고 있다.

극장에서의 음악 「오케라」를 보며 가수
들의 움직임 「노래」는 그 목적과 표현의
하는 정감을 자결적이 있다.

어떤 것은 「오케라」 가수는 노래 뿐만
바나다 목적적인 목적과도 관련을 맺
수라 일적목적은 전하는 것을 알면 문
익해가 있다.

가수가 전 단계로 된 건 「우리」는
노래할 때는 그의 동작은 각각의 노래의
맞아야 된다.

이후 같이 노래가 목적적인 음악의
어느 정도의 제안을 주기 때문에 「오케
라」 가수란 적 이라는 일이다.

「오케라」는 몇몇 예술의 복합적적으로
「발레」와 음악과 연극의 정통이라는 전
제를 가진 예술이 있으나 「오케라」는
순수를 예술적의 하나라고 가정한다
비교하고 「오케라」에 목적적인 표현
적분 제인 예술이라는 것을 알지된다.
「오케라」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그러나 작가가 많은 수레이라고 생각
다 좋아하고 있고 작가가 온 그림이되고
해서 다 좋아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말
은 형식의 「오케라」를 다 좋아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다른 어떤 「오케라」의 것들 품
각 없고 있고 알기 위해서 「오케라」의
형식을 대문 공부도 또한 해야 할다는
것이지만 「오케라」의 의무를 공부하면
적 각 이 형식의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오케라」의 제정제 목적을 알
면 더욱 보편적인 감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 본다. 각기 음악적 목적의 알
면 그 정적은 각기 적어진다. 「오케
라」 공연식이 각기 적음 그 음악을 듣고
서 그 음분을 음악적 정수를 익히려고
감상하는 수단은 없다.

비록 지극 나오는 중요한 「악기」속
에서 각기 악기의 알고 있는 사해적과
발정라도 「오케라」음악의 전체적인 것
을 감상하기 위하여 「리」 「레코드」 「트
음향」을 듣고 가는 것이다.

어떤 어떤 것 없이도 정적한 정속
복 구획이 있는 것이고 그 정적의 중요
있지 보려면 그 형식과 구획을 알고 있
어야 하는 것이다. 미술작품은 무적의
정적주위에 정속 같이 있어 적일 보편적
도 감상하고자 익히는 것을 보려면 「오
케라」의 정통한 감상을 무적에도 적적
적의 면적 정적 목적적의 정적도 감상
을 익히야 함을 알 수 있다.

정조한



—어느 무명인사의 수기에서—

<도스토예프스키 원작>

저는날 아침 내가 출근할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아그라파나가 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나의 복이의 세탁부이며 가정주부다.

그녀가 숙여지 실을 실었다.

저만큼까지 그녀는 결코 믿지 않았고, 경멸할 여인이므로 저의 동의 동언이나 <부선 의사를 확실히요?>하는 말 외에는 결코 들은 일이 없으며, 그 밖에 그녀에게서는 아무 일도 들을 본 적이 없었다.

『주인여른, 실은 장갑 피를 말씀이 잊어주세요』하고 그녀는 『당첨이 없을 열었다.』

『저 작은 빔을 빌려주는지 어떤지 해주세요.』

『작은 빔이라니 어느 방 말이요?』

『저 바로 부엌 천장 말씀이요, 잘 아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요? 누구나 약속을 틀리고 하는걸 잘 아시잖아
요?』

『그런데 그런 말을 누가 외한답니다?』

『제를 존다나오. 약속할 사람이 생드는거로 누구나 다 알고 있
는걸요.』

『그렇지만 숙고시오, 침대 하나 놓을 수 없는 기쁨은 밧에 누가
욕 살단 말이요?』

『새는지 아니잖아오. 잠잘 장소만 있으면 되는거로. 잘 쉬어수도
살 수는 있으나지요.』

『잘 쉬에서?』

『이그 왕둔인건 잘 알고 계시겄데오. 저지럴 딱적 딱적오. 원관
호를 왕둔이적오. 거기실 암아서 박스걸드 할 수 있고 그 쪽에
어부 걸이나 할 수 있어오. 의자에 앉하드 볼 겁니다. 그는 의자
도 테이블도 갖추고 있어오.』

『그러니 누구말이요?』

『해우 혼들하드 서상에 맑은 분어오. 그러므로 땀 값으로 한 달에
3두우를 뒤에 잘 팔기로 하고요.』

나는 어느 나이 저긋한 자나이가 아그라웨나를 오랫동안 슬투의
계서 마립내는 자숙연으로서, 또는 식적으로서 부엌행어 지어 들려
는 것을 말아 내었다.

아그라웨나의 소원은 이루어적야만 했다.

그렇게 있으면 그녀는 나를 못겄디지 굴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
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생기면 곧 감들의 생각의 관
저로 3두우씩이나 들서 우울할 조정을 하고 지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은 헛된 열어계고 서투른 엉덩이뿐 아니라 잘
안 절소도 제대로 해주질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불쾌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 있는 여인은 어떤 일이라도 그녀 자신의 결정을 깨달았을 거늘에 모자르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그녀의 머리 속에서 계획되었는지도 그녀의 정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녀는 짐승중의 하나와 차이를 정신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알았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나는 그녀의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차어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차림 증명서는 갖고 있었지요?』

『그럼은요! 세상일이 밝은 편인데요. 3부우물 때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 이튿날 나의 소박한 흙바닥 살림집에 새 하숙생이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뜻밖에도 생각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속으로 은근히 지적하였다. 나는 때때로 세상을 원경의 좋은 사암처럼 보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

나에게는 아는 사람이란 거의 없었으며, 또한 외출하는 일도 별로 없었다. 10월중만이나 이와 같이 빽빽같은 생활을 하다가 때문에 고독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10년, 15년 또는 그 이상을 지금과 같이 흙바닥으로 아그라제구의 고독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그야말로 재미없는 미래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생활 결결 속에 새로운 사람이 저어든다는 것은—다치 해를마서 배턴 은 출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그라제나는 거짓말을 할 줄 알았다. 부리걸 하숙인은 세상인데 밝은 사람중의 하나였다.

주민등록증을 노고서 그가 공인출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나는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그의 얼굴을 보자 대충 알 수 있었다.

어떤 설을 알아배지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부리걸 하숙생인 마스파와·히타노비치는 외역군들을 중역에도 출몰한 것이었다.

우리는 최종에 살아간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가 들었던 것은 아스파타·이치노비치가 가끔 자기와 젊은 과거의 대한 갖가지 사건과 경험담을 재미있게 들려주는 일이다.

나처럼 언제나 거무한 실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저같은 말동무가 정말 유일한 보물이었다.

일찍이 그는 이같은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나는 그 이야기에서 곱잡은 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발달이 될 것은 다음과 같은 사건 때문이었다.

어느날 나는 혼자 걸고 있었다.

아스파타도 마그닥파타도 볼 일이 없어서 퇴출하였던 것이다.

방안에 있던 나는 느닷없이 누군가가 들어온 것 같은 전기폭을 들었다.

나는 뒤를 보던 사람이라는 여관이 들었다.

그러하여 튀프로 나가 보았다.

화인 원관 호을엔 보천 사나이가 서 있었다.

이와 자들질이 되어 날씨가 쌀쌀한데도 드루코우르가 걸치고 있는 옷이 곱잡막한 젊은 사나이었다.

『우선 빌이시오?』

『원관인 알리산스트르 드레 폰 빌이 있습니다. 저기 사시겠지요?』

『그런 사람은 저기 없소.』

『왜 묻지?는 여기라도 알려 주셨을지?』

그는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다주요. 다자! 허트, 적 나가요.』

이름을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내가 손을 보 말하고 무더한 드루코우르를 아스파타·이치노비치가 나에게 걸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원관 호을엔 들어섰다.

나는 창문을 바꿈히 열어 보았다.

이제 그 사나이가 뒤로 보고 있는 앞에선 백엔자락하게 웃거리며
서 나의 팔의 두를 벗겨가지고 일구리며 재고 함으로 도장하여했다.

그런데 아그라피나는 늘한 나머지 일을 다 벌리고 피아프고 싶은
은 의두를 벗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아스파의·이파노비치는 날치기를 뱉었다 싶었지만 한볼을 겨나서
얼마동안 거리면 왼손으로 들어왔다.

사나이는 종적을 감춰버린 것이다.

『아아, 슬퍼 버렸군, 아스파의·이파노비치, 그러나 당신의 의두
를 잃게 할까 다행이군요, 하나더면 그놈의 날도두 때문에 걸을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않 아스파의·이파노비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토너당한 설자지도 없게될 지경이었다.

그는 죽일 일을 중단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
다는 듯이었다.

그는 쓰지가 저기 이렇게 서있었는데 두 발자국 밖으로 떨어져 있
지 않은 눈앞에서 음유리 털의두를 벗겨내는 일이 어떻게 눈앞으로
이루어지며 예기하여 그 사나이를 붙잡지 못했는가를 다시금 겨우
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두서 일손을 삼삼거말 더번에는 완전히 동양이 되고 말
았다.

그는 다윈에 묻지키키로 갈리와 사정이여자를 하고 나서 그가
저리고 있는 슬만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서 묻지키를 해당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묻지키키는 마그라체를 꾸렸었다. 그리고 나서야 다시
일손을 잡았다. 그는 오랫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
자신이나 나도 몰라 두 발자국도 떨어져서 앉는 곳에 있으면서 눈
앞에서 털의두를 벗겨가는 것을 눈앞에서 바라다나 하고 줄일줄일 혼란
발을 하는 것이었다.

즉 아스파의·이파노비치는 남의 털을 묻와 주기를 좋아하고 간

설화기를 좋아하는 재치있는 설화의 소수자였다.

『우리가 들은 다 타보노릇을 했군요, 아스타피·이타노케치!』

그날 저녁에 나는 그녀의 차를 운전해서 심심증이 생애 또 다시 일어났던 필히두 이야기를 되새기고 그에게 미용제 입을 빌렸다.

이 이야기는 우습기 짝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가 아무도 평생을 죽는 생활에 웃음을 쫓을 수 없었다.

『우선 너무 바쁘겠을 것입니다. 주인 어른, 비록 귀찮을 도난당한 건 아니고, 남의 일터라고는 하지만 정말 제습하고도 슬퍼와 치밀어 못견디겠습디구. 저 세상에서 도둑놈보다 더 나쁜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철학자 않고 노는 놈이 많이 많지만 도둑놈은 남이 적어 벌어주는 것은 물론 그것을 벌기 위해 온갖 괴팍과 시간까지 흘려가니깐 말입니다. 이런 도둑놈의 것이 먹여 주옵니까? 저기할! 율화가 책밀어 달도 하고 손지 알군요. 그건 그렇고, 그런데 주인장한, 장신은 없어야 할 물건이 안과져 없습디까?』

『아장제 앓다니요? 아스타피·타타노케치, 솟지 들건을 볼때부터리는 편이 낫지, 도둑지가 잃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억울하고 문봉이 터지는 노릇입니다.』

『억울화다니요? 하긴 도둑놈도 여러 종류가 있습디구만... 실은 저 주인장한, 난 장직한 도둑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정확한 도둑이라니? 그해 도둑놈도 정직한 놈이 있던 말이요, 아스타피·아타노케치!』

『그 말들은 좋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러는 것은 보기에 걸직한 사나이와 도둑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말 가엾더군요.』

『어쩔 새일이었어요, 아스타피·이타노케치!』

『주인 어른, 실은 약 10년전 일어났지요, 저는 당시의 큰 1년동안이나 열자리가 없어서 놀아야 했습니다.』

그해는 아직 내가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지요. 몹시 타락할 사나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석구의 식당에서 그와 수제였어요.

그는 독주자이고, 부동자이며, 기식자로서 전자는 어디엔가 근무하고 있었지만 주장은 생환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근무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말 모랄렛 젊은 필잔였이지요. 저구나 필치도 있는 듯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속의 무비취자를 알고 있다 하고 생각할 때도 있었읍니다.

수입을 모포라 마셔 버렸으니까도.

그러나 그는 목근론 아낀것입니다.

백우 삼전하고 상냥한 절제의 소유자였습니다.

절코 후근덕서리격도 알고 수죽기말 뵈었습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이 친구는 목이 타는구나 손을 때면 술을 받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나는 그와 판지 되었습니다.

수리는 권키 친숙해 있었어요. 그렇게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장아지처럼 대가 자는곳은 아무데나 따라 다녔읍니다.

그것은 달지 한 전람이 말남 일이 없는게 알립니다.

정말 붙지마진 농이로. 처음에는 하루계역쯤 쉼잡겠지 하고 재워 주었습니다.

수면중도 깨지고 있을 뿐더러 일갈도 필다른게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틀날도 재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수흔치 되는 날은 물론 향근덕에 와 앉아 있었읍니다.

그러하여 그날날도 자고 잤읍니다.

그런데 나는 슬피있는 힘이 생겼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시고 먹게 해주고 게다가 제워지자 주다니— 나도 가날할 판의 식재이 늘지 되니 잠갈할 질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에게 잠근력은 것처럼 어느 사무원점을 드가들며, 그식의 달려붙어 손을 마시고 다녔읍니다. 이유고 그 사무원은 어떤 의해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나이는 예벨·비빌리안·엘리지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를 어떻게 죽게 만들자 하고 나는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를 벗어난다는 것은 자음의 저 밑편더러 도리도 아닌것 같았습니
 다. 그는 들서 조락하고 소망이 없는 실견이었으니지요. 마구나
 말이 없고 후근후근하게 울지도 않았으며, 마의 제척짐 짐작도 알
 고 있어서 나팔 하라를 뵈어줍니다. 달라자말 을 때문에 사람을
 떠날지요. 나는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어떤과 하고 생각해 보았습
 니다. —어와 이럴리알누웁자, 마근리로 가되오, 아두웨드 짐을 잘못
 쫓아온 것 같다. 나르시는 할 도리가 없군. 나도 석장이 걸이게자
 되어 자리에게 석사를 제공할 수 없네 하고 달란다면 그는 이렇게
 할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와 같은 풍경이 떠올랐습니다—그는 말뚝을 손에
 들지 못하는듯이 몸죽도 앓고 말아서 오렷등은 내 얼굴을 따라도고
 있다가 저우 눈리를 쫓다는 것이 노파리를 들고 풍운으로 나가도고
 할 것이다—

지금도 눈이 선라자말 그는 마죽관 두뇌의 말간 구경이 많이 좋
 어질 조까지—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자말—물 언
 제나 자제고 다냈습니다. 그는 의투를 손질했습니다.

편이진 뜻을 감의 술이 보이지 않자 위해 등차함을 갖추는 것일
 다. 전말 제마드호한 사당이있로, 그것고 그는 문을 열로 눈물을
 글썽거리고 흥자를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니다. 한 인간을 관
 경의 따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자 그가 자립어 저더
 군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의 나는 어떤지 뵈어질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이럴리알누웁자, 자리가 우리들더
 부워도되하는 것도 으려 자지는 앓을질게.

나는 곧 예상하지 되면 그는 날 뚫지 못하겠지. 나는 자실더기
 어떻게 다렷했습니다. 우린 곧 예상하지되 되어 있었거든요. 그와
 해 주일이 알코순으로. 권릿모노비취(지금은 고열이 되렷지만 그와
 해 팔국의 단복을 뵈다)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자기를 단복
 하게 생각하여 아스모되. 다시 시골에서 돌아오면 주제를 알지않고
 부르겠네.

나는 그 시점에서 결투일을 보고 있었읍니다. — 나는 실랑할
분지였지만, 그에게 생살을 찔렀읍니다. 그리하여 그를 실랑하고
나는 내 몸을 꾸리고 약간의 분장을 하고서 잠적하며 안정된 생활
을 하려고 보그마할 땅을 빌어 어느 노파의 집으로 이사했읍니다.

그 집에는 조그마한 방 하나밖에 된 것이 있었으며, 노파는 어느
지적의 유모노릇을 했지만 그에게는 편금을 받아 주작씩 살고 있었을
니다. — 잘 자요, 에밀리안누벨라. 이젠 나를 볼지 못할 것일.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주인이든 어떻게 생각하겠니까,
어느날 저녁의 집에 돌아오니(나는 한두번씩 들락했었다.) 때를 세
필라다가 눈에 띄었읍니다. 그는 뒤 트집크 위에 앉아 베투무의와
새겨진 보자기로 한 보따리를 열세 봉로 외투를 입은채 나를 기다
리고 있거 앉혔읍니다. — 그리고 노파란의씩 실실풍으로 기도해
같은 것을 열피다가 커꾸르 들고 있었으며, 어머이 날 찾았었어! —
나는 완전히 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할 수 없군, 어쩔수없게 처유적
피곤했 못하겠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노란적으
르(주머니를 갖고있나? 에밀리안)라고 나는 불렀읍니다. 그런데
주인이든, 나는 거기 앉아서 의자 자고 생각에 잠겨서 시작했읍니
다. 잠없이 의문수 많다는 이 자가 나에게 얼마나 것이 될까. 그러
나 나는 의리보로 생각한 끝에 그가 별로 나에게서 거꾸장스러운
것과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읍니다. — 하나는 나는
그에게 적을 것을 주어야 한다. 아깝게 말 한 보따리에 맞을 줄 주
려면 말과주도 얼마간 차질 된다. 그리고 나에게도 역시 행복 담판
속하고 목적식수도 상쾌하 그리스(의사와 수발문의 잘 마시는 몸로
의 일종—의주—) 그리고 그가 원하면 땅을 주게도 하자. 이 땅은
카레크의 수후르라도 있으면 우리는 모직할 수 있다. 난 순의를 잘
이 되지 않는 편이다. 순편이란 워낙 별로 적지 많지는, 그에 지는
꼭일주나 부구려 포노주가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 몸으로 나도 문장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읍
니다.

[The page contains approximately 25 lines of extremely faint, illegible text, likely due to low contrast or scanning artifacts.]

든 바구니를 걸어 놓았어요.』

『그래서 어렸다는 거야?』

『상대편은 잘 여자의 정글인물이 든 바구니를 걸것 봐요. 걸할
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아무것도 다만이라니 뭐! 자넨 슬에 췌라 비물거리고자 자갈
거리까지 마쳐 버렸잖 그래.』

하고 나는 말했읍니다.

『그리고 코르코라다에서 든과 후도라아에서 든과 같은 거기에 나지
않지만 저넨 나리가 행장에 저희 한장을 걸려뜨렸어요. 그러자
한 농부가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서라고 하니와 또 한 사람에게 자
기저라고 얘기면서 자기가 먼저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릴리야.』

『그래서 두 농부는 서로 밟아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순경
이 뛰어와서 손을 주부 다리에게 주고 두 농부에게는 유죄장을
잡어 넣었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다는 거야? 거기 무슨 고은이라도 들어 있간 말한
가, 여릴리야?』

『아니, 나는 다만 사람들이 웃었으니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우 남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이 뭐야, 세릴리안누워잠, 자
넨 달드인(겨울 쓰시악시나이 코르코레이자라 저달하는 동전—영주),
동전 한 큰므로 저 경선을 할아머렸간, 세릴리안·일리키치, 자
해에게 하오실은 말이 있어!』

『무슨 말일니와, 아스다의·이바노리키?』

『아무일이나 시작하는걸 예뻐했나? 정말 시작하는거야, 내가 수
익던 달렸지만 일을 시작해요, 자기자신을 죽은하리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 좋을까요?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가람은 사람은 아무도 쳐주지 않을 걸러.』

『라제가 퇴원을 당할 것도 그 복음이 예닌과 예릴리아, 자넨 주장
끈이기 때문이야!』

『오른 식탁에서 일하고 있는 블라스가 사무소로 불러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러왔나. 예릴리아수석자.』

『저당은 할 수 없지만 무슨 볼 일이는 있기에 불러왔겠고, 아스
과파·이파노저.』

『아, 우런 모두 당했군,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 예릴리아수석자.』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글세 이런 사람과 무슨 일을 하란 말
입니까 주인이론! 그는 몹시 모랄하고 저주할 눈입니다. 세 말을
합질히 듣고 있는 동안에 실증이 났는지 내가 좌를 대는 기기를 달
아 차리고 의두를 들고 불짜 마저 나가더니 자음을 감행해냈어요. 일
종일 쓰다니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야 콘드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술은 두가 사주웠는지, 돈이 어디로 생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
다. 어쨌든 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예릴리아·일리아지, 자네 그러면 콧소내!』 나는 말했습니다.

『자넨 재미없을지야 술을 끊어, 알았나 술을 끊어야해, 다시
부락소 돌아오면 형제에서 밥을 내우게 될지야, 난 들어놓지 않을
데.』 예릴리아는 이 말을 듣자 어름은 잠깐 있다가 수를
해 뜨는 날 또 빠져 나갔습니다. 아무런 계략에도 돌아오지 않았습
니다. 나는 결이 나는 한편 그 후나이가 분량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다쳐 그치지 무슨 것을 했을까 하고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
다. 나는 그를 몹시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걸이 뒤쳐 어디로 갔을
자유 자없는 것 같으니, 아무때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군.
잠이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네다. 미친날 아침서 한편에 다
가보니 그는 현관호를쳐서 자고 있었어요. 유위 때문에 몸을 잔뜩 무
그리고 머리를 총계적 헛고 누워 있었습네다.

『어떻지 원전자, 예릴리아? 이제 무슨 것이야, 대적 서달 들었
나?』

『선은 전에 죄를 내서야 나를 밖에 들어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



달의 대공거리가 끝까지 출몰표를 띄뜨려 속속 느껴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치 팔로 실장을 여타는것 같은 저분이었습니다(나는 열리할 능이군. 나는 그런 생각은 끝이도 못했지, 이를 누가 알당, 아무도 실각지 못했을 지파……에틸리아, 난 너에게서 손을 제야 했다. 누더기처럼 되게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어른, 너야말로 어저귀를 쫓길 없습니다. 그리고 연필체도 못하고 추운한 마아기에서 달팔 자체도 없습니다. 주인어른, 당신은 어떤 저저리에서 부러진 동전일도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재계 같은 돈이 있고, 그럴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를 주이도 막잡지 않았을겁니다. 주인어른, 그런데 나에게는 매우 훌륭한 고글라지가 하나 있습니다. 쿠론 바랑지 박독무리가 있는 바제엘티 의곳으로 온 저주가 바에지 주둔했지인 너두 물어 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맡겨질 것입니다. 바공은 값진 물건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물론이 모물서장에 개적자도 아다 두우물은 슬지 모르겠다. 아니 그보다도 이것으로 제퍼르르그의 신사용 바지 두 켤을 만들어 보아야겠다. 그래도 내 조적같은 남제 필자야. 정말 우적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완성할수있다. 그런데 그제 리얼리할수위 자는 동세 지롭고 서글웠습니다. 오순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알르 총무는 필히 입에 빠지 않고 열바질 포쟁을 하고 동경히 앉어있는 것을 보네 눈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 눈이 열리까지 저모 양이 되었던 그렇게 앞으로 선서지 구르발 생각을 하거나 의성을 되찾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플른 주인어른, 이런 가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제 제의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잘 미처에 참견했습니다. 결여 돌아오니 에틸리아가 술이 지나후에 루리 종문역 같이 터잡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필진! 역시 그랬구나 라는 생각에 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두손일이 있어 트랭크 알르 광습니다. 추를 열이 보였제로 와어구 다물과 빠지는 손목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뒤저모아도 눈이 환 되더같은, 나는 살살이 뒤졌으강

끝내 눈에 띄지 않았어요. 더 기쁨은 바깥으로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전혀 노파되지 탈락까지 그대를 책망하고 경을 저 우였을니다. 그리고 예닐리아까지, 술이 취해 앉아 있었으므로 분명할 증거가 되었지만 아무말도 하지 않았을니다. 도우는 말했습니다.

『꽃밭에, 무슨소리 한숨, 젊은 양반, 내가 바깥 우였지 쓰담 말어요. 내가 그것을 일진 할단말어요? 여권권이 리스커에르도 당할 친구 때문에 없었어요. 이랬든 모르겠어요, 할 수 없어요』

『여기 누가 있었소? 여기 온 사람이 있지 않소?』

『아무도 없었어요. 젊은양반,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 곳에 있었으나요. 다들 예닐리아·일리아까지 나갔다 들이왔을 뿐이요. 저지 앉아 있구려. 그에게 물어보수.』하는 것이었음이다.』

『예닐리아!』 나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께 내 사바지를 가져가지 않았나? 지주와 주둔해서 만들었던 바지말야?』

『아니요. 난 가져가지 않았어요. 아스마피·이파노티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열도 다 있었어요. 나는 몇 번이나 찾아 보았지만, 끝내 없지 않았어요! 예닐리아는 풍들의 절리왔다 여전히 온 들흔들하고 있었을니다. 주인어른, 나는 그 밖에 있는 드릴 코에 오 그리드 앉아 일곱 그를 절눈절 해 보았을니다. 바지서 떨어졌을바 하고 셋죽죽히 자습이 타는듯 하고 일곱이 상기되어 왔을니다. 예닐리아는 갑자기 나를 타다 보았을니다.

『아닙니다. 아스마피·이파노티키, 나는 당신의 바지같은것 알지도 못해서, 그것을 혹시 내가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절로 아녜요』

『그렇게 어디로 갔을까 예닐리아·일리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본 일로써 없읍니다. 아스마피·이파노티키』

『그럼 어떻게 된거야. 바지가 혼자서 떨어졌단 말인가?』

『여기엔 혼자서 사귀었을지도 모르죠, 아스타의·이라노비치』

나는 이 말을 듣고 한바퀴 돌아나 창문 앞으로 다가가 창밖에 불을 쬐고는 밖노걸을 시각했습니다. 무려 아랫층에 살고있는 공무원의 조끼를 걸어 그대는 일이었음네단, 필을 붙잡기는 했지만 을쪽까지 떨어 자승이 적혀왔습니다. 바로 그 웃장을 모조리 티끌까지 떨어 붙잡라 버리고, 질은 거뭇어졌습니다. 예닐리야가 한것이하는 전 알았지 제국의 더욱 퇴가 처절히 슬기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끔애소 주인어른, 사람이 나쁜것을 하고 서그런게 될 것을 눈치채지 되건 자의 복을 주의 새 처럼 되더군요.

『고전 그링코, 아스타의·이라노비치』

예닐리야가 수의자가 털을 열었습니다(그의 목소리는 절로 있었음니다)

『오늘 의사의 조수인 알렉스·프로호노이치가 요전의 죽은 머무의 부인되 건넵었습니다……』

나는 그를 달카로운 눈으로 흘겨보았습니다. 예닐리야는 알아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침대를 따라가 그 열쇠의 무엇인가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엾히 계다렸습니다. 그는 으렛동안 뒤적이고 가더니

『없군, 아무것도 없군, 떨어덕을 쯤, 어디로 가져왔담!』

문가서 부딪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세만의 수경을 쥐고 있었음니다. 예닐리야는 침대 밑으로 장어들이 갔음니다. 나는 화가 적절히 올라 전될 수가 없었습니다.

『뭐야, 예닐리야, 열리서봐, 불타 붙은 거버다냐냐니?』

제가 외쳤음니다.

『부제가 있구 해서요, 후시 저기 떨어져 있나 하고 말예요』

『그런데 무슨 해문의(머무 화가 적절히 예닐리야 같았습니다.) 당신에 나같은 사람한테 들정을 하세요? 바리 두분이 다 떨어지게 할겠소.』

『구운 말씀을 하세요, 아스타의·이라노비치, 나는 여쭙던 것이

할 수도 있을것 같아요.』

『우, 에일리아·엘리아지, 네 말을 들어봐요.』내가 말을 걸었읍니다.

『주는 말씀이요?』

『자리를 잡히는걸 여전히 드뭅니다. 하지만이 네 목자를 슬쩍 놓아 놔주시, 설계를 원수로 잡을 수가 있다』그렇게 말씀입니다. 주일 머니, 그가 내 앞에서, 무릎으로 기루 몸을 지어하는 것을 보자 나는 그만 울기 도가 치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스다제·이파노비치……』

그는 여전히 침대 밑에 엎드려 있었읍니다. 한동안의와 겨우 그는 밑에서 기거 사웠읍니다. 그의 얼굴은 흠이풀어진 하얗게 질려있었읍니다. 그는 일어서서 내 옆 칸으로 걸러왔더니 나를 좀 잡아 붙었읍니다.

『아닙니다……아스다제·이파노비치』 그는 이렇게 말하고 느닷없이 내쪽으로 다가왔읍니다. 나는 저를 지은 것처럼 그가 무서웠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스다제·이파노비치, 내가 당신의 바지를 훔쳐다노, 그전것은 하지 않았읍니다……』

그는 온 몸은 땀뻘 땀뻘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지 가슴을 가리켰읍니다. 그의 목소리가 저 떨고 있었으므로 마치 나는 함부로 못박힐 것처럼 겁에 질려 골작도 못하고 서 있었읍니다.

『에일리아·엘리아지, 알잖나, 내가 바리해의 투쟁없는 일로 그토록 자멸 버달렸다면 용서하지, 그자의 바지같은 것 없어도 상관없네, 바지가 없어진다고 무서들까지 없어지지는 않을테니지, 다행히 손님이 있어서 도둑권을 하러가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가난장이에게 구걸을 하지 읊어드 그날 그날 장별어는 할 수 있거든……』내가 말했읍니다.

에일리아는 초웃등안 내 앞에 서서 내 말을 듣고 있다가 자리를 잡았읍니다. 그는 창세도록 품덕도 없고 겁이 있었읍니다. 이른날 하

쪽의 손을 잡아보니 그는 의부로 몸을 강하고 바루와하여 누워 있
 었습니다. 그는 지가 죽어서 절대 위치의 가지 못을 것입니다. 그런
 데 주인이론, 나는 이해부터 그가 싫어했습니다. 나는 저절로말 그
 를 몰서 미워했습니다. 마저 전가적이 도둑질을 해서 여에 사무적
 는 모욕을 당한게나 다름가지였습니다. 고안들, 발악권을 자식, 하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론, 그는 저의 두 주일 동안 날마다 술
 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포자기하듯 술만 마셨던 것입니다. 식
 전에 나가면 팔능계우들이 왔습니다. 나는 두 주일 동안 그의 말
 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주 아미 자선도 슬픔으로 지로라 했는자 보
 는 자선을 보듯하고 슬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술도
 끊어버렸습니다. 아미 몽랑 마셔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절근해 앉아 공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금도 잊을 수 없지만 밤낮
 사출동작을 음근지로 입을 뜯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혈통 차근보니
 그는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러나 울고 있는지 여지 순물이, 꼭
 모처럼 돌아지는 것을 자신도 모르고 있었군요. 우엘리루, 예렌리
 아 같은 자지 자신의 불행을 잔니자 못하의 우는 끝을 분다는 것은
 정말 못보질 노릇이었습니다.

『예렌리야, 뭐 그리나?』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팔팔 놀다며, 전신을 부들부
 들 떨렸지요. 내가 그후 그에게 자음으로 말을 걸었지 복문입니다.

『사무것도 어립니다. 아스단의 · 리복노라지』

『농담이 아니라, 예렌리야, 그러면 없어도 상관없이 권 · 때문에
 그처럼 슬픔을 하대?』

나는 근근히 그가 불행한 정국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 보고 싶어서
 그렇니다.』

『어떤 일을 말인가?』

무엇이든 알려드려도 좋습니다. 어쩌면 전처럼 무슨 일이라도 원이될
 겁니다. 나는 벌써 리도웨이 · 이타노이적까지 일조자를 부탁하리

있다 왔습니다. 당신을 노엽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까요. 아스카피·이타노키지. 나는 별자리가 마멸되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잡혀 볼 겁니다. 나를 돌려주실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카라이란 술다보젠 서로 못마땅할 때도 있지만 모두 저사관 말이 아닌가요? 그런건 마두래도 상관없게. 노는대로 살아 자체.』

『그렇지만 타니에도. 당신은 아마 모든 것을……당신의 바지를 내가 돌려야 하니까 하고……』

『그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게. 자키는 궁할 수가 없잖아. 예전의양 수위자.』

『아닙니다. 나는 이 어술 당신의 직책소통을 할 수는 없읍니다. 제발 동서러 주십시오. 아스카피·이타노키지』

『그렇지요. 내가 지켜서 그것을 봤다고 했는가? 누가 제어를 못마땅하겠어요?』

『그렇진 않습니다만 내가 당신 집에서 전서적으로 있는 것은 저의 예 정어란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아스카피·이타노키지』

그는 좌를 때려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의투를 어깨에 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적대로 잘 생일자? 본공의 생각해보면 무엇을 하겠다는 전자, 저대로 가겠다는거야?』

『아닙니다. 이번 실패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전이 두자야겠습니다. 본잡지 마십시오. 당신도 전과 같지 않으니까요.』

『전과 같지 않으니, 무엇이 어떻다는 전자. 자키는 마치 어린이 같군. 혼자 있으면, 실체를 감지해.』

『아닙니다. 당신은 왜출한 어떤 트럭크를 잡으시지요? 나는 그것을 보고 올렸습니다. 저번과 나를 돌아 주십시오. 그리고 할래 있을 때에 잘 곳한 것이 있다면 동서러 주십시오.』

주인어른, 그러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나가 타린 것입니다.

날 진공일 기피였습니다. 저녁 예전 불아오리라곤 생각했지만 문밖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도 쉬는척도 불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는 놀라고 근심해 싸여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나폴레옹의 날 밤으로 나가 술집에갈 술주는 오소리 찾아 도왔습니다. 그러나 어부비라도 그를 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후지 불행할 때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있었읍니다(후지 어느 술타리 밑에 술에 취한 채 손이 썩 지음은 무슨 통나무처럼 굳브고 있는 것이야 아닐까) 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강렬한 마음으로 정면 돌파 왔습니다. 이튿날도 역시 잠으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뎠 때문에 그 타보같은 사타이를 마는데도 나가게 할 줄도 하고 나 자신을 쳐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엔 되던 날 서떡복이 문이 딱딱히 열리더니 에밀리야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르죽죽하고 머리차마는 은통 유투설이가 되었으며 몸은 나무조각처럼 예애돈 몸이 길거리에서 잔것 같았습니다. 그는 의부를 벗고 트렁크에 걸터앉아 나를 들어지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달게왔지만 마음은 더 울적해졌습니다. 주인어른, 민선 씨가 그쪽 잔은 쪼저가 되었던면 개처럼 죽어버릴 것이지, 불아오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커덜러하는 불아올것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정말 가엾어군요. 그래서 나는 그를 위로하고 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야를선과, 불아오서 좀 날잡네, 자네가 좀더 늦게 불아왔다면 나는 오늘도 진공일 자네를 찾아 술집을 헤쳐있을걸세, 실상은 어떻게 됐나?』

『먹었습니다.』

『침말 먹었어? 저기 카레 초 수우뜨가 조금 남아있네. 먹고저도 들은 것일세. 그리고 여기 크레프와 빵도 있네, 먹어 먹제. 이것 커덜 닥스 소거는 필필세.』

나는 그렇게 맥을 튼튼히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되었

가져 사흘동안이나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에 주석 붙었지요. 왜
가 교과서 저역자로 온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나의 마음은 틀어졌읍니다. 나는 뛰어난가의 술이라도 사다주
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어떤 눈치세. 이쪽은 자네에게 화를 내지 않겠지. 다
시는 술집을 팔지.』

나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에필리안·엘리지치, 체질을 독화하는 약이여. 한 잔 들래. 들
러 왔잖아? 콧마 몸에도 좋음질세.』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저발리 손을 내밀어 술을 걸었다
만 곧 손을 멈추고 잠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림을 들어
앞으로 가져가려다 쓰레에 술을 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
이를 위해 잔을 놓았습니다.

『어떻게 된건가 에필리안누워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스다의·이비노바라.』

『다시계 왔잖나?』

『네. 술을 마지키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아주 절성을 했던 말인가? 그렇게 좋으면 노승만 알 다주
겠다는 말인가?』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섯이 손으로 턱을 크었습니다.

『왜 그러나 어디 병이라도 앓나, 에엘리야?』

『네. 마음이, 슬퍼져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를 부추라져 침대에 눕혔읍니다. 그는 정말 병이 난것 같
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어리 같고 무릎무릎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중일 그의 절에 앉아 있었지만 병이 되어 저후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즈바스에 머리카락 양파와 캄부스르기를 넣어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빨죽이 나 들서빠요. 마다 거북이 좋습지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소는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나는 화를 내면서 주느라도 노력하자 못견디게 하였읍니다. 그러나 그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읍니다. 나는 음식 결정에 되었읍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목수를 부르긴 하였읍니다. 근처의 고스트 프라브르라는 목수가 살고 있었요. 그는 나라 보호장갑처럼 있었을 때 알게 되었으며, 병을 치료해준 일이 있습니다. 목사가 와서 진찰을 했읍니다.

『아니, 아직 여간했읍니다. 임부리 나를 부르러 올 필요도 없는 걸요. 거문상 자루착어라고 먹이지쇼.』

그러나 나는 자루착 같은 것은 먹이고 싶지 않았읍니다. 의사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게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다 쳐보았읍니다. 그의 눈은 한없는 슬픔에 잠긴채 나의게서 눈을 떼려고 하지 않았읍니다. 그절때 내 세친과 마주치자 그는 큰 눈을 내리놓았읍니다.

『아스다의·이타노에게』

『오 그러나, 어떤의야 누워자요』

『만일 내 의부를 위하여 고물상이 가장가면 몇 분이냐 관음자요. 아스다의·이타노에게』

『글쎄, 같은 말 수 없지만 어쩌면 3루우볼쯤은 갖자요』

그러나 막상 그런 물건은 가져가드 한 분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분 하이라 그런것을 듣고 나왔다고 실컷 조롱이나 당할 것일테다. 나는 어력적인 차수의 경직한 마음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될자 하여 그렇게 말조를 붙입니다.

『아스다의·이타노에게, 그렇지만 다치라면 3루우볼은 더구 화장 아요』

『글쎄 모르겠데, 그렇지만 이것을 가져 간다면 처음부터 3루우볼은 요구러야 하네.』

이별의야는 감시 말이 없어서 다치준 나를 붙였읍니다.

『아스다의·이타노에게』

『오 그러나』

『제가 숙여진 누워계 외투를 잡아주세요. 그것을 입실체도 벗장
하져 다시요. 이대로 들어 주세요. 그것은 값어치가 없는 것이지
자 드송이 될지예요.』

주인처럼, 나는 이 말을 듣자 슬픔이 복탄려 몰라 아무말도 할
수 없는 심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임종의 괴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금 말없이 한 시간의 지냈습니다. 나는 또다시 그의 민
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끌어지려 하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눈이 마주자마자 다시금 눈을 껌었습니다.

『물이라도 좀 마시려나?』

『네, 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나는 그의저 물을 마시지 해 주었습니다. 그는 끝까지고 눈을 마
셨습니다.

『정말 포말습니다.』

『그럼의 무엇이라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는……』

『두었진가?』

『저……』

『뒤만 알았가?』

『마치말씀이요……바로 그……그것은 너가 후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거지, 자넨 정말 불행한 인간이었어. 저
말 다음 필히 저 세상으로 가요……』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손의 막고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나는 외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스타피 - 이라노르,네』

에엘리아는 아직도 매지 할 말이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일어나려고 몸서 여를 쓰면서 입술을 포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
는 갑자기 얼굴의 붉어지더니 나를 향해 바라보았습니다.……그러
자 다시 얼굴이 창백해지고 송이 속 늘어지더니 몸을 뒤로 걸리고
숨을 질러 내 신 다음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 보냈습니다.

□--본질 후기--□

○--광야가 유난히 열의 전령은가 했더니 수은주는 열의 33도를 오르 내린다.

열은 왼쪽에 있는데도 마음은 하루에 열 두 번씩 타다를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탄다. 이도 저도 볼 되거나 이젠 말으막을 서너를 예라도 팔을 당기고 머리를 미쳐보고 싶다.

○--강원. 이단은 강적의 8·15가 있는 날이다. 8·15에만 27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새마을운동 등 근계회운동을 벌인다. 종적 참보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8·15처럼 27주년을 맞아 우리의 시로운 열의를 다정하거나 새 지에까지 그날의 감호음을 보태주고 우리 민족의 앞날을 셋죽해 보는 기의를 갖는다.

한 형유남의 「통일과 평화 우리의 자식」은 그 열 의지적 열우를 권하고 있다. <임>

○--공공의 전철의 나쁜을 세로 늘려 받았다.

본질하는 사람이 말라게면 폭도 말라거나 한다는 것이 망연한 지문이나 어지럼 특수한 예전의 능여 있는 감적의 전철은 그 다음 예로의 교명을 안고 있거나 마련이다.

몸의 있는 예로결과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풀다 음려 우는 책, 기다려지는 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은 합리적 결격자의 열당서다.

○--이런 호의 전철적은 느껴 전의를 못하었는데도 전철후기를 쓰라는 비스들의 덕적스릴 요구로 신하의 편을 잡았다. 조금은 미안한 일이다. 그러나 어떤 열계에 있는, 전철적의 의도가 격적되어 있지 않은 의의 후기를 쓴다는 것도 비강스를 뜻할 호스음처럼 본과 모르게 작품을 책사시켜 주는 불해적수의 하나가 된다.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타성이 있게 마련이다. 좀더 보편성을 의고 단 전적 자기와 자기의 우위를 권조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절 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적분성이 있는가? 나의 적적후 정환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 나는 학생에 의하여, 후술에 접하여 그 내로 사물의 단단을 확고 있지 않은가? 등등에 걸쳐 한 편서 불성리 불 필요가 있다. 작품을 받은 전철적로서 어리할 반성으로 책을 꾸리는 일대, 나서고 싶다. <전>



신임 314단 군종감 주 영복 참모차장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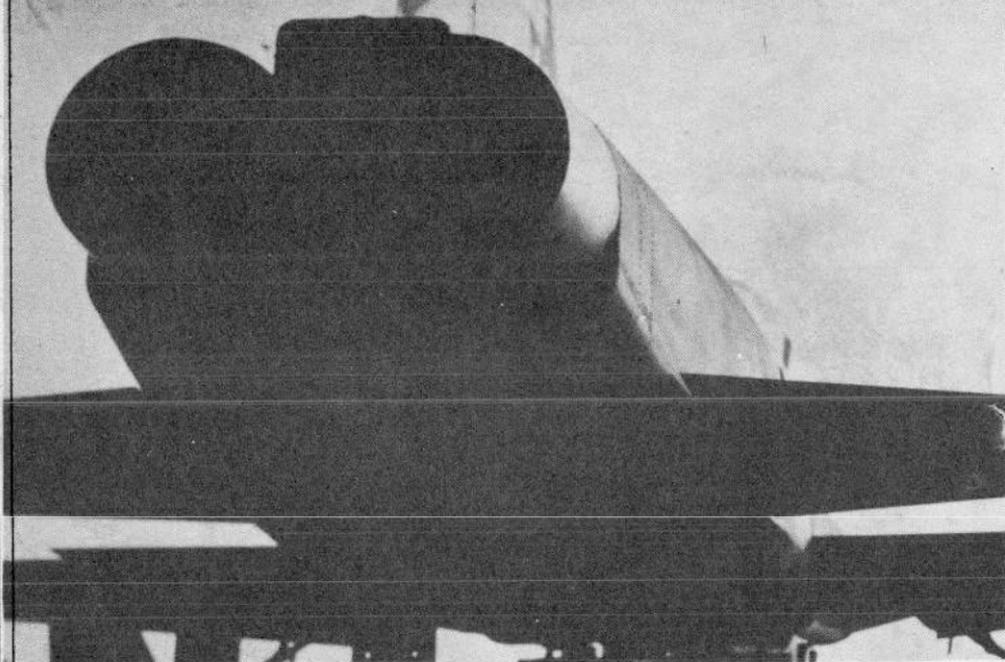
신임 314단 군종감이 인사차 공군본부로 주 영복 참모차장을 예방하였다.

공군본부 교회 기공식

6월 31일 공군본부에서는 옥 만호 참모총장을 비롯한 관계참모와 장병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공군본부 교회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자조정신 · 자립경제 · 자주국방



— 정 예 공 군 되 자 —